기존 동전기와보다 10배나 두꺼운 동주물기와는
한번 시공으로 특제전용의 수명을 300년 이상 연장합니다
대원동주물기와 ☎(02)739-8745/735-2344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목이마가 오르면 소존금리로 대합에는 박봉금리로!
★교육자금 주택자금 경조사자금 노후생활자금 등 다양한 대출서비스 제공
국민은행

덩예회장 :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5월 10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넓고 큰 서원과 정성으로
켠 등불은 경코 꺼지지
않으리 〈근본설일체유부〉

법회 안내

안정사 (02)292-2439
신등기도 매월 10일(음) 오전11시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1시
청년회법회 매주 일 오후2시
학생회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어린이법회 매주일 오전10시30분

천중사 (02)914-3558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오전11시
보름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1시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1시

안동 유일사 (0571)858-0198
정기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0시
안동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관음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인천 용천사 (032)502-6058
관음법회 매월 1일(음) 오전11시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1시
합창단법회 매주 금 오후2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청년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용인 동도사 (0335)33-7417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오전11시
정기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1시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1시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 · 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민중불교운동연합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공연

사회의 모순에 의해 고통받는 중생과 함께 '불교의 민중화'를 실현하려고 창립한 '민불련' 10년의 역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동지들과 '민불련'에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분의 동참을 함장 기원합니다.

◆일시 : 불기2539(1995)년5월13일 오후3시~5시30분
◆장소 : 서울 장남 봉은사
◆행사 : 1부-창립 10주년 기념식
2부-기념공연 : (배우산)
(고은 선생의 장편 서사시를 극화)
◆문의 : 730-7658(서동석)
735-2040(이남재)
초청인 : 여익구(제1기 의장)
고광진(제2기 의장)
서동석(제3기 의장)



◇간절한 서원이 담긴 연등이 하늘을 덮은 가운데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는 봉축 법요식이 지난 7일 전국 사암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사진=박재완 기자〉

"이타행 구체화…통일의 문 열자"

7일 부처님 오신날 전국 사암 법요식…곳곳에 연등 물결

불기 2539년 부처님 오신날인 지난 7일 오전10시 조계사를 비롯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제주등 전국의 불자들은 지난해 일어난 종단개혁 의지를 계승하고, 광복 50년을 맞는 올해 통일의 문을 여는데 앞장설 것을 새롭게 다짐했다.

오색 등과 많은 신도들로 축제 분위기를 이룬 조계사에서 봉행된 법요식은 혜암스님(조계종 원로회의장)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등 종단 지도자와 주한 외국대사 정·재·학계 대표, 신도등 3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성료됐다.

28번의 명종으로 시작된 법요식은 혜암·월주스님의 관불의식, 헌화 찬불가 봉축사 법어 헌촉 헌다 권공및 축원 발원문낭독 헌등 헌향의 순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혜암스님이 대독한 법어에서 월하 종정스님은 "남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여 내가 이기기보다 우리 불자들은 내가 눈물을 흘려 남을 기쁘게 하자"고 설했다.

봉축사에서 월주 총무원장은 "우리 모두 부처임을 확신하고 부처님이 이룩한 깨달음을 사회속에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대자대비의 보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각 사찰에는 부처님 오심을 봉축하는 관불의식과 연등달기에 동참하려는 불자들로 장엄한 법석을 이루었으며 지역 및 사암연별로 제등행렬이 실시돼 밤거리를 등불로 환히 수놓았다.

목어

올 부처님 오신 날에도 불자들은 간절한 서원을 담아 봉축 연등을 밝혔다. 개인의 소망, 가정의 화목, 이웃을 향한 자비, 조국통일과 인류애등 오월의 연두빛 신록속에 공양 올려진 온갖 서원들을 부처님은 모두 접수하셨으리라. 이제 그 원(願)들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발원자들의 몫이다.

"초파일에 연등을 달았으니까 매사 잘 되겠지."

부처님의 가피는 그렇게 쉽게 오는 것이 아니다. 연등을 다는 그 마음이 늘 지속돼야 한다. 원이 간절하면 할 수록 그에 비례하는 지극한 기도와 노력과 정진이 따라야 한다. 그러면 가피는 어느새 자기 속에 와 있게 마련이다.

민자당은 이번 초파일에 김영삼 대통령 이름으로 전국 383사찰에 연등을 달았다. 어떤 서원을 담았을까.

대통령의 연등

국민의 안녕과 민족의 번영 등 당연히 국가원수로서의 바람이 담겼을 것이다.

초파일에 대통령 연등이 법당앞에 걸린 것이 처음 일은 아니다. 그래선지 올해의 경우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다. 왜 신도 5천명이상의 사찰을 선정하여 연등을 걸었을까. "부처님은 큰절·작은 절에 다 계신데…, 물론 전국 사찰에 다 연등을 달 수는 없는 일이지만 신도 5천이상 사찰에 연등비용만 2천만원 이상 등을 미리 소문내다니 왠지 속보인다." 사람들이 신문을 보고 주고 받은 말이다. 일부 언론에선 '불심잡기 민자고심'이라고도 표현했다.

현우경에 나오는 가난한 여인의 작은 등 (貧女一燈)은 해마다 되새겨보는 알려진 이야기다. "너무 가난하여 작은 등을 공양하나이다. 이 공덕으로 내생에는 지혜광명 얻어 일체중생 어둠 없애게 하소서."

모범 수형자 6백75명 초파일 특별 가석방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법무부는 지난 6일 모범수형자 3백33명을 가석방하고 모범 소년원생 3백9명과 감호자 33명을 가퇴원 또는 가출소시키는 등 총 6백75명을 석방했다.

이번 가석방은 각종 기능자격취득자 52명, 고졸자격등 검정고시 합격자 12명, 기능대학 이상 합격자 2명, 외부통근자 43명, 무기수및 10년이상 장기수 25명이 포함돼 있다. 조직폭력, 가정파괴등 고질적인 민생침해 사범이나 재범의 우려감이 있는 경우는 제외됐다.

법무부는 '석탄일 가석방된 수형자들은 재발방지를 위해 일반사회와 유사한 상황조건을 갖추고 있는 천안개방교도소와 군산교도소 생활지도관등에 집단수용돼 2개월간 사회적응 훈련을 받았다'고 밝혔다.

광복절 판문점 남북법회 합의

월주스님 가을경 방북 의지 밝혀

올 8·15에 판문점 남북공동법회가 열릴수 있을 것인가.

조계종 월주 총무원장과 평불협 상임부회장 법타스님, 장지현 정사(진각종 LA 포교원장)는 지난 3일 오전11시 조계종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월15일 광복절에 통일기원 남북및 해외불교도 공동법회를 판문점에서 개최키로 북한의 조선불교도 연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일까지 8박9일간 정산스님(평불협 미주 본부상임고문)과 함께 북한을 방문한 지현정사는 그동안 조불련 대표들과 두차례의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판문점 행사의 구체적 일정과 장소 결정을 위해 5월23일 중국 북경에서 월주·법타·지현 스님등이 북한대표측과 실무 접촉을 갖는다.



◇대한불교 진흥원 서돈각 이사장은 지난 7일 부처님 오신 날 부인 본연심보살과 함께 '불자 가정' 스티커를 자택 현관문에 부착하고 있다.

'우리는 불자 가정' 초파일 5만장 부착

'우리는 불자가정, 나와 이웃과 자연은 하나' 스티커가 부처님 오신 날인 지난 7일 전국 5만 불자가정의 대문을 일제히 장엄했습니다.

배부 첫날인 지난 7일은 각 사찰 봉축법요식에서 불자들이 스티커를 받아 갔으며 우편 발송 주문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또 각 종단과 조계종 교구본사, 신행단체들이 동참 의사를 밝히며 '2천만 불자의 집에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불교방송과 불교TV도 전파와 영상을 통한 홍보에 적극 동참 하고 있으며, 각 일간신문과 교계 주간, 월간 매체도 홍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차분 5만장이 7일 하루에 동나버린 스티커는 8일부터 다시 만들어지며 2차분부터는 대량구입 사찰과 단체의 이름을 스티커 뒷면에 명기합니다. 또한 1백장 미만 주문시에는 무료 보급을 하지만 1백장 이상 주문시에는 제작 실비로 약간의 동참금을 받고 있습니다.

83 사찰·단체 호응…전화 쇄도

스티커 붙이기 동참자 △조계종(총무원장 월주) △태고종(총무원장 서봉) △천태종(총무원장 운덕) △진각종(통리원장 지관) △수덕사(주지 법장) △동화사(주지 무공)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청화·지선)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한상범) △우리는 선우(공동대표 남지심·박광서) △월간 대중불교 (발행인 장상건)

(3면에 계속)

공동주최 : 현대불교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 대한불교진흥원

29호부터 지현정사 북한 기행 단독연재

우리는 가족 포교사 15면

다음주 휴간 29호는 5월 24일자로 발간

曉星그룹 신뢰받는 기술

"한국산업발전의 견인차 — 효성중공업"

종합중전기에서 첨단기술산업까지

효성중공업의 생산제품 소개

●중전기기 및 송변전 설비 : 초고압 송변전 설비, 초고압 변압기, 폐전 변압기(몰딩, SF₆GAS, 건식, Mold, Amorphous), 초고압 GIS, GCB, DS, 각종 폐전반, 통신기 및 변전설비, 철탑, 철구조물 ●산업용 기기및 설비 : 권프 감속기, 송풍기, 크레인, 수문, 삭도, 산업설비, 환경보전 및 수처리설비, 각종기계장치, 화학장치, 주차설비 ●회전기기 : AC전동기, DC전동기 및 Drive System, 방폭형 전동기, AC서보모터, 브레이크 모터, CLS전동기, 발전기, 각종 특수전동기 및 전동기 기동장치 ●전력전자 및 FA : 자동창고, UPS, 프로그래머블 콘트롤러(PLC), 수·배전반, 전력 감시제어장치, 분산형 제어 시스템, 계장설비, 각종 콘트롤러, 교류전자 접촉기, 개폐기(MC,M/S), 배선용 차단기(NFB), 진공차단기(VCB) ●건설 : 효성빌라, 주택신설, 각종 건축 공사



사 설

정토실현은 내가정에서 출발

불교의 세가지 보배인 불보·법보·승보는 보존이나 상징적 의미로서 중요시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과 활용의 차원에서 더욱 중요하다.

불보는 부처님을 철저히 믿는 것, 법보는 부처님의 법문을 열심히 배우고 익히는 것, 승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지런히 실천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삼보를 믿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불교이다. 이 모두는 마음의 다짐에서 비롯된다. 이제 우리 불자들도 신심과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마음의 나래를 활짝 펴 보자. 마음으로 믿는 종교라해서 엉거주춤 드러내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서투른 겸손일랑 걷어내어 버리자.

소신있게 믿고 밝음을 배워 실천하는 불자가 되자. 이 세상에 불교만큼 좋은 종교가 어디있나 생각해 보라. 그리고 "나는 불자이다"라는 자신을 갖고 살자. 누구를 만나든, 어느 자리이든 불자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고 그럼으로써 남에게 신뢰받는 종교인으로 거듭나자.

자동차에 염주를 걸고 다니는 것도 불자로서의 표현이겠지만 더 나아가 대문에도 불교의 표어를 붙이고 집안에도 불교의 그림이나 법구를 적은 액자를 걸어 놓고 신앙적 의미를 항상 되새기며, 합장주나 호신불을 지니고 마음의 안온을 찾는다면, 그의 생활은 날로 자신있는 희망적 삶으로 펼쳐질 것이다.

불교는 본래 할머니들만 믿는 것이고, 미신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종교가 아니다. 청년 석가모니 부처님의 첫 제자는 눈푸른 남자 다섯 사람이었다. 또 부처님께서 창조적 절대자를 믿는 미신을 타파하고, 조물주에 얽매인 우상적 고정관념을 버리고 스스로 '나' 자신의 위대함을 깨달으라고 외치시던 법석엔 항상 1천2백50명의 남자 제자들이 추종하였다.

한국불교 1600여년 역사상 신라·고려의 천년은 임금도 관리도 귀공자도 출가하였으니, 불교가 참으로 평등·자비와 지혜가 충만한 종교임을 알게된다. 다만 조선조 500년 동안 성리학을 맹신한 결과 인간의 심성보다 의례와 문사(文詞)에 치우치고 억불숭유의 정책하에서 남자가 절에 드나드는 것이 입신양명을 포기하는 행보로 여겨졌다. 그러한 습속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남자신도는 법회에 참여하기를 꺼려하는 풍토를 낳게 되었다.

이제 21세기, 세계가 한 마당인 밝은 세상을 맞아 불자들은 스스로 그러한 폐습을 깨어버리고 당당히 나서야 된다. 다행히 요즘 일요법회나 불교의 각종 행사장에 가보면 남자나 젊은 불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우리 불자도 긍지와 소신을 갖고 굳은 신심으로 배우고 실천하여 깨달음의 생활화를 성취토록 해야 한다. 이에 불자로서 자신감을 갖고 대승보살도를 실천하여 먼저 나의 가족이 하나되고 이웃과 사회가 하나되고 세계와 우주 자연이 모두 나와 더불어 하나되어 서로 아끼고 사랑함으로써 평화와 복지로 충만된 불국정토가 실현되도록 하자. 그러한 노력은 불자로서의 신행 그 자체요 긍지일 것이다.

불기 253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현대불교신문이 '불자가정' 스티커 붙이기 운동을 전개하는 뜻도 바로 시대를 이끌어 가는 불자의 사명과 긍지, 소임과 역할을 당당히 천명함과 동시에 그것을 대사회적 약속으로 격상시키는데 있다. 비록 작은 스티커 한 장을 대문에 붙이는 일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 일에는 적어도 세가지 의미, 즉 불자로서의 긍지,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의 실천, 가정에서 출발하여 사회로 확산되는 정토실현의 서원을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라면 누구나 '나는 불자'라고 말할 때 먼저 가르침의 실천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거듭 말하지만 자신에 대한 다짐이요 이웃을 향한 선언일 것이다. 고로 스티커를 붙이는 그 순간부터 솔선수범하는 시민으로서,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부단히 점검하고 반조하게 될 것이며 또 불자라면 누구나 마땅히 그래야만 한다고 믿는다. 불자가정 스티커 부착운동은 이천만 불자 전원이 동참하여 한국이 불국정토로 완성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불자 가정' 스티커 붙이기운동 전개

이웃사랑·환경운동·보살행 첫 걸음

월주스님



「불자가정」 스티커를 붙이는 일은 스스로 불자임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긍지를 갖는 일이다. 동네내에서 어느 집이 불자가정인지 알 수 있기에 서로 교류하는 등 도움되는 일이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와 이웃과 자연은 하나'라는 표어가 들어있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인 동체대자대비심을 늘 가지고 보살행을 펴는 실천운동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운용이라 생각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최재홍 씨



우리의 사회는 물질만능 정보화시대로 급변하면서 자연은 오염되고, 인간의 본래 심성마저 타락하고 있습니다.

'나와 이웃과 자연은 하나'라는 명제는 상호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즉 삼라만상 모두가 같은 뿌리에서 시발된 존재로써 더불어 살아야하는 필연적인 진리(法)인 만큼 2천만불자는 불자로서의 확고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이 운동에 적극 동참합시다.

〈진각종 총 금강회장〉

윤선덕화 보살



아내는 일요일 절에 나가고 남편은 멀뚱하니 집에 남아있는 경우를 우리주변에서 종종 접할 수 있다. 남편과 아내, 아들과 딸이 함께 불심을 모으는 불자가정만들기를 주부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대환영한다.

〈주부·서울 삼계동〉

김두원 씨



현대불교신문사, 종단협, 진흥원에서 공동 주최하는 '불자의 집 스티커 붙이기' 운동을 벌인다는 것에 대해 진실로 반갑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 절 저 절 기웃거리면서 나와 우리가족만이 잘되게 해달라는 불자, 초파일 등을 밝히기 위한 하루만의 불자가 아닌 세세생생 불자임을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이번 캠페인에 많은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으면 합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하나되는 세상, 부처님세상은 바로 이곳이 되리라 믿습니다.

〈광주불교 능인회 회장〉

양재국 씨



자동차 뒷유리가 광고판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시대다. 그래서 회사의 마크나 종교적 징표를 부착한 차량도 많은 것이다.

'우리는 불자가정'이란 스티커가 차량용으로도 보급된다니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우리 통신원들도 차에 부착하는 것은 물론 차내에 스티커를 비치해두고 불자 손님에게 적극 보도할 계획이다. 이 운동이 전국의 불자들 가정마다 '불자문패'를 달 수 있을 때까지 지속 되길 바란다.

〈불교방송 교통통신원 회장〉

이문수 씨



오늘날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세계화란 구호는 다른것이 아닙니다. 각자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정진하는 길입니다.

특히 불자라면 '나는 불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실천수행하는 것이 불제자로서 간직해야할 덕목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천태종 중앙청년회장〉

정희돈 씨



우리불자는 응집력을 가져야 하고 당당함과 자긍심을 높여야 합니다. 각자의 집에 불자임을 표시하고 이웃과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자는 내용의 스티커를 매일 보게되면 자신의 삶과 각오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영남대 교수〉

현 대 만 평 박구원



부처님 말씀이 곧…

시 론

'불자 실명제' 선언 자긍심 갖자

「불자 실명제」라는 말이 생겼다. 자기가 불자이면서 불자라는 것을 감추려는 사람들이 있어서 생긴 말이다.

어떤 재가불자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내빈으로서 축사를 하던 국회의원이자 장군인 열심한 불자 한분이 「넥타이를 맨 지식인, 사회지도자들」이 「나는 불자다」하고 나서서 각자 불자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 힘을 합쳐 일하자고 모인 공경을 보고 내뱉다 싶이 튀어나온 말이 이 말이다. 「여기는 불자실명제가 돼 있군요」하는 것이었다. 자각있는 재가불자들로서는 누구 한 사람 자기가 불자임을 감추려는 사람이 없다. 그런 자각을 갖고 사는 재가불교인들에게는 이 말이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네가 불자임을 감추고 숨기기는 커녕, 어떻게 더 많은 사람이 자기네들처럼 불법의 고마움을 알고 불법이 가르치는 대로 보살이 되어 이 혼탁한 사회를 맑고 깨끗하고 행복한 불국정토로 만드는 일꾼이 되게끔 하느냐 하는 그들 자신의 중차대한 사명과 책임에 더 깊은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다 더 나은 불자, 부처님께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선 보살로서 부족함이 없는 불자가 되느냐 하는 그것만이 그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이 기 영
〈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

우리는 자기가 불자라는 것을 감추고 숨기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출세에 지장이 있어서…

둘째, 인간관계상 조화를 고려하여…

셋째, 또는 자기열등감 내지 자신감의 부족에서…

'나는 불자' 사명 다짐

위의 세가지 중 첫째와 둘째의 둘은 익명불자 자신이 내놓는 이유들일 것이지만 결국은 셋째가 그 주된 이유가 되어 있을 것이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집안이 대대로 불교를 믿는 집안이어서, 또는 어머니가 절에 다니기 때문에 불교에 적을 둔 사람일 공산이 크다. 그렇지 않아도 한때 어떤 좋은 인연을 만나 불법에 입문은 했으나 불교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다운 불자의 삶이 되는지 등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다.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도 불자다」라는 자각도 긍지도 생기지를 않은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서 부귀공명은 제일가는 가치라고 생각하고, 그보다 더 가치있는 것, 다시말하면 보살이 되어 수행하는 일의 가치라던가, 부처라는 분의 존귀한 까닭이라던가 하는 것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 그런 사람이 「나는 불자이다」라는 자각이나 긍지를 공공연히 대중들 앞에 들어낸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한편 불자답지 않은 사람이 지나치게 자기의 허상(虛像)을 불교의 이름으로 미화하고 장엄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요 불자 형제자매로부터도 빈축을 사는 경우를 만나게 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

담장과 울타리를 헐고

불자라는 것이 부끄러운 때도 있다. 마치 요새 한국인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부주의, 방심, 기술부족, 부정부패(협잡, 뇌물수수, 공사비 떼먹기 등등)로 인한 대형사고 때문에 온 세계 여러나라 사람들로부터 받는 빈축, 조소로 인해 받는 부끄러움과 같은 것을 느낄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이다.

조선조 5백년의 배불, 억불과 일제 36년간의 왜색불교의 영향, 그리고 해방 후 50년간의 미·소 양대 세력하에서 벌어진 외래문물의 수입 홍수와 그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각 방면에 걸친 침투는 아직도 자기 주체성을 정립하기에 미흡한 우리 불교인들에게는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며 그 궤도를 수정하여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출하는 원동력이 되기에 힘겨운 상황임을 직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21세기를 바라 보는 현대 세계의 분명은 분명 몰락의 위기에 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한국의 서구화된 지성만이 우물 안 개구리처럼 꺼져가는 서구문명의 낙조(落照)를 새벽의 서광(曙光)인양 착각하고 있다. 긴 잠에 들어 꿈을 꾸고 있다. 마약에 취한 중독자와 같은 혼미 속에서 헤매고 있다.

불교가 다른 종교나 이데올로기와 다르다는 점을 우리 불교인들은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꿈꾸며 방황하며 호언장담하는 이 시대의 쏘피스트들에게 우리는 경종을 울려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한다.

그 엄청난 사명,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지식과 지혜, 용기와 힘, 그리고 대자비심을 갖춘 불자가 바로 보살이다. 진정한 불자는 바로 보살이다. 보살만이 언제 어디에서나 당당할 수 있다. 그는 무상의 대원(大願)을 발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온 누리의 중생이 모두 다 깨닫고 그 작은 담장과 울타리를 헐고 실로 이 세상의 가난과 미망(迷妄)과 과오(過誤)를 치유하는 이타행의 대열의 선두에 선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불자이다.

보살은 그 마음이 아직도 더러울 때 부끄러울 수 있다. 보살은 그 행위가 아직도 철저하게 공평무사하지 못할 때 부끄러워 할 것이다. 그러나 보살은 결코 자기가 보살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 횃불을 들어 줘야 마땅한 것이다.

불기2539년 부처님오신날

부처님의 慈悲光明이 함께 하시기를 祈願합니다

大韓佛教曹溪宗

宗正 尹月下
禮敬室長 朴重來

元老會議
議長 金慧菴
副議長 金僧讚
副議長 金圓潭
事務處長 朴惺法

總務院
院長 宋月珠
總務部長 金梵河 總務局長 姜性慧
企劃室長 羅之鳴 企劃局長 朴萬成
財務部長 朴元愚 財務局長 李宗三
文社部長 金時玄 文化局長 車德信
事業部長 李雪松 事業局長 梁正滿
議法部長 鄭慧昌 護法局長 朴正念

中央宗會
議長 田雪靖
副議長 黃日面
副議長 李靑和

護戒院
院長 吳杲山

教育院
院長 金圓山
教育部長 鄭香寂
佛學研究所長 宋德雲

布教院
院長 金正樂
布教部長 金圓慧
布教局長 金聖壽
總務局長 徐正門
教育局長 朴虛舟
護法課長 金曉林
調査課長 朴雲光
司書室長 朴平常
司書次長 張眞悟
司書 曺愚眞

1면에서 계속

△관음종(총무원장 홍파) △대한법화종(총무원장 대호) △원효종(총무원장 대운) △총화종(총무원장 법은) △일승종(총무원장 혜정) △보문증(총무원장 혜일) △한국법화종(총무원장 광태) △진언증(총무원장 석은) △법상종(총무원장 경식) △화엄종(총무원장 정희수) △용화종(총무원장 이법덕) △법륜종(총무원장 일화) △총지종(룡리원장 안효강) △원융종(총무원장 배일공) △본원종(총무원장 이대화) △한국불교연구원(이사장 이기영) △영축불교문화연구원(원장 성파) △법련사(주지 현호) △한국운전불자연합회(회장 문영호) △불교방송교통통신원불자회(회장 양재국) △전국불교운동연합(상임의장 지선) △공해추방운동불교인모임(회장 월주) △전국교법사단(단장 김종환)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회장 월주) △불교시대사(대표 김병무) △도서출판 만다라(대표 박희택) △영월 보덕사(주지 현오) △서울 원각사(주지 법현) △도솔회(회장 이정희) △법륜회(회장 원상식) △한국불교포교사협회(회장 혜철) △부산연꽃모임(회장 대원성) △부산보현봉사회(〃) △광주 한승우영어교실(대표 혜당) △선암사(주지 지허) △서울신탁은행불교행우회(회장 김영태) △광곡사(주지 상운) △전국여법사회(회장 성순경) △여성불교회(회장 변광순) △불교어머니회(회장 김광련)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 △한미사(주지 도철) △부루나포교원(주지 선일) △법화사(주지 시몽) △부산불교교육원(원장 성재도) △천불사(주지 도봉) △불교레크레이션포교회(회장 법현) △본동사회복지관(관장 서선례) △대한불교부인회(회장 구자순) △은선암(주지 정우) △숭림사(주지 지광) △금강사(주지 회일) △금륜정사(주지 덕현) 봉불사(주지 정혜) △불광동 용화사 △마포청송사 △동덕사(주지 진각) △보문사(주지 법진) △법만사(주지 범만) △승가사(주지 상륜) △제천 고암사 △보국정사(주지 정민) △목포 일승사(주지 동준) △천수포교원 △노영식(동작구 흑석동) △권영춘(부산 수영구) △김흥용(중구 신당3동) △전용식(중구 주교동) △경희대학교불교학생회 △김상훈(강북구 번동) △함숙자(군포시 당동) △장정혜(성북구 하월곡동) △이영두(종로구 관훈동) △정희일(여수공업고등학교) 〈10매 이상 무순〉

동참금 입금계좌 안내

국민은행: 032-25-0007-617
예 금 주: 현대불교신문
전 화: 737-8881, 722-4162

행사 풍성…알찬 수확…허점도

부처님 오신 날 봉축행사 결산

불기 253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에서 다채로운 봉축행사가 펼쳐졌다. 깨달음의 사회화, 자연환경 가꾸기 운동등이 전개되는 가운데 개최된 각 봉축행사는 부처님 오신 뜻을 오늘의 삶으로 현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이다. 올해의 봉축행사들을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다채롭게 펼쳐진 봉축행사들은 나름대로의 수확을 거두었으나 기획력이나 참가자의 질서의식등은 여전히 아쉬움을 남겼다. 사진은 여의도 법요식 예불장면(좌)과 조계사 경내에서의 사물놀이.

문화·학술행사 새로운 시도 성과
질서의식 부족…'국민 축제' 과제

전국적으로 다채롭게 펼쳐진 올해의 봉축행사는 나름대로의 '수확'을 거두기도 했지만 아쉬움도 컸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히 새로운 집행부 출범이후 첫 봉축행사를 치른 봉축위의 경우 기대치에 못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봉축법요식의 장소 결정이 동대문운동장에서 여의도 광장으로 번복되는등 집행부의 헛점과 법요식장에서의 무질서, 제등행렬의 일관성 없는 통제등 총체적인 미흡이 '새로운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을 낳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발생한 대구가스 참사는 불자들에게 동체대비심을 다시한번 자각시켰다. 각종 행사장에서의 묵념과 각종단과 단체의 성금 모금과 전달등은 더불어 사는 사회 실현에 앞장서는 불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인상깊은 것이었다. 또한 장애인의 날과 부처님 오신 날을 결부시킨 행사와 각종 자선공연과 전시도 우리 사회에 따뜻한 체온 나누기에 앞장서는 불자들의 모습을 잘 비춰 주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심은 교계에서 매우 높았으나 정작 그들을 위한 행사는 개최시기가 안좋아 참여율이 저조했다. 지난 5일 조계사에서 열린 '외국인 노동자법회'에는 20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만이 동참, 주인없는 잔치상이 되고 말았다. 당초 1백명이상의 참가를 기대했던 이날 법회는 1일의 노동절 휴무로 인해 5일은 근무하는 노동자가 많았던 탓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행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봉축행사의 부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봉축위원회의 기획행사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각 단체들이 특징이 강하면서도 내실있는 행사를 기획 연출한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광복 50주년과 관련한 행사가 전무했던 점은 교계의 빈약한 기획성을 드러낸 경우로 인식되고 있다.

○…올 봉축행사중 가장 큰 수확을 거둔 분야는 학술관련 세미나였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의 '불교신행, 그 문제와 방향' 중앙승가대 사회문제연구소의 '사원경제 활성화 방안' 등국불교미술인회의 '불교미술, 그 전통과 현대성' 등의 세미나는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신행에 대한 학문적 접근의 초석을 다진 '불교신행…' 세미나는 생활불교의 방향타를 학문적 입장에서 잡아냈다는 쾌거를 얻었다.

○…문화계에서도 알찬 결실을 거둔 봉축행사가 많았다. 음악과 미술이 주류를 이룬 봉축관련 문화행사는 신작 불교음악과 기획전시등 새로운 시도로 인한 불교문화의 발전을 앞당기는 알찬 결실을 거뒀다.

○…올해의 봉축행사는 미리 장담했던 '국민적 축제분위기'까지는 승화되지 못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이다. 보다 나은 내년의 봉축행사를 위해 각 종단과 대규모 단체들은 지금부터 기획단을 발족 세밀한 준비작업에 들어가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불자가정' 스티커 붙이기 참가 신청자 전국 확산

종단·사찰·재가단체들 동참

대구참사에 온정의 물결

본사등 성금모금…헌혈·자원봉사 잇달아

지난달 28일 발생한 대구참사에 '자비의 손길'이 줄을 잇고 있다.

사고 직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사고대책본부에 1천만원 전달을 시작으로 운덕스님(천태종 총무원장)이 1천만원, 서봉스님(태고종 총무원장)이 3백만원을 각각 성금으로 내놓았다

무공스님(동화사 주지) 등 스님 10여명은 동화사 말사에서 모금한 성금 1천만원과 무공스님의 조의금 3백만원을, 지난 1일에는 설조스님(불국사 주지)이 3백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조계종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임직원들이 3백38만원을 모아 전달했다.



◇지난 7일 부처님 오신 날 조계사 앞에서 있는 대구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성금모금에 불자들이 다투어 보시하고 있다.

또한 본사를 비롯 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스님) 한국불교사회복지회(회장 시현스님) 주간불교(발행인 김용대)는 지난 1일부터 부처님 오신날인 7일까지 서울 종각 제일은행 본점 앞에서 가두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성금2백1십4만4천원을 전달했다.

성금외에도 불교계는 불의의 사고로 실의에 빠진 대구시민을 돕기 위한 헌혈 및 자원봉사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사고 당일 해인사 승가대학 학인스님 60여명과 운문사 승가대 스님들은 사망자가 안치된 시내 12개 병원으로 나누어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한 철야독경을 실시했다.

대불련 대구경북지부와 대전지부, 동국대 불교학생회도 대구참사 부상자 돕기 헌혈 캠페인을 펼치고 헌혈후 헌혈증서를 전달하는 등 각 사찰과 신행단체들의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보살행이 폭넓게 펼쳐지고 있다.

〈한명우 기자〉

신행수첩

일하며 배우는 형설의 공
길음학교 학생·교사모집

우리 사회에는 부모가 고액의 과외를 시키며 자녀를 가르치는 가정이 있는 반면, 배우고 싶어도 집안환경이 어려워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가정의 자녀도 많다.

이런 어려운 여건에 놓인 불자들을 위해 길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제원) 길음야간학교에서는 13일까지 검정고시 중학교과정 야간학생과 교사를 모집한다.

(02)985-0161~4.

따뜻한 마음 즐거운 황혼
성남자광사 효도관광

인생의 황혼은 그 역정을 지나온 것만큼이나 아름답고 가치로운 것이다.

경불련 자비의 집이 이런 불우한 노인들을 모시고 10·11일 이틀동안 한때나마 즐거운 시간을 마련한다.

모든 노인들을 다 모시고 싶지만 이번엔 성남 자광원 노인 40여분을 모시고 용인자연농원, 이천 온천, 신륵사 일대를 돌며 세상에는 아직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다고 한다. (02)945-4200.

녹음속의 수행정진
선학원 시민선방 열어

짙은 라일락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히고, 푸르른 녹음이 마음을 설레게 하여도 흔들리지 않는 결연한 자세로 마음닦는 작업에 몰두해보자.

선학원 중앙선원에서는 올해년 하안거결재일을 맞아 시민선방을 개설했다.

오는 14일(음,4.15)~8월11일(음,7.15)까지 열릴 시민선방은 좌선, 간경 등의 수행과 정진을 함께하고자 하는 신심있는 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기다린다. (02)732-3327.

병든 심신 돌보는 보살행
삼전복지관 한방건강진단

지극한 정성으로 육신의 질병뿐만아니라 마음의 안락도 이끌어 줄 수 있다면 더한나위 없는 선행공덕이 아닐까.

삼전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각스님)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일환으로 한방건강진단을 개설했다.

무의탁노인과 장애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주 화·금요일 오전 9시~11시에 실시되는 한방건강진단은 기존의 물리치료사업을 확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킬 계획이다. (02)421-6077

건봉사로 명찰순례 떠나
동국대 정각원

불교적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불법을 공부하고 있는 젊은 불자들이 올바른 신행활동을 위해 순례의 길에 오른다.

전통국인을 대상으로 각종 신행활동을 꾸준히 해온 정각원(원장 법산스님)은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2일간 강원도 민통선내 건봉사일대로 춘계명찰순례를 떠난다.

이번 춘계명찰순례는 교직원·학생은 물론 전불자들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습의부터 올바른 신행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련된다.

(02)260-3016.

연극보고 역사도 배우고
동쪽나라 '단군왕검' 공연

우리는 어디어디 왔을까? 꿈많고 호기심 많은 어린 시절, 꼭 한번쯤 품어봄직한 의문이다. 또 그런 호기심을 품고있는 아이들에게 태초의 역사를 알기쉽고 정확하게 알려줘야함은 어른들의 책무이지 않을까?

어린이와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하는 5월, 역사도 배우고, 한민족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하는 연극 「단군왕검」을 극단 동쪽나라에서 마련해 오는 13일, 14일 1일2회에 걸쳐 공연, 역사의 궁금증을 풀어준다. 장소는 동숭아트센터 대극장 '동숭홀'. (02)263-8438.

가람누비며 통일염원
통일순례단 구인사로

산기슭 사이마다 가람은 살포시 숨어있고 5월의 부처님은 향기로운 꽃향기에 둘러쌓여있으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화엄세계인가.

통일불교순례단(단장 고준환)은 오는 28일 오전 6시40분 동서울터미널 구인사행 매표소앞에서 단양 구인사로 사찰순례를 떠난다.

(0343)87-72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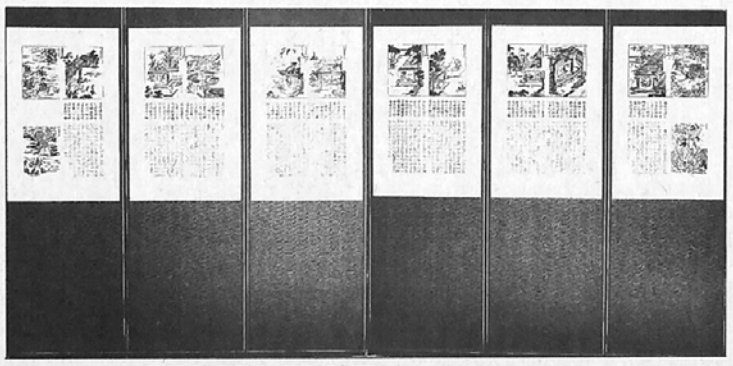
용주사 화산효행교육원 건립 모연문

5월25일 기금 마련을 위한 특별전시회 및 축하공연

조선후기 찬란한 문화가 발달한 시기의 왕이었던 정조대왕께서는 이곳 용주사를 친히 능침사찰로 지정하고 대왕의 친 어머니이면서 한중록의 저자이기도 한 혜경궁 홍씨의 친필과 조선시대 최고의 화가인 김홍도의 그림으로 부모 은중경을 제작하여 이곳 용주사에 영구보존케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00여년이 흐른지금 서구문명의 오류에 휩쓸린 우리 사회는 백가지 행동의 근본인 효행 사상이 사라지고 온갖 부류의 비 인륜적 만행과 각종 병폐가 만연하고 있어 불국토건설의 큰 뜻을 가진 우리 전체 불교도들이 더이상 좌시하고 있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용주사에서는 200년간 깊은 잠에 빠졌던 정조대왕의 한맺힌 효심을 다시 일깨워 뒤바뀐 도덕성을 바로 잡고자 화산 효행 교육원 건립의 큰뜻을 세웠는데 그 첫단계 작업으로 6폭짜리 부모은중경 동판을 일일이 수작업하여 예술적 감각이 뛰어난 작품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실로 200년만에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쾌거로서 이것은 단순한 복제품이 아니라 동판을 판화한 탁본판으로 살아있는 효심이자 한맺힌 염원이 담긴 효사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화재보호라는 제약과 기술적 특수성이 겹쳐 700본밖에 제작할 수 없는 아쉬운감이 없지않으나 가능한 더 많은 분이 소장하여 자손만대의 살아있는 효행 교육을 대신함과 아울러 그 정성들이 모아져 효행 교육원 건립 불사로 모두 회향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
주 지 조 정 현



화산효행 교육원 후원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구좌번호

국민은행 242-01-0105-589	용주사(효)	광주은행 225-107-009337	용주사(효)
신한은행 612-05-011004	용주사(효)	조흥은행 501-04-618203	용주사(효)
제일은행 600-20-203790	용주사(효)	한일은행 051-666244-13-001	용주사(효)
외환은행 072-13-20037-7	용주사(효)	중소기업은행 111-050563-01-014	용주사(효)
농 협 207056-51-000327	용주사(효)	상업은행 305-05-000956	용주사(효)
보람은행 202-13-00582-6	용주사(효)	동화은행 213-01-124390	용주사(효)
우체국 104141-0036284	용주사(효)	경기은행 030-13-1-00002099	용주사(효)



BBS불교방송 개국 5주년 특집 공개방송

화산효행교육원건립 축하공연

- 주 최 : 화산효행교육원
- 주 관 : 용 주 사
-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BBS불교방송, 불교TV, 불교신문사

■ 일 시 : 1995년 5월 25일(목) 오후2시
■ 장 소 : 수원 실내 종합체육관
■ 출 연 : 김병조/남 진/김국환/김흥국 방실이/장미화/남강수/정수라 이은하/남궁옥분/현숙/한명숙 명국환
■ 입장권구입처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본말사
■ 연락처 :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송산리 188

용 주 사
TEL(0331)34-0040 FAX(0331)34-2818
화산효행교육원
TEL(0331)32-6504 FAX(0331)32-4130

국회의사당 법당 '정각선원' 연
정각회 권익현 회장

"바른 정치 배우는 도량으로 가꿀터"

예불하는 의원 볼때 보람…교리 강좌등 다양하게 활용



'불자국회의원과 국회직원 신도회의 신심을 높이고자 국회법당을 마련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올바른 정치가 펼쳐지는 토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달 27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의사당내에 '정각선원'을 개원한 정각회 권익현 회장(국회의원 · 민자)은 "처음 추진한 법당불사였으나 각 종단 스님과 재가불자들의 성원으로 원만하게 회향됐다"고 말했다.

권회장은 "아침마다 정각선원에서 예불을 모시고 108배, 참선하는 동료의원과 직원들을 볼때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교리강좌, 정례법회등 선원을 다양하게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1, 12대 국회때 정각회장을 역임하고 14대에 다시 정각회를 맡은 권회장은 불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위해 '국회의 사천왕상'을 자처한다.

"균형있는 종교정책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소신을 펼쳐온 권회장은 전사법, 국립공원관리법등 불교관련법의 불합리한 법률 10여개를 개정하는데 앞장서기도 했다.

"12대 국회때였어요.기독교는 경목제도가 있어 대사회포교에 큰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불교도 해마다 내무부에 경승제도를 건의했으나 20년간 검토중이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경승설치를 위해 정각회가 앞장섰고 법률안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민정당 대표의원을 지내는등 80년대 여권의 실세였던 권회장은 13대때 공천탈락이라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당시 그는 "정치를 시작한 것도 갑작스런것이었으니 떠나는 것도 그럴수 있다"며 담담하게 받아들여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권회장은 〈법구경〉의 '오는 사람 막지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라' 했던 부처님 말씀이 없었다면 그때의 참담함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당시를 회고한다.

4년간의 정치 휴식기간동안 권회장은 전국사찰을 참배했다. 깊은 산사에 주석하는 큰 스님들도 친견, 마음을 닦기도 했다.

요즘 김회장은 당당하게 불자임을 밝히는 '불자 실명제'를 주창하고 있다.

권회장은 "명리나 계산적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은 불자의 자세가 아니다"며 "불자임을 밝혔을때 언행에 주의하고 불자답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어 사회가 더욱 밝아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준엽 기자〉



在日 후원회 참석차 도일



녹원스님(동국학원 이사장)과 송석구교수(동국대 총장)는 재일후원회 모임 참석과 자매대학 방문을 위해 10일 함께 일본으로 출국한다.



보조사상硏 10월 학술회의



현호스님(보조사상연구원 이사장)은 지난달 15일 서울 법련사에서 연구원 전체임원회의를 열고, 제8회 학술회의를 '한국 禪의 원류 – 나말여초 구산선문'이란 주제하에 올 10월20일~21일에 실시키로 결정했다.

불우노인위한 경로잔치



정우스님(구룡사 주지)은 초파일을 맞아 지역 불우노인을 초청해 흥겨운 경로잔치 한마당을 구룡사 1층 회관에서 지난 4일 봉행했다.

무료합동식 결혼 거행



설산스님(한국불교사회봉사회 회장)은 지난 1일 오후2시 서울 중구 구민회관에서 그동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혼례를 치루지 못한 여덟쌍을 위해 제2회 무료합동결혼식을 거행했다.

경찰공무원 위로 오찬



성운스님(은평구 사원연합회 회장)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1일 은평구 서부경찰서 경승실과 공동주최로 김관근 서부경찰서장 및 관내 19개 파출소장등 관계직원을 수국사로 초청, 위로와 감사 오찬을 함께했다. 이어 3일에는 은평경찰서 관내 파출소 임직원을 삼천사로 초치, 오찬과 환담을 나눴다.

국립의료원 봉축법요 법문



보각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은 지난 3일 국립의료원 법당 주최로 열린 봉축법요식에서 법문을 설했다.

통일관 · 보살행 주제 법문



혜창스님(조계종 호법부장)은 지난달 28일 대구 프린스호텔에서 열린 '남북통일 및 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사상강연회'에 참석, 불자의 보살행과 통일관에 대해 강연했다.

선거방송대책 공동본부장에



진관스님(불교인권위 공동대표)은 4일 '선거방송대책본부 발족식 및 대구참사 왜곡 방송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 방송개혁국민회의 선거방송대책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았다.

모범 소년원생 초청 여행

삼중스님(자비사 주지)은 지난 1일 부산소년원 모범생 30여명을 초청, 불국사등 경주의 유적들을 둘러보게 한후 연예인 위문공연도 마련했다.

복지기금 마련 전시회



부동스님(강릉 자비원 원장)은 지난달 28일 복지원 전시실에서 복지기금 마련 황금백자 청암서매전 전시회를 개최했다.

BBS교리강좌 회향 법회



한정섭법사(한국불교교화원 원장)는 6개월간 진행해온 BBS 교리강좌 회향법회를 지난 3일 오후2시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봉행했다.

'사찰문화의 의미…' 강연

정병삼교수(숙대 한국사학과)는 17일 한국관광공사 지하 1층 상영관에서 경실련 문화역사기행과 국학연구소 등이 공동주최하는 '올바른 답사문화 찾기' 세미나에 참석, '사찰문화의 의미와 보는 방법'을 주제로 강연한다.

첫 법문집 '중생의…' 낸
현근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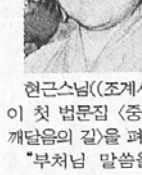


현근스님((조계사 주지)이 첫 법문집 〈중생의 삶 깨달음의 길〉을 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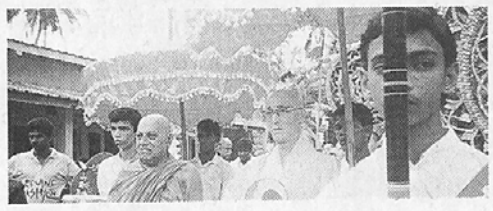
"부처님 말씀을 빌어 수많이 치뤄온 조계사 법회의 법문을 엮어 우리 모두의 회향하는 길잡이로 삼고자 한 권의 책으로 묶었습니다."

지난 87년부터 한국불교 포교 1번지 조계사의 주지소임을 맡아온 현근스님은 회향하는 삶을 위해 책을 펴냈다고 밝혔듯이 법문집 발간에는 구체적인 회향의 뜻이 담겨 있다. 조계사 장학회 기금마련을 위한 것이다.

이미 현근스님의 뜻을 알아챈 몇몇 신도들이 흔쾌히 동참해 1억원 상당의 기금이 모아졌고, 스님도 자기의 몫으로 법문집을 펴낸 것이다. 판매수익금의 전액은 장학회 결성을 위해 전달할 계획이다.



회향하는 삶 안내 기금 장학 사업에



아마라푸라종 담마록카 부승왕 내한

스리랑카 아마라푸라종 담마록카 부승왕이 지난 3일 종단원로스님 5명과 함께 내한했다. 담마록카 부승왕은 한국불교여래증에서 주최하는 봉축행사에 증명법사로 참석하며 종단산하 각 교구사원을 순회하며 법회를 갖게 된다.

여래종 종정 석인왕스님은 "이번 내한을 계기로 양국간에 불교적 우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국대 개교 89주년 기념식 봉행

동국대학교(총장 송석구)는 지난 4일 중강당에서 교직원 동문 5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개교 89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지역개발대학원 박재헌부장, 보건소 허찬씨가 30년 장기근속, 불교학과 서윤길교수등 11명이 20년 근속, 법학과 연기영교수등 40명이 10년 근속표창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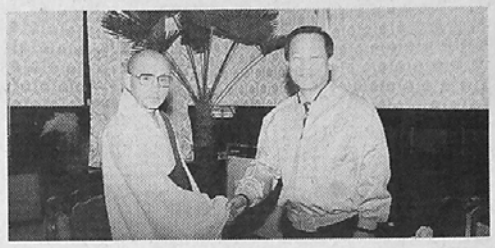
게시판

▲무료건강교실=개금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월 · 수 · 금 복지관 사랑방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한 무료건강교실을 실시한다. (051)893-5034

▲무료법률상담=중리종합사회복지관은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오는 22일 실시한다. (0551)52-8017~9

▲삼국유사 강의=부산불교교육원이 오는 12일부터 1년 과정으로 삼국유사 강좌를 마련한다. 강의 시간은 매주 금 오후7시30분, 강사는 경재 조영조 선생. (051)466-4080

▲선체조 강습=조계사 교화사무국은 10일부터 두달간 매주 월 · 수 오전10시30분에 정화회관 2층에서 선체조 강좌를 연다. (02)720-1390



월주스님, 봉축행사 협조에 감사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은 지난 3일 오후5시 서울시청으로 최병렬 시장을 방문하고 서울시가 원각사지 복원등 불교문화재 관리 및 보수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스님은 관악구 청소년회관 위탁 운영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지난달 27일 시청앞 평화의 탑 점등 법회에 참석한데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



법련사 영산대법전 상량 법요식

송광사 서울분원 법련사(주지 현호)는 지난 5일 영산대법전 3층 법당에서 상량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날 상량식에는 회광승찬(조계총림 방장)스님, 설정스님(중앙종회 의장), 월탄스님(불교발전연구원 이사장)등 스님과 재가신도 5백여명이 동참했다. 영산대법전은 지난해 2월4일 기공, 지상3층 지하2층 연면적 1천2백50평으로 금년말 완공될 예정이다.



성철스님 추모사진 · 수묵화 전시

백련문도회 주최로 성철스님의 사진과 수묵화를 담은 김호석, 주명덕씨의 작품을 전시한 '성철 큰스님 추모전'이 지난 4일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열렸다.

이날 오픈행사에는 월주스님, 종하스님, 정원스님, 고봉스님, 보광스님, 송석구 동대 총장, 정덕용 문체부 종무실장, 강부자 국회의원 등 3백여명이 참석, 스님을 추도했다.

이번 추모전은 13일까지 계속된다. 〈관련기사 16면〉



인천 불교지도자 봉축기원 법회

인천불교연합회 봉축위원회(위원장 법륜스님)는 지난 3일 오후5시 인천 호텔송도비치 2층 무궁화홀에서 '부처님 오신날 불교지도자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국태민안과 인천시민의 안녕을 위해 마련된 이날 법회에는 법륜스님을 비롯한 스님 1백여명과 이영래 인천광역시장, 조영장 국회의원, 시의회 심상길 의장, 각급 기관장 50여명과 신도등 5백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생전 예수재 및 水子靈 천도를 위한

백일미타기도봉행



수자영가의 천도를 발원하여
이 세상에 자비의 몸을 나투신 수자지장보살(사불용)

대원사는

백제 무녕왕 3년(서기 503년) 아도화상이 창건한 백제 고찰입니다.

수자지장보살(水子地藏菩薩)을 봉안하고 수자영가의 천도를 기원해온 대원사에서는 수자영가의 천도 및 생전 예수재를 위한 제4차 100일 미타기도를 봉행합니다.

수자령이란 부모와 인연은 맺어졌지만 이 세상의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간 불쌍한 어린 영혼들을 말합니다.

수자영가의 천도를 봉행하는 목적은 첫째, 씻을 수 없는 부모의 죄업을 참회하여 안정과 평화의 마음을 갖게 하고 둘째, 전생과 금생의 나쁜 인연을 소멸시켜 삶의 고통과 장애로부터 벗어나며 셋째, 원결 맺힌 영가들을 해탈시켜 가정과 사회의 평화를 기원하며 넷째, 불보살의 큰 서원에 의탁하여 대승의 마음 일으켜 삶의 고통과 죄업에 몸부림치는 이웃들의 다정한 벗이 되어 보살의 삶을 실천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금년(을해년) 윤달을 맞아 예수재 의식을 봉행합니다.

생전 예수재(生前 預修齋)란 자신의 사후(死後)에 행할 49재의식을 생전에 미리 닦는 불교의 전통의식입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 입시공부를 하듯이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모든 인간들은 예수재를 통하여 미리 죽음의 세계를 공부해야 합니다.

삶과 죽음, 그리고 다시 태어남, 그 중간에 위치하는 중음(中陰)의 단계에서 해탈의 길을 인도해주는 티벳불교의 성전, 중음천도밀법(中陰薦度密法:BARDO THODOL)의 의궤에 의지하여 예수재 의식을 봉행하게 됩니다.

죽은 자를 위한 최고의 성전 사자(死者)의 서(書)는 생전에 아무리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일지라도 이 경전을 듣는 것만으로 해탈을 할 수 있다는 부사의한 경전입니다.

금번 대원사에서 처음으로 봉행하는 생전 예수재 의식에 함께 동참하시어 '우리가 진실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다시 태어나는 일.'이라는 삶의 진실을 깨닫고 삶의 집착에서 오는 고통과 재앙의 매듭을 풀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공덕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아! 너는 너의 의사에 반(反)하여 죽는구나.
죽음이 무엇인지를 배우지도 못하고서
죽음을 배울지니라. 그러면 그대는 삶까지도 배우게 될 것이니라.
죽음을 배우지 못한 자는 삶까지도 배울 수 없게 될 것이니라. (티베트 死者의 書)

수자영가의 천도 및 생전 예수재에 동참하신 분에게는

① 사후세계를 소상히 밝혀 놓은 소책자 「중음천도밀법(中陰薦度密法)」
② 염불신앙의 길잡이 「염불신행요전」
③ 기도용 지장보살 사진
④ 사경과 사불을 위한 반야심경과 지장보살 체본
⑤ 백일기도를 위한 일일 수행법과 영가축원문 등을 우송해 드립니다.

아 래

- 일 시 : 1995년 5월 14일(입재) ~ 1995년 8월 20일(회향)
- 동참회비 : ① 수자령 천도 : 기도금(3만원) 영가 1인당(5천원)
  ② 생전 예수재 : 기도금(5만원)
- 연 락 처 : 546-840 전남 보성군 문덕면 죽산리 대원사
  전화 (0694) 52-1755 · 팩스 (0694) 53-0009
- 온 라 인 : 조흥은행 322-06-008780 (석현장)

지장보궁 염불선 도량 대원사
주지 석 현 장 합장

1박 2일 출가생활

대원사 주말 수련회

염불선 수련도량 대원사에서는 재가불자들의 올바른 신행을 위해 '맑고 향기롭게'란 수련 주제로 아래와 같이 1박 2일의 단기출가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성을 맑혀 향기로운 삶을 이루기 위한 대원사 주말수련회에 불자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아래

- 일 시 : 매주 토요일 5시~일요일 2시(10명 이상 단체 환영)
- 수련내용 : 염불명상법, 선체조, 자비관, 관정기도, 육근참회, 백만편 염불, 사경, 티벳불교 명상법
- 수련지도 : 현장스님 ■ 회비 없음
- 교 통 편 : 광주고속버스터미날에서 117번, 217번 시내버스 타고 (사평종점 하차) 대원사까지 택시(혹은 군내버스)

산문밖의 禪

연극배우 김갑수 씨



"남의 인생 제대로 표현하려면 환생한다는 마음으로…"

연기 기술자 되기보다 창조자 목표로 정진

"피차 살자고 한짓 아니것는가, 그짝은 그짝대로 이짝은 이짝대로, 인자와서 생각허믄 피차 앰헌 사람 죽인것밖에 헌짓이 없지만은…, 나는 배우지도 못하고 빨갱이사상이 뭐신지도 모르네. 허나 그짝도 잘한건 없어, 말끝마다 사람사는 세상 만든답서 어짜 사람목숨 알길 파리목숨 취급인감, 평등 고것이 그렇쿠럼 싶다면야 왜 이짝선 그리 못하것는가, 야그를 들은께 사람들이 등을 돌린답서, 니미 겨우 고런 세상 만들자고 그렇게 설레벌을 쳤단가."

은신처로 만든 시골집 지하공간, 좌익주의자 빨치산 형의 총부리 앞에 우익청년단 감찰부장 동생 염상구가 뱉어내는 형에대한, 세상에대한 체념섞인 외침이다.

짧게 깎은 머리, 어눌한 표정, 낡은 가죽웃옷을 입은 껄렁껄렁한 행동. 영화 '태백산맥'에서 시대의 아픔을 짙은 뉘앙스의 전라도 사투리로 토해내던 염상구. 그가 바로 배우 김갑수다.

못배운 우익단체 앞잡이 염상구역을 위해 그는 영화의 무대인 벌교의 한 선배에게 대본을 복사해주며 촬영하는 틈틈이 전화로 전라도 사투리를 공부하고 소설 태백산맥을 읽어나갔다.

한치의 빈틈도 보이지 않는 전라도 사투리를 뱉어내는 그는 놀랍게도 순수 서울토박이다.

대종상 남우주연상

연기인도 어차피 자기내면의 수련을 통해 자기혼자 수행의 길을 가는 수행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일까.

연기를 시작하면 그는 제일 먼저 연기이외의 모든 일상의 것들에 대한 관심을 놓아버린다.

많은 수행자들이 그들의 지나온 삶을 접어둔채 진리를 찾아 길을 떠났던 것 처럼, 그 옛날 고타마 싯달타가 부인과 아들을 뒤로하며 수행의 길로 떠났던 것과 같이 작품에 임할때 그는 일상의 높은 담을 넘어 자기만의 연기세계로 수행을 떠난다.

84년 연극 '님의 침묵'에서 만해스님역을 처음 맡았을 때도 그랬다.

준비기간 4개월동안 만해스님의 숨결을 느끼기 위해 파고다공원, 심우장 등 이곳저곳을 다녔고 만해의 시를 읽고, 관계논문자료들을 섭렵했다. 그리고 3개월의 공연기간동안 그는 내내 민족의 독립을 위해 생을 바쳤던 강인한 만해로 다시 태어났다.

'아무리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하더라도 옳지않다 생각하면 행하지 말고, 아무리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하더라도 옳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행하라'라는 만해스님의 말씀을 그는 아직도 그의 뇌리속에서 연극대사의 한대목이 아닌 영원한 진리로 기억하고 있다.

"만해스님에대한 기록들은 거의 모두 다 보았죠. 만해스님께서 일본검사관사와 직접재판을 하던 기록까지 보았습니다."

자료들을 통해서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를 차츰 접근해가며 스스로 그 인물이 되려고 노력하는 김갑수. 머리속으로 인물을 수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인물에 대한 자신만의 영감을 떠올린다. 외면에서 부터 인물을 접근해가기도 하고 또 인물의 내면에서 연기작업을 시작할 때도 있다.

"만해스님의 역할은 그분의 사상, 그분의 내면세계에 굉장히 중점을 두었죠. 그리고 이번에 맡은 이상의 역할은 고뇌하는 지식인의 모습을 그의 기이한 행동을 통해 나타내려 했습니다."

이처럼 연기에 대한 치열한 열정을 지닌 그는 77년 현대극단 1기생으로 배우의 길에 들어섰다. 그동안 40여편의 연극에 출연하며 동아연극상, 오영진연극상, 서울연극제 남자연기상을 수상했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연극판에서 영화로 무대를 옮겨 태백산맥의 염상구역으로 청룡영화제, 춘사영화제, 백상영화제, 대종상영화제까지 상이란 상은 모두 받았다. 태백산맥이란 한편의 영화로 그가 영화배우 김갑수로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노력의 노력을 거듭한 필연적 연기법의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을까.

현재 상영중인 영화 '금흥아 금흥아'에서도 촬영기간 내내 거의 머리를 감지않고 몸무게까지 줄여가며 고뇌하는 이상의 모습을 표출해내기에 그는 열중했다.

'님의침묵'서 만해役

"만해스님역을 맡아 삭발했을때 이제 드디어 내가 만해가 되는구나 하고 느꼈던 그 벅찬감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연기가 잘 안될때마다 만해스님을 부르고 지갑속에 넣어둔 이상의 사진을 보며 자신을 가다듬곤 했다.

못배운 무지렁이 염상구와 민족의 아픔을 중생과 함께 떨쳐내고자했던 만해, 현실을 극복하지 못해 방황하는 천재시인 이상. 극과 극을 달리는 폭넓은 연기력은 대사 한마디없는 단역에도 온 정열을 다하며 수없는 나날을 연습에 쏟았던 그의 땀방울들이 엮어낸 작품들이다.

그는 오는 7월 뮤지컬 '님의 침묵'에서 다시 만해로 무대에 설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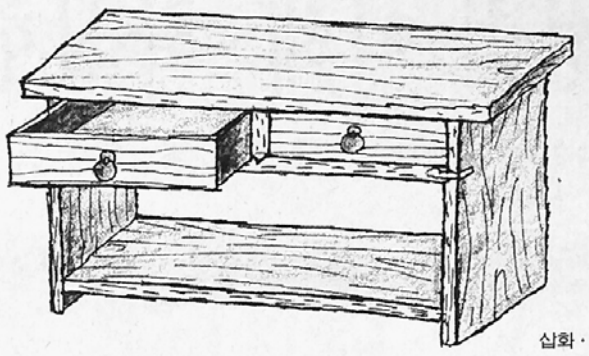
지난 84년 20대에 표현했던 만해와 이제 불혹의 나이를 눈앞에 두고 다시 나타날 만해스님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까.

"제 스스로도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그때는 젊었을 때라 그분의 강인함에 치중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름다운 시를 쓰셨던 시인으로 구도의 길을 걸으셨던 불제자로서 부드러우면서도 무게있는 그분을 그려내고 싶습니다."

김갑수. 그는 자신을 도구로 삼아 또 다른 세계를 연기로서 펼쳐보이며 그 속에서 거듭 태어나는 자신의 환생을 만난다.

"한 인물을 구체화시켜 형상화하는 연기의 가장 큰 밑거름은 진실입니다. 진실한 연기를 위한 방편으로서 기술도 필요하지만 가장 최종적으로 진실이 담기지 않은 연기는 아무런 감흥을 줄 수 없지요"라며 그 진실을 위해서 노력할 뿐이라는 그는 "기술자가 될것이냐, 창조자가 될것이냐는 본인이 결정 해야하는 것이죠. 저는 이미 한 길을 걷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연기인으로서 예술인으로서 또한 창조자로서 말이죠. 허허허…."

〈이은자 기자〉



삽화 · 이기선

마음 바르게 '열고 닫기' 곧 수행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㉖

개차법

진리 불변이나 쓰임새 다양

우리나라의 말은 참으로 재미있다. 한 낱말이 두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빼닫이'라고 하는 것은 옷장이나 책장의 서랍을 의미하는 것인데 빼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는 것이다. '여닫이'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문을 말한다. 하나이면서 둘의 용도가 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체(體)는 하나이나 그 용(用)이 둘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불교의 진리, 즉 체는 변화되거나 변질되는 것이 아니다. 체는 불변의 것이며 불개(不改)의 것이다. 만약 체성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된다면 세상의 법칙이 혼란스럽게 된다. 세상의 법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한결같은 진리이어야 한다. 무원칙 무질서 이러한 것은 사람이 사는데 어지러움만 만든다. 그러므로 체성의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 용도는 알맞게 상응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물의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술한 모양의 용기에 담기는 것과 같다. 둥근 항아리, 작은 사발, 길다란 병, 큰 연못에 가득하게 채워진다 해도 물의 본성은 변질되거나 변화되지 않고 용기에 따라 담기는 것이다.

무원칙은 삶 어지럽혀

이처럼 체는 일여(一如)한 것이고 용은 응변(應變)하는 것이다. 서랍이 물건을 저장 보관하는 용도를 가졌다면 보관할 때는 닫혀 있어야 하고 사용할 때는 열려야 한다. 그러므로 빼는 것과 닫는 것이 동시적 작용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여닫이도 매한가지다. 문은 열고 닫기는 작동이 동시에 일어나야만 문의 역할을 갖고 있는 것이다.

불교의 용어 가운데 개차(開遮)라는 것이 있다. 여는 것 닫는 것이란 의미다. 어떤 때 열어야 하고 어떤 경우에는 닫아야 하는 것일까. 이 개차란 말은 계율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생명의 삶을 무한히 자유롭게 하려면 열어 주어야 하고, 생명의 삶을 죽이려 하면 무조건 억제 · 저지하기 위하여 닫아야 한다. 한 사람이 많은 인명을 앗아가려고 망나니의 악행을 자행하면 그 생명 자체가 가련하고 불쌍하기는 하지만 뭇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그 못된 사람을 닫아 잠그고 처치하여야 한다. 이때 우리는 차법(遮法)을 쓴다고 한다. 악을 저질러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면 이유불문하고 막아버리고 그러한 행위가 발동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면 차(遮)는 억제 · 저지 · 금지 · 경계라고 하겠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의 망증으로 말미암아 부질없는 행위를 무조건 행동한다. 약탈, 강간, 살인, 방화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동이 부지불식간에 맹동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살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망동적 악행이 일어날 때 찰나적으로 차단하는 마음이 생기(生起)하여야 한다. 저지하고 차단하는 마음이 한 순간이라도 늦게 발동하면 아비규환적인 사건이 발생한다.

우리는 차(遮)하는 마음을 공부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열어놓는, 풀어주는 마음도 넓게 가져야 한다. 나의 작은 힘이 조금만 미쳐 상대가 편하게 살 수 있다면 비켜서 줄 수 있는 마음을 내놓아야 한다. "나는 이 자리를 절대로 바꾸어 줄 수 없다. 이곳은 나의 자리다. 어느 누가 말하거나 명령을 해도 내어줄 수 없다"고 완강하게 고집을 부린다면 제 자리는 잘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여는 마음은 없는 것이다.

보살심으로 열고 닫자

여는 마음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큰 것인가 하는 판단이 서는 마음이다. 중생을 살리는 것이 큰 명제로 생각되면 즉시에 성취시켜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닫는 마음을 쓰는 사람은 많아도 열어주는 사람이 드물다. 왜냐하면 자기 본위로 살려고 욕심부리는 사람은 많고 이행보시(利行普施)하려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여는 마음이나 닫는 마음의 체(體)는 하나이다. 그 용(用)이 다를 뿐이다. 얼면 숨통이 트여 살고, 닫으면 숨막혀 죽을 지경이면 열어주는 마음이 앞서야 한다.

우리 마음에도 여닫이가 있고 빼닫이가 있다. 그것은 개차의 문이다. 아무도 나의 보살심으로 들어 오지 않게 막지도 말고, 누구라도 나의 삼악심에서 뛰노는 것을 막지도 않는다. 그것은 무엇인가. 보살의 마음으로 자재하게 드나들게 하는 '여는 문'을 세우고 삼독심에는 들지 않게 '닫는 문'을 막아보는 공부를 앞세워가자.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요긴한 일은 자재롭게 자신을 키우는 것과 자신을 억제하는 판단을 바르게 인지시키는 수행법이다. 이 법이 개차(開遮)의 법, 여닫이의 묘행을 익히는 길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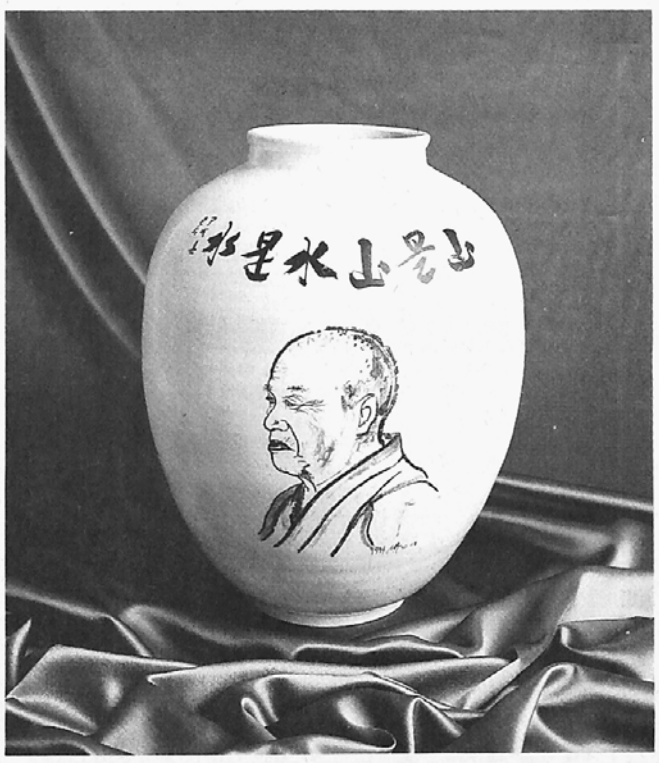
▶ 우리시대의 위대한 스승 !

우·리·결·에·살·아·계·시·던·부·처·성·철·스·님·을·모·십·니·다

성철 큰 스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80평생을 자기 성찰에 힘쓰신 성철 큰 스님의 말씀입니다.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을 생각하게
하는 성철스님의 깊은뜻을 분청자기에 담아 전합니다.
한얼이 마련하는 문화보급기획 !
성철 큰 스님의 뜻을 영원히 기리기위해
당대 최고의 작가들께서 공동으로 참여하셨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조금 더 가까이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
마련합니다.
이제 다시 오신 성철 큰 스님을 한얼문화와 함께 만나십시요.
우리시대의 위대한 스승 !
더욱 가깝게 느껴지실겁니다.



1994년 5월작 37×89
3대작가 공동작 〈글, 그림, 분청자기〉
(老村 李九榮 글 · 靑岩 제작 · 금동원 그림)
우리시대 위대한 스승① 성철 큰 스님

기획 보급

명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귀한 빛을 더합니다.

영원히 소장할 귀중한 작품으로
두번다시 없을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얼 문화원에서는 우리시대의 가장 위대한 스승들의 모습을 도자기에 담아 그 뜻을 기리고, 그 얼을 빛내기 위해 기획 보급하여 살아있는 교훈을 전하고자 합니다.

80개 한정 주문제작

한 얼 문 화
종로구 견지동 87-1
견지사 B/D 402호
작품문의 02)730-0151 730-2858

"정법 이해·확실한 믿음 선행돼야"

동대佛文硏 봉축세미나 '불교신행' 학문적 조명 새로운 방향 모색

지난 4일 동국대에서 '불교신행, 그 문제와 방향' 세미나가 성황리에 열렸다.

스님 학자 신도 등 3백여명이 발표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불교학자들이 '신행'의 문제를 학문적으로 집중 조명, 그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교계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토론자들이 발표자의 내용을 신중히 분석, 진지한 해석과 방향을 제시해 신행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토론문화의 새로운 가능성도 제시해 주었다.



◇지난 4일 동국대서 열린 봉축학술세미나. 시대의 고통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보살의 바라밀행을 새로운 신행방향으로 제시했다.

기복을 작복으로…새 신행모델 제시 시급
사회문제 해결 대승불교 운동 지향 마땅

'불교의 바른 신행을 위하여'란 주제로 발제강연에 나선 권기종교수는 "얼핏보면 불교는 마치 다신교(多神敎)인양 여러 부처님과 보살들을 신봉하고 있어 불자들이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신행의 현장에서 야기되는 여러가지 혼란은 불교의 역사적 전개라는 학문적 측면과 불자의 현실적 신행이란 측면에서 구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토론자로 나선 서윤길교수(동국대)는 "기복불교는 문화적 역사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가진다"며, "기복신앙이 근기(根機)에 맞는 사람에게는 깨달음을 통한 성불이 불교신앙의 목적임을 인식시켜 보다 나은 신앙단계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교수는 "실제생활과 밀접한 동적(動的)인 수행의 목표를 정하되, 인간 내면의 빛을 발하는 정적인 수행과 조화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실에 맞는 쉬운 법문

이어서 강건기교수(전북대)는 '한국불자의 신행형태'란 발표문을 통해, 우리나라 불자의 신행이 갖는 문제점으로 △복을 비는 기복(祈福)이 복을 짓고 닦는 작복(作福), 수복(修福)의 차원으로 승화되지 못하거나 △적절한 수행법을 택하지 못하는 점 △신행이 생활화 내면화되지 못하는 점 △조직적인 신행의 부족 등을 지적, "바른 신행을 통한 믿음의 확립은 적극적인 보살의 바라밀행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박광서교수(서광대)는 이와 관련, 지혜를 구한 다음 자비를 실천한다는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서원은 시간적인 선후 문제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며, "스님과 법사들이 시대와 현실생활에 맞는 쉬운 법문을 통해 신도들에게 이웃과 인류를 위한 자비행이 바로 철저한 수행의 일부임을 자각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교수는 "그 시대의 고통과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종교는 죽은 종교"라고 단정짓고, "불자들이 이웃을 위한 무한책임의식을 지니고 구체적인 자비행을 실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전에 나타난 불교신행'을 발표한 인환스님(동국대교수)은 "오늘날에는 출가(出家)라는 개념이 '집(家)이라고 하는 현세적 집착에서 떠난다'는 내용으로 옮겨지고 있어 불교의 신행도 출가를 전제로 하는 필요성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며, "근래의 재가불교운동이 바른 방향을 갖고 발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가 불교운동 기대

이어 목정배교수는 '계율의 새로운 해석과 현실화'를 통해, "계율에 있어서 성계(性戒: 행위 자체가 본질적으로 죄악성을 가지는 戒)에 해당하는 불법의 계목(戒目)은 절대적 위상에 바로 세워놓고, 차계(遮戒: 행위 자체가 죄악은 아니지만 이로인해 본질적인 죄를 저지르게 되는 戒)에 속섭될 수 있는 것은 시대와 지역, 사회환경에 맞게 변용하는 것도 재고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각스님(동국대교수)은 이에대해 "한국의 통불교적 전통 속에서 다양한 방편을 수용하는 것은 나쁠 것이 없다"며, "다만, 삼보(三寶)의 보편적 이해로서 타력신앙과 자력신앙을 구분하고, 성계와 차계를 분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칠성 산신 용왕 등 민속·무속신앙적 요소들은 부처님의 법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모든 것이 단순 명쾌하게 드러나므로 신행현장에서 이를 적절히 흡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부처님이 '일즉다 다즉일(一卽多 多卽一)'의 원리로써 여러가지 모습으로 화현(化現)하는 것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

'불교신행의 새로운 방향'을 발표한 정병조교수(동국대)는 "한국불교의 양적 팽창은 서양종교의 극성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불교의 서양화일 수 있다"며, "정법불교에 바탕을 둔 신행, 건전한 윤리의식의 함양, 보살의 원행(願行)을 따르는 대승적 자세 등이 새로운 신행의 모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홍사성씨(불교TV 제작국장)는 "한국불교의 기복화는 불교의 기독교화와 다를 것이 없다"며, "스님과 신도가 비불교적인 신앙행태를 냉정히 반성하고 교리와 신행이 일치되는 신행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교리의 구체화가 신행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일부 스님들이 신도의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 불공을 들이는 행태를 비판했다. 〈김재경 기자〉

"불교공예 한·일 연계 연구 필요"

카와다교수, '불교 의식구…' 강연



◇카와다 사다씨

지난 3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열린 동국대 박물관(관장 홍윤식) 주최 학술강연회에서는 일본의 불교미술학자가 한·일 고대불교공예를 비교 검토한 논문을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불교 의식구(儀式具)의 재조명'이란 주제로 열린 학술강연회에서 일본 帝塚山大學 카와다 사다(河田 貞) 교수가 '한·일 고대불교공예의 제상(諸相)'이란 제목으로 발표한 이 논문은 670년에 소실된 이후 다시 중흥된 법륭사(法隆寺) 불교공예품과 756년의 동대사헌물장(東大寺獻物帳) 기재품이 중심을 이루는 정창원(正倉院) 보물 중의 불교공예품을 참조하면서 한국의 관련 유품과의 비교를 시도하고 있다.

河田교수는 "백제나 신라불교의 영향하에 배태된 일본 고대공예품을 조사 검토한다는 것은 역으로, 거의 고고학적 유품에 한정되는 한국 고대불교공예의 빈 공간을 '보완하는 일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재택서비스 향상 시급하다"

연꽃마을등 노인복지 세미나

노인복지의 올바른 실현을 위한 무갹출 노령복지연금법·노인건강보건법·노인주택건설 촉진법·노인세제 특별조치법 등 독립적인 법제도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6일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과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참여시민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한 '노인복지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발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노령수당지급의 문제점을 둘러싼 노인복지법의 허상을 고발, 모든 규정의 구체화·의무화가 주장됐다. 특히 노인전체인구의 86%가 양로원등 시설입소를 희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지고 있어 노인주택 개발, 무갹출 노령연금의 실시, 의료보험급여수준의 향상 등 재택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며, 전체노인의 67%가 종교를 가진것으로 드러나 종교단체의 사회복지에 대한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은〉

종교학회 학술발표회

한국종교학회(회장 길희성)는 13일 오전 10시 서강대에서 춘계학술발표회를 갖는다.

이날 불교분과 발표회서는 김용표연구원(불교문화연구원)과 정희수교수(강남대)가 '선불교와 하시딕 신비주의에서의 궁극적 만남의 의미'와 '아미타불과 미륵신앙 우열논쟁'을 각각 발표한다.

15살 아들이 방에만 갇혀 살아요

문 제 막내 아들이 열다섯살인데 도무지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려 하지도 않고 방에 들어박혀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 들으니 할아버지 산소에 상석을 놓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양남·강원 철원군 갈마음〉

답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참으로 어리석군요. 사람이 사대육신을 번듯하게 지니고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났으면 대장부답게 살아가야지 돌멩이 하나 올려놓은 것에 끄달려야 하겠습니까? 식사할 때 밥상에 올려놓고 먹지 땅바닥에 놓고 먹는게 좋을까요. 사람들이 부처님 가르침의 본뜻을 잘못 알아서는 밥해놓고 빌고 떡해놓고 빌고 온통 밖으로 끄달리니까 그런 엉뚱한 소리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세의 고난에 대해 연기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악업선업이 다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니 현세의 고난에 대해 남을 탓하고 조상을 탓하고, 산소가 잘못되었다느니 살이 끼었느니 하는 것은 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도 줍니다만 그것은 도와주는 것이고 병을 고치는 주체는 자기 자신입니다.

또 간혹가다가 남이 몸 아픈 것을 고쳐주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도와준 것 뿐입니다.

목 마를 때 물 한바가지 퍼준 것과 같겠지요. 하지만 남이 주는 것, 한바가지의 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바가지의 물을 다 마시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지요? 그러기에 내 생에서 물이 계속 솟아올라야 두고두고 갈증을 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샘물에서 늘 넉넉하게 물을 떠 마실 수 있을 때 항상 든든하고 당당하고, 나도 마시고 남도 떠 먹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영원히 그치지 않고 샘솟는 물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줄을 모르고 믿지 않기때문에 샘물이 막히고, 막히니까 남이 주기를 바라고 구걸을 하게됩니다. 주인공을 믿고 거기에 일체를 맡기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내 샘물을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은 보잘것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합니다만 내가 주인공을 믿으라고 하는 데는 주인공이란 '개별적인 나의 주인'을 넘어 '일체제불의 마음과 내 마음이 포괄된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치가 그러하기에 만법이 들고 나는 그 자리를 진심으로 믿어서 일체를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현세의 고난이 과거에 내가 지은 업의 결과인즉 모두 내 탓인데 어딜보고 '해주시오' 하겠습니까?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이치를 안다면 고난이 의미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관해보세요. 더러운 것은 닦아내야 하고 패인 것은 메워야 하듯이 내면에서 해답이 나올 것입니다. 내가 항상 '내 주인공만이 나를 이끌어 주고 업보를 녹이며 병고액난을 소멸케하고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의 고난을 바깥 경제로 보지 않고 안으로 되돌려 관할 때 비로소 마음으로 과거업을 녹이는 도리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밖으로 찾아서는 결코 해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설사 해답이 나온 것 같아도 그것은 또 하나의 업을 보태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안으로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그렇게 해보세요. 대소사 모두를 맡입니다.

참선해도 효과보지 못하는데…

문 24세의 청년입니다. 간질을 앓고 있는데 약을 먹으면 매우 어지럽습니다. 또 어려서는 소아마비를 앓았는데 몸이 불편해서 참선이 잘 안됩니다. 참선하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좋아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그런 효과도 없고요. 조언을 바랍니다.

〈익명의 독자·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답 전에도 어느 분이 몸 아픈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의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병원의 의사들이 여러 방편으로 치료하고 약 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으신 내용 중에 참선이 잘 안된다고 하는 부분은 뭔가 잘못 아신듯 합니다. '참선이란 이런 저런 것이다. 참선을 하면 이런 저런 효과가 있다'라고 딱 붙들어 매놓으니까 '그런 효과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옛선사들께서도 누차 일러주셨듯이 움직이고 머물고 앉고 눕고 하는 일체의 동작 그리고 그 가운데 벌어지는 일체의 상념들이 그대로 다 참선의 자리입니다. 요는 행주좌와 중에 경계에 끄달리느냐 아니면 나온 자리에 놓고 관하느냐에 달려 있겠지요.

몸이 불편한데 억지로 일정한 자세를 취하려 애쓰는 것은 바로 그런 자세(경계)에 걸린 것입니다. 마치 질로 도는 바퀴에 못질을 한 격입니다.

야유회 가보니 지금 세상이 극락

문 며칠 전 식구들과 아의로 나들이했습니다. 막 물이 오르기 시작한 신록의 가지들이 눈부셨고 새들의 노래소리, 삼삼오오 모여서 즐기는 사람들, 모든게 너무 좋아보였습니다. 이게 극락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만….

〈이덕한·서울 서초구 서초4동〉

답 질문하신 것은 아닙니다만 좋았으면 됐습니다.

허나 사계절 없는 봄을 만난듯이, 다가오는 것 마다하지 말고 가는 것 잡지말고, 그리고 편안하다 즐겁다 하는 것까지 감사한 마음으로 한마음에 놓고 가세요.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관련용품 •정보교환, 소식 •자체홍보 •안내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부처님 말씀 친필 작품
보시하는 마음으로 써드립니다.
268-5702 남강서실

진여원
불교서적 및 용품 도·소매, 초, 향, 촛대, 각종 유기 도자기, 염주, 목탁 테이프, 개금, 단청, 불상, 탱화, 승복, 법복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전화:739-2450

단청·불상·탱화·개금
※문화재 단청기능 제892호※
■주 소: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28-18 6통 4반
■문의처: 467-8329
■호출기: 012-307-8329
박석언 합장

연꽃잉어화 -전문작품-

연꽃잉어화는 옛부터 집안의 생기와 영험의 활기를 가져오는 길조로 전해오는 바 생동감을 주는 산작품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내외 벽화·병풍 및 액자화 작품
●불사용작품(作品)은 주문에 의하여 봉사가로 특별 작품해드립니다.
사내·지방·외국 어디나 그림한 또는 표구작품을 해드립니다
우만(宇滿)화실
서울 용산구 청파1가동 173-1 전화:(02)3273-0081
온라인 국민은행 남청지점 822-24-0171-328(우만)

한민족
정통 신선도 수련법
회원모집: 수시접수 (지방수련장 상담 환영)
수련과정: 단전호흡법, 철산법, 신선기공 36동작, 생식법, 벽곡법, 토굴에서 생활하는 법, 단식법
문의전화: (02)735-6795·6796
팩스 (02)730-9298
서울 종로구 인사동 4-2 중원 B/D 4층
한국 신선도 협회 회장 이 해 창

경영간부 특별초빙
당사는 그룹매출 6천억 규모의 중견그룹 계열사로 해외수출 및 내수시장의 급신장으로 인한 96년도 사업확장에 따라 최고의 보수와 대우로 경영일선을 책임질 성실한 간부인력을 특별초빙합니다.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불자 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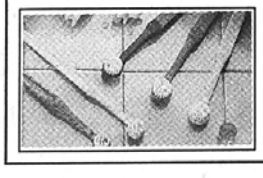
모집부문	인원	응시자격
단위경영책임자	00명	• 연령 40~54세 고졸 이상 • 개인사업 3년 이상 경험자 • 자금 및 제반사항 회사지원
간부사원	00명	• 연령 37~48세 초대졸 이상 • 기업경영업무 경험자 • 공기업체 7년 이상 경력자 • 보서장급으로 관리 기획분야 경험자 • 영관장교 출신자

2.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3. 제출서류: 이력서 1통
4. 문 의: 서울 554-4449

노고당 733-8743
지방은 조각하여 우송하겠습니다.

般若 설비 종합공사
서울시 지정업체 허가 21-304호 기름, 가스보일러 1급, 2급 기능사가 시공함
불심과 공익 완벽한 시공 A/S 철저히
APT인테리어 대표:허성호(공법)
전화번호 주 야: 4242-511, 4822-511, 4252-025 FAX:477-2751
호출기: 012-274-1727, 012-804-2025 휴대폰: 011-267-2510
주 소: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173-11(삼전불교종합복지회관 옆)

신비의 신라범종 개발
창업 5년의 역사로 범종주조의 기술혁신을 선도해온 저희 성종사가 수년간 계속된 연구끝에 드디어 새로운 음향과 아름다운 문양의 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법종 제작 및 불상 조성 TAPE(비디오 테이프)를 원하시는 스님·사부대중께서는 전화문의시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각본사 범종제작 및 대표작품 실적 다수
국내최대 범종주조회사 聖鍾社 대표 元光植(梵山)합장 (02)733-6141(서울사무소) (0331)283-2083(공장)

칫솔의 기술혁신 국제 특허품

Circle-B® 회전칫솔
좌우로만 칫솔질하세요.
상하 또는 돌려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편판매도 합니다.
5개=12,500원 10개=24,000원
■온라인 농협역삼동지점 096-01-239051(서클상사)
■전화: (02)556-3076-7 ■팩스: (02)556-3078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전국 제반 고승대덕 큰스님 법체청안하시옵고 불사 순조로우신지오.
아뢰올 말씀은 본인이 다년간 부동산업계에 근무하면서 쌓은 지혜를 스님들께서 사찰 포교당 창건 및 이전하시고자 하는 좋은 장소를 찾으시는데 스님들이 직접 하시기 힘든 부분에 저희가 손발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인연 맺어주시면 부처님의 크신 가피로 알고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사용 순서(장도)하실분 연락 바라오며 비밀은 철저 보장하겠습니다. ※부천스님 및 금강주 보살 모실 분·희실 분 연락주시면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청송기획 대표전화 (02)998-1994 호출 012-271-5634 팩스 (02)998-1994



석조각의 명문 동양석재
•일찍이 홍익대 조소과를 졸업하고
•전통 불교문화 창달과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작품 제작을 일념으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사오니
•대덕 스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성원 바랍니다.
조각가 이 규 동 합장
대 표 이 규 영
동양석재 주간: (0357) 541-4705 야간: (0351) 847-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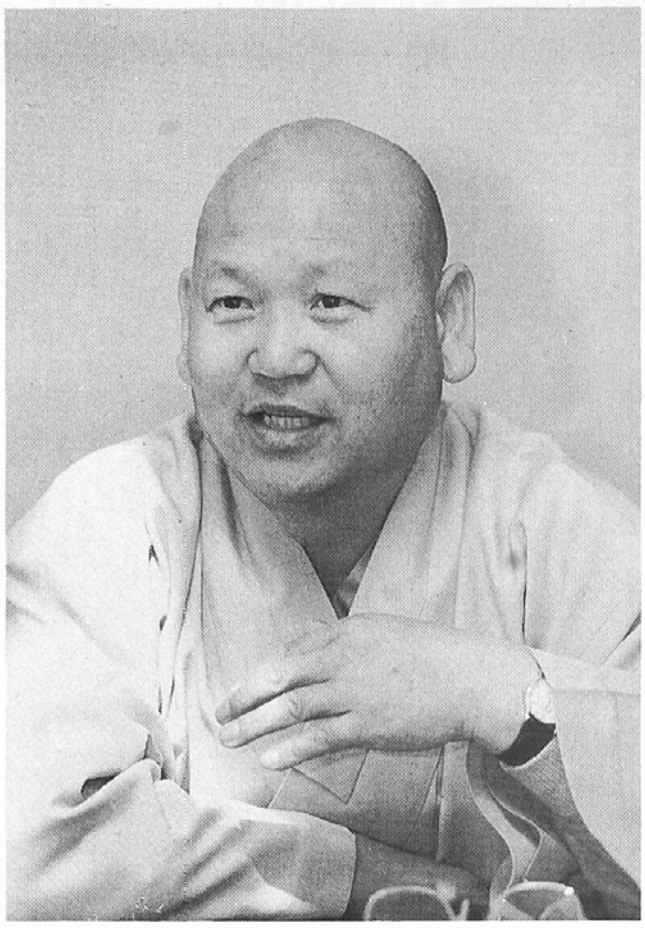
생활불교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한국불교는 신행의 방향을 불교의 생활화로 맞춰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신도들은 기복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10일 부산 시민회관에서 첫 자리를 마련한 한국불교발전연구원의 전국 순회법회는 일곱번의 법석을 통해 1만명의 불자들에게 신행생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성과를 가졌다. 앞으로도 계속될 이 순회법회를 이끌고 있는 한국불교발전연구원 이사장 월탄스님을 만났다. 〈편집자 주〉

수요인터뷰

신행순회강연 나선

불교발전연구원 이사장 월탄스님



"생명의 윤리 일깨우기 불교 몫"

고향 잃은 세대…사찰이 지역문화 중심돼야

—지난 4월 7차에 걸친 순회강연회를 치루시느라 노고가 크셨으리라 봅니다. 총 1만여명의 청중을 접하셨다는데 순회강연회의 목적과 성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한국불교발전연구원의 설립 목적은 몇가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한국불교의 현실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번 순회강연회는 본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전초 단계로서 각지역의 사부대중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신행하고 있는지 알아 보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했지요. 생각 밖으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한국불교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으며, 본 연구원이 중요시해야 할 것이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불교적 사회윤리의 개발과 제시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5월 중순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순회강연회를 계속하려 합니다.

구복신앙 벗어나야만

—신행운동에 관심을 기우리고 계시는데 한국불교의 신행형태가 지닌 장단점은 무엇이라 보시는지요.

▲한국불교가 지니고 있는 취약점은 농본사회를 문화적 배경으로 했던 과거의 감상적 신행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도들의 의식 수준도 소승적 구복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종교가 구복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전적으로 구복에 의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종교운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지요. 장점이라면 선불교의 전통을 온전히 계승하고 있는 것이지요. 산업사회의 문화적 특징이 다양성과 전문성에 있으며, 사회의 메카니즘화는 자아상실감과 소외감 속에 잠기게 합니다.

선불교는 내면적 성찰을 통해 자아를 재발견하며, 연기법이나 공사상을 통해 소외감을 극복시켜 줄 것입니다. 특히 인간성 상실을 인간성의 극대화로 전환시켜 주리라 봅니다.

개인적으로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등지를 순례하면서 한국불교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들 지역은 아직도 농본문화사회를 배경으로 상좌부 불교가 온전히 전승되고 있습니다만 산업화의 과정에서 불교신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한국불교가 산업사회에 완전하게 적응한다는 것은 산업화과정에 있는 불교국가들의 모범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한국불교의 재정립은 세계불교 중흥의 귀감이 되리라 봅니다. 따라서 현 한국불교신도들이 겪고 있는 아픔은 전환기적 현상임을 감안하고 새로운 신행운동 정립에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대사회에서 사찰의 사회적 기능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국민의 수행도량이 되어야 합니다. 산업화가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다면 정신적 공황도 초래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고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찰은 주로 광활한 자연과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을 안아 줄 수 있는 고향이 되리라 봅니다. 또한 사찰은 지역문화의 중심지가 되어야 합니다. 제도권 교육 이외에 어린이부터 노년층에 이르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사회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생명의 윤리를 일깨우며, 전국민의 사상을 통합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자면 승가의 중심축인 승려들의 의식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결국 교육의 문제가 되는데 이 점에 대한 스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지요.

▲한국불교의 흥망성쇠는 승려들의 교육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현재 승가의 교육은 4백~5백년전에 이룩된 학제·교재·교수방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제도가 당시의 엘리트 승려를 양성하기에 충분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니지요. 불과 1백여년 사이에 세계의 문명은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논리와 합리성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고, 다양성과 전문화가 사회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과 교양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승려교육에서 간과해선 안됩니다. 적어도 정신적 지도자로서 국민들의 추앙을 받고 문명과 역사를 이끌어 가는 唱導師가 되기 위해선 과감한 교육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교육의 혁신없인 한국불교의 장래가 어둡다는 점입니다.

변화 능동적 대처 필요

—외람됩니다만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권력과 지나치게 유착하여 자주성을 상실하면 진정한 불교의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시민사회의 발전은 권력의 비호 아래 존속하는 종교를 부정하고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생력을 길러야 된다는 말입니다. 불교사상에 입각한 자주성을 확립하고 정치가 반불교적 질서나 생명의 윤리를 저해하는 움직임이 있으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의 변화 속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불교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한국불교발전연구원의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요.

▲분기별로 한국불교의 현황과 산업사회와의 관계 등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할 것입니다. 저는 불교사상이 현대사회에 가장 필요하다고 확신하는데 불교적 생명윤리의 확산과 새로운 신행모델을 개발하여 한국불교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향후 20년간의 마스터 플랜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승조스님의 게송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天地與我同根 萬物與我同體"(천지는 나와 한 뿌리면, 만물은 나와 한 몸이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한국불교발전연구원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대담:차차석 조사자료 부장

나의 수행일기

고현 〈조선대 미대교수〉



"스님, 계십니까? 여름방학 한 달만 이 암자에서 지내고 싶어 찾아온 학생입니다."

초여름 석양이었다. 쑥색 위 아래 교복에 빳빳하게 풀먹인 하얀 칼라가 유난히 단정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하나가 모자를 벗고 깊숙히 인사를 하고 서 있었다. 털털거리는 시골버스에서 내린 후 한 시간 가까이 무거운 가방 하나를 들고 쉬임없이 걸어 올라온 탓인지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어제 밤에 단청 불사를 한다는 화공(畵工) 하나가 찾아온 꿈을 꿨더니… 너 몇살이냐?"

노스님은 그저 일상의 여일한 표정으로 소년을 그윽히 바라보며 되물었다.

30년전 불교를 처음 만나게 된 나의 출발이 이랬다. 누구의 안내도, 포교도, 심지어 경전 한 귀절도 모르는 까까머리 고등학생이 제발로 전생의 인연을 따라 찾아갔던 선운사 도솔암이었다.

20대 전후에는 전혜린과 숫타니파타에 빠져 허무주의와 출가(出家)의 소망이 비빔밥이 되더니 산에서 살 팔자가 못된다면 부처님 화상이나 원없이 그려보자고 20대 중반 이후 지금까지 '불교미술의 현재와 미래의 방향'이라는 화두를 붙안아 꿈적도 못하고 살아간다.

그래도 속가 살림 속에서 두가지 크게 얻은 것이 있다면 집사람이 이제는 나를 포기해 버렸는지 법정스님 따라 전국을 떠돌며 '맑고 향기롭게' 살자는 팔도만행을 이해(?)해 주고 틈만나면 작업 때문에 이 절 저 절 돌아다니는 역마팔자를 보며 '난 어떡하라고'에서 '미워도 다시 한번'으로 변했다는 사실이다.



두번째 소득은 국민학교 4학년인 둘째딸 아이가 갸륵하게도 이미 출가를 결심해 준 사실이다. 이 아이는 이상하게도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다음에 커서 오고 갈 데 없는 노인들을 모시고 산다 하더니 어느 날, 노인들이 몸이 아플 때는 의사가 필요하고, 마음이 아플 때는 스님이 필요한 것이라고 내가 한마디 해준 뒤로는 지금까지 '스님의사'가 장래희망이 되어 버렸다.

그래서 요즘, 이제는 나보다 더 열심히 부처님을 찾아 헤메는 집사람에게 흐뭇하고, 훗날 늙은 애비 오체투지 절을 받을 스님이 될 내 딸아이 생각에 사는 맛이 새롭다.

나의 수행목표이자 오로지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불교미술의 현대화 작업을 통하여 불교가 구태구습의 탈을 벗지 못했다는 세간의 평을 깨뜨려 가면서 5백년, 천년뒤에 올 후손들에게 오늘날 불교미술의 한 단면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을 따름이다.

어제는 대불련에서 열심히 수행하는 제자들이 찾아와 서로 차를 나누다가 사월 초파일 행사를 하며 교정에 설치할 연등 얘기가 나오자, 두 녀석들이 모두 '이번 행사에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씨근덕거리는 것을 겨우 진정시켜 보냈다.

우리는 초파일에 길거리에 설치한 연등을 찢어 놓거나 담배불로 구멍을 뚫어놓는 경우를 수없이 지켜보고 살아왔다. 불자끼리는 서로 말하지 않아도 누구의 행동인지 충분히 짐작한다. 종교가 없는 일반 사람들이 깨지거나 찢어진 연등을 보고 혀를 끌끌 차겠지만 결코 불교를 욕하지는 않는다. 불자들이 부처님 오신날 행사에 일부러 보기 흉한 불량품을 걸어 놓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시민들의 수준을 믿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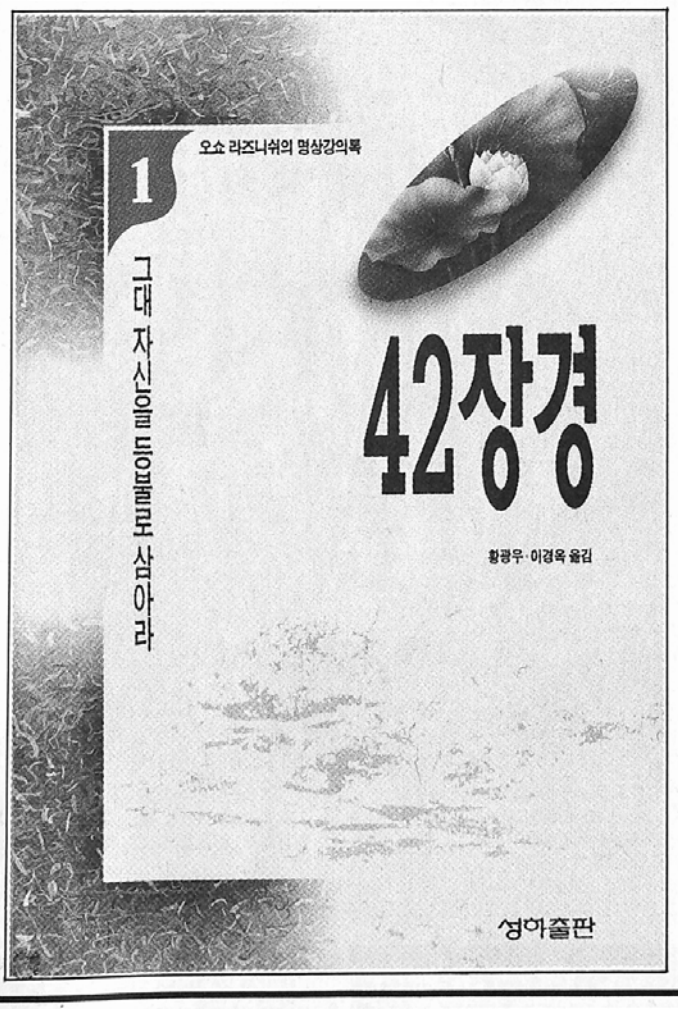
나는 집안의 장남으로 동생이 넷이 있는데 모두가 카톨릭 신자들이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말들을 농담삼아 건네기도 하지만 단 한번도 부처님과 예수님을 싸움붙여 본 일도 없으며, 가끔 동생들을 만나 곡차를 즐길 때면 부처의 말씀이 안주가 되고, 예수가 주(酒)님이 되기도 하지만 마무리는 늘 파안대소였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피를 나눈 형제도 각자의 뜻대로 서로의 인연에 따라 각각 다른 종교를 선택할 수도 있고 삶의 방식을 달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종교학자 피터 버거는 세계의 종교를 '예루살렘'형과 '바나레스'형, 즉 이스라엘과 인도의 모습으로 구분하고 '초월성'의 종교와 '내재성'의 종교로 대별했다. 나와 다를 수밖에 없는 타인을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짓고서는 공격적이고 배타적 태도를 취하는 태도-행여 우리 불자들은 그런 행동하지 않았는지 한번 자성해 볼 일이다.

지금껏 30여년 불자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며, 또 불교미술의 현대화 작업에 금생의 한평생을 걸어 볼 작심이지만, 나는 사유(思惟)의 뜰과 관조(觀照)의 샘을 잃어버리고 오직 유일과 맹신의 옷을 두껍게 입고 있는 어떤 종교인도 거부한다. 어제 내 제자들에게 진심(嗔心)을 다스리라 일러주었던 잡아함경의 한 말씀을 여기에 옮겨본다. '나는 이 세상과 다투지 않는다. 단지 세상이 나와 다툴 뿐이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범다운 진리를 말하는 이는 결코 세상과도 다투지 않는다.'

'맑고 향기롭게' 만행 보람

불교미술 현대화 30년 화두 "금생 걸 터"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붓다께서 열반에 드실 때 그의 수제자인 아난다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40년을 지냈습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걸어다녔고 당신과 함께 잠들었으며 당신과 함께 음식을 먹었고, 당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껏……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떠나시니 나에게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붓다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대의 빛은 그대 안에 있다.** 나는 그대의 빛이 아니었다. 만약 그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내 손 안에 있었다면 그대는 깨달았을 것이다. 깨달음은 그대 내면 깊은 곳의 능력이다. 그러니 용기를 내라. 아난다. 그리고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아파 디포 브하바(appa deepo bhava)……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42장경은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지는 하나의 방법이다

인류 최고의 사상인 불교를 중국에 소개하기 위해 인도의 불교 스승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모아 42편의 시로 묶었다.
대부분의 불교 경전들이 대단히 방대하고 난해한 반면에 42장경은 단순하고 직접적이면서도 알기 쉽게 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다.
이 책은 붓다의 42장경을 항목마다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오쇼의 명상적 깨달음과 특유의 농담, 재치있는 우화를 곁들여 쉽게 읽을 수 있는 경전이다.

■도서명 / 42장경 **1권**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2권 삶의 해변에서 모은 조약돌
■저·역자 / 오쇼 라즈니쉬(Osho Rajneesh)·황광우/이경옥
■판 형 / 신국판/ 각권 452쪽 내외
■가 격 / 각권 7,500원
■발행일 / 1권 1995년 4월 20일
2권 1995년 5월 10일
■발행처 / 도서출판 성하

전화 778-6826~7, 팩스 778-6828

다시 푸는 경서 — 치문경훈 〈12〉

孤山智圓法師 勉學(고산지원법사 면학) ①

嗚呼 學不可須臾怠 道不可須臾離
오호 학불가수유태 도불가수유리
道由學而明 學可怠乎
도유학이명 학가태호
聖賢之域 由道而至 道可離乎
성현지역 유도이지 도가리호
肆凡民之學 不怠 可以至於賢
사범민지학 불태 가이지어현
賢人之學 不怠 可以至於聖
현인지학 불태 가이지어성

오호라(슬프도다) 배움은 잠시라도 게을리 해서는 안되며 도는 잠시라도 여의어서는 안된다.
도는 배움으로 말미암아 밝아지는 것이니 배우기를 어찌 게을리 하리오
성현의 영역에는 도로 말리암아 다다를 것이니 도를 어찌 여읠수 있으랴
그러므로 범인의 배움이 게으르지 않으면 가히 현인에 이를 수 있고
현인의 배움이 게으르지 않으면 가히 성인의 영역에 이를 수 있다.

苒求之學 可以至於顏淵
염구지학 가이지어안연
而不逮具體者 中心怠耳
이불체구체자 중심태이
故 曰非不悅子之道 力不足也
고 왈비불열자지도 역부족야
子曰患力不足者 中道廢 今汝 劃

혹 문성인학야 왈시하언여 시하언여
凡民與賢 猶知學 豈聖人 怠於學耶
범민여현 유지학 기성인 태어학야
夫天之剛也 而能學柔於地故 不干四時焉
부천지강야 이능학유어지고 불간사시언
地之柔也 而能學剛於天故 能出金石焉
지지유야 이능학강어천고 능출금석언
陽之發生也 而亦學斂殺於陰故 靡草死焉
양지발생야 이역학숙살어음고 미초사언
陰之斂殺也 而亦學發生於陽故 齊麥生焉
음지숙살야 이역학발생어양고 제맥생언

혹 묻기를 '성인도 배웁니까?' 하니 이르되, '이게 무슨 말이며 이 무슨 말이냐?'
범인과 현인도 오히려 배움을 알거든 어찌 성인이 배움에 게으르리오.
대저 하늘은 강하되 부드러움을 땅에서 능히 배우는 고로 사시사철을 간여치 않고(범하지 않고)
땅은 부드럽되 하늘에서 강함을 배우는 고로 능히 금석을 내며, 양의 기운은 낳는 것이로되 또한 음의 기운에서 숙살(싸늘한 기운이 초목을 말라 죽게 함)을 배우는 고로 미초(가지와 잎이 미세한 풀)가 죽으며, 음은 숙살이로되 또한 양에서 낳는 기운을 배우는 고로 냉이·보리가 자란다' 고 하였다.

夫爲天乎地乎陽乎陰乎
부위천호지호양호음호

도는 배움으로 밝아지니 어찌 게을리하리
천지음양 서로 배움에 만물이 성숙하게 돼

자왈환력부족자 중도폐 금여 획

염구(공자의 10대 제자 중 일인)의 배움이 안연(공자의 수제자)에 이를만 했으나
온전함에 미치지 못한 것은 중심이 게을렀을(마음 가운데 게으름이 있음) 뿐이었다.
고로 이르되, '공자의 도를 좋아하지 않은 것은 아니건만 노력이 부족하다' 하였다.
공자 말씀하시기를, '노력이 부족함을 근심하는 이는 중도에 폐하나니 이제 너는 획을 그었구나(자신을 잃고 스스로 한정함)' 하였다.

顏淵之學 可以至於夫子
안연지학 가이지어부자
而不逾於聖師者 短命死耳
이부제어성사자 단명사이
如不死 安知其不知仲尼
여불사 안지기부지중니
以其學之不怠也 故 曰有顏氏子 好學
이기학지불태야 고 왈유안씨자 호학
不幸短命死矣 今也則亡
불행단명사의 금야즉망

안연의 학문이 가히 공자에 이르렀거늘
성사(공자)와 같아지지 못한 것은 명이 짧아 일찍 죽은 탓이라
죽지 아니했으면 어찌 그가 공자만 같지 못할 줄 알았으리오 그의 배움이 게으르지 않았음이라 고로 이르되, '안연이 학문을 좋아했으나 불행히 명이 짧아 죽으니 이제는 없다' 하였다.

或 問聖人學邪 曰是何言歟 是何言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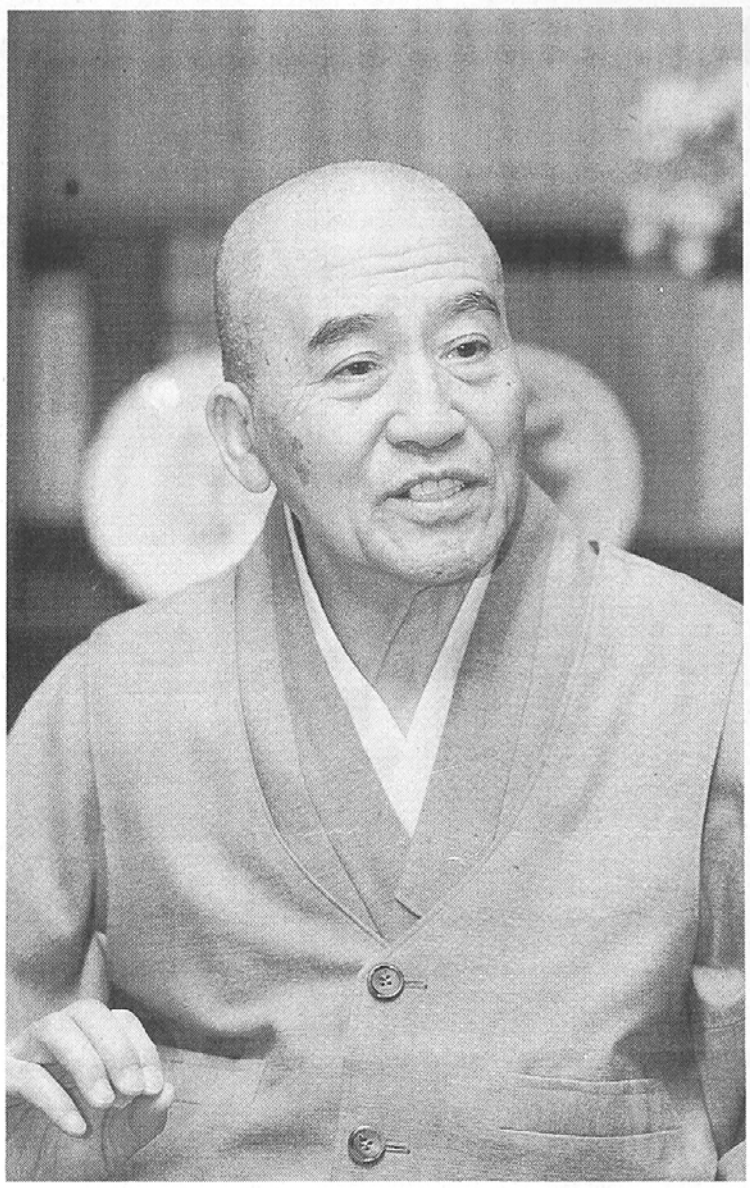
交相學而不怠
교상학이불태
所以成萬物
소이성만물
天不學柔則無以覆
천불학유즉무이복
地不剛則無以載
지불강즉무이재
陽不學斂則無以啓
양불학음즉무이계
陰不學發則無以閉
음불학양즉무인폐
聖人無他也
성인무타야
則天地陰陽而行者
즉천지음양이행자
四者學不怠聖人惡乎怠
사자학불태성인오호태

대저 하늘과 땅과 양과 음이여, 서로가 서로에서 배움에 게을리 하지 않으니
그런 까닭에 만물은 성숙하는 것이다.
하늘이(땅이) 부드러움을 배우지 않았으면 만물을 덮어줄 수 없었고, 땅이(하늘의) 강함을 배우지 않았으면 만물을 실어줄 수 없었을 것이다.
양이 음을 배우지 않았으면 봄·여름이 열리지 않았을 것이며, 음이 양을 배우지 않았으면(가을·겨울로) 닫을 수 없었을 것이다.
성인도 다르지 않나니 곧 천지음양의 법을 따르는 자라 이 네가지를 배움에 게을리 하지 않으니 어찌 성인이 태만하랴. **龍 眼**

★ 지 상 법 석

"법이란 자기가 얻는 것이지

법행스님 〈팔달선원 주지〉



약력
- 1921. 2. 21 경기 화성 生
- 48년 금산 태고사에서 포산스님 은사로 출가
- 52년 팔달선원 원장
- 59~60년, 64년, 74~90년 선학원 원장
- 조계사 동화사, 물국사, 봉은사 주지 역임

사람들은 나를 초빙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해달라고 합니다. 설법해 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법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인데 새삼스럽게 말씀 드릴 것이 무엇 있겠습니까. 지금 산천에 피어 있는 꽃은 꽃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새는 새대로 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에 법이 지천으로 널려 있는데 새삼 저에게 말해 달라는 것이지요. 지금 제가 몹시 목이 마른데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틀에 모든 것을 주워 담으려 합니다. 행주좌와 모든 것을 주워진 틀 안에서 판단하지요. 저의 설법 또한 여러분들의 범주로 난도질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지적 허욕을 채우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법이란 여러분들의 잣대로 헤아려서는 알 수 없어요. 오히려 틀과 껍질을 벗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흘러가는 구름 속에서, 흩날리는 낙화(落花) 속에서 법의 진면목을 볼 것입니다. 그것을 이름도 형상도 버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법을 법이라 하면 참된 법이 아니지요.

저의 설법은 이렇게 신통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도처에서 벌어지는

'나'는 본래 온데도 간데도 없고 지수화풍으로 구성된 존재일 뿐

법석(法席)을 보고 있노라면 환희심에 충만하여 춤이라도 추고 싶습니다. 알겠습니까.

(주장자를 세번 내리치고)

이미 법은 마쳤다고 봅니다.

본래 법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법을 설한다는 그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입을 열면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명상(名相)에 사로잡힌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이야기 하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너'가 있고 '내'가 있고 부처님도 있고 삼라만상도 있는데 왜 없다고 하느냐 반문 하겠지요.

여러분이 늘상 외우는 〈반야심경〉에 '불생불멸(不生不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도 죽은 것도 아니고 또 눈 귀 코 입 촉감 생각하는 것이 없다고도 해요. 그렇지만 덮어놓고 없다고 하면 가시적인 우리 눈앞의 현상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염세주의자 내지 정신이상자로 취급받기 쉽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불생불멸'에 대해 논리적으로 살펴보기로 합시다.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아버지가 어머니 뱃속에 현미경으로 보아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꽁지벌레같은 정자를 보냅니다. 그것도 한마리 밖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음식을 먹어서 이것이 자랍니다. 그런데 인간은 잡식동물 아닙니까. 안먹는 것이 없어요. 날아가는 것, 기어다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함것없이 다 먹어요. 이렇게 먹고 자란 것이 '나'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수화풍 4대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이 4대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 본래 온데도 간데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온데도 없고 간데도 없으니 부처님은 '불생불멸'이라 했던 것입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눈 귀 코 입 촉감 생각도 모두 절대성이 없습니다.

이제 여름도 다가오고 수박을 자주 먹게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박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수박 맛을 설명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수박에 대해서 말하라 하면 누구나 수박을 잘 먹은 것처럼 얘기하겠지요. "겉은 파랗고 속은 붉은 것이 여름에 별미입니다", "차갑게 해서 먹으면 더욱 맛이 납니다" 등등 여러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잘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수박맛을 전달하지 못했어요. 부처님이라면 수박을 어떻게 설명하셨을까요. 부처님은 수박씨를 심어서 가꾸어서 익은 것까지 모두 알려주고 얼마만큼 익으면 이것을 따 먹으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먹어보니 어떠하더냐."

"참 수박이 맛있습니다."

"그래 그래, 나도 그렇다. 먹어보니 나도 그렇다."

수박을 못먹어 본 사람에게 당분이 어떻고 수분이 얼마나 있으며 영양가가 얼마나 있는가고 아무리 설명해도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안내

본사
T.02-737-8881
F.02-737-0697

부산지사
T.051-634-5114
F.051-634-5188

광주지사
T.062-375-9986
F.062-371-7544

대구지사
T.053-427-8008

목포보급소
T.0631-281-2534

공주보급소
T.0416-856-3280

"2천만에 깨달음을"

공 고

안양 불암사 황옥순 귀하

소재 및 사명: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산 186-7 불암사
창 건 주: 정순조(치봉)

위 사원은 고 정치봉 스님께서 창건하셨습니다. 주지소임이셨고 본종에 등록, 3대 총무원장에 취임하셨던 스님이 원장직을 수행한 사실은 불교 각 종단 및 지역 각 사원에서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스님 작고 후 시봉보살 황옥순이 위 사원의 후속조치인 주지임명에 본종과 상의조차 없이 스스로 창건 및 주지임을 내세워 타종단에 등록한 것과 관련, 창건 주지 스님의 업적을 유지·계승하려는 신도회와의 사이에서 법적 관계 등 불미스러운 문제가 계속되어지기에 그 귀추를 보아오던 중, 4월 19일자 공고를 접하고 어리석은 발상이라 생각되어 이후로부터 황옥순 씨는 신도회와의 사이에서 야기된 법원의 조정판결에 순응하고 지역 및 양 종단의 와해 및 이기적 행위를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한국불교 여래종
기획조정실장 이 무 명

명문대가집
현미먹는 비법
먹기어려운 현미 이렇게 먹으면 된다!

고향에 계신 어머님처럼 정성을 다하여 절구통으로 방아를 찧어서 먹던 쌀과 같이 원하는 분도로 즉석 정미한 저분도 쌀을 먹으면 됩니다.

절구통표 米壽米 – 현미저분도쌀

1. 현미의 문제점 : ① 먹기 어렵다.
② 영양섭취율이 떨어진다.
③ 묵은 현미를 먹을 가능성이 크다.
2. 왜냐하면 상인들이 현미의 먹기 어려운점을 악용하여 묵은 벼로 현미를 만들어 시중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먹기어려운 현미를 그냥 먹으라는 것은 먹지말라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4. 먹기엔 백미처럼 부드럽게 먹고 영양은 현미처럼 풍부하게 먹을수 있다면 완전한 해답이 됩니다.

2분도 현미(주식으로)+미강가루(없음)=현미(먹기 어렵다.)
3분도 쌀(주식으로)+미강가루(부식으로)=현미(먹기 쉽다.)
4분도 쌀(주식으로)+미강가루(부식으로)=현미(먹기 더쉽다.)
5분도 쌀(주식으로)+미강가루(부식으로)=현미(먹기 조금 더쉽다.)
6분도 쌀(주식으로)+미강가루(부식으로)=현미(먹기 아주 더쉽다.)

5. 변비에 특효인 미강가루는 거치른 쌀겨가 아니고 밀가루처럼 곱고 부드러운 분말로 생산하여 쌀과 함께 드립니다.
6. 회원이 원하는 분도별 쌀을 주문받아 생산하여 배달하는 것이므로 신선도, 맛, 영양가에서 뛰어납니다.
7. 회원의 집까지 배달됩니다.(20kg이상) 대리점모집중
8. 원하는 분도별 쌀 kg단가는 1,950원 입니다.

조상의 얼을 지키는
쌀바르게먹기운동중앙회
TEL. (02) 231-5421~2, 235-1846~7
正米食(쌀을 바르게 먹음)이면 米壽享(여든여덟살이 되는 해에 베푸는 잔치)이다.

화제의 신간
창작예언소설
현자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지구와 인류에게 대위기가 발생, 그때 우리가 살 수 있는 비결은"

숨어서 침묵하던 도인들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이제 더 이상 현인들은 침묵하지 않는다.
지구 인류의 대위기에 대한
예언에서부터 지극히 합리적인
자아완성의 수행법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보통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비결과
옛부터 비밀리 전해지던 금단의 비전이
드디어 공개되는데 ……



김일하 지음/값 6,000원

법보시

관음독송정 시리즈
1. 우리말금강경(심재열/ 값 2,000원)
2. 한문금강반야바라밀경(심재열/ 값 2,000원)
3. 우리말불설아미타경(심재열/ 값 2,000원)
4. 한문불설아미타경(심재열/ 값 2,000원)
5. 우리말천지팔양신주경(이청범/ 값 2,000원)
6. 한문불설천지팔양신주경(이청범/ 값 2,000원)
7. 우리말 예불대참회문(심재열/ 값 2,000원)
8. 지장보살본원경(동봉/ 값 6,000원)
9. 원각경 보안보살장·팔양경(경흥/ 값 2,500원)
10. 천수경(근간)
11. 부모은중경(근간)
12. 관음경(근간)

법보시용은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관음출판사 전화/921-8434 팩스/929-3470

지상법석

남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산천에 피어있는 꽃은 꽃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새는 새대로 법을 설합니다
온 우주에 널려 있는 것이 법입니다

소용이 없어요. 말로만 얘기 하는 것보다 먹어봐야 해요. '백문이불여일행'이지요. 내가 살어서 길러서 먹어 볼 때의 상황. 그것이 바로 참선입니다. 참선해서 깨치면 바로 수박을 먹는 것처럼 시원해요.

마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꽁지벌레 한마리가 살아서 나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온데가 어디입니까. 숨 한 번 들이쉬지 못하면 그때는 가버리고 마는데 간 데가 어디입니까. 갈 때는 바람이 먼저가고 다음에 뜨뜻한 기운이 가고 그 다음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핵 뭉치입니다. 숫자를 셀수가 없어요. 엄청난 균들이 몸에 있어요. 균을 가족부대에 넣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나라고 해요. 나라는 존재나 우주가 다 같은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아버지의 정충 한 마리가 나라는 존재가 됐을 때 그것이 나냐 이거예요. 인간의 세포가 5백억이라 할 때 한 개의 세포가 핵분열까지 하면 수십억 수백억이 되요. 물체 아닌 데까지 나간단 말이예요.

여기 불이 있습니다. 이불도 엄청나게 많은 수백억개의 균이 빛을 내고 있어요. 저 불 자체가 보일 정도면 이

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시기에 인과설이 나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는 인과설 말입니다. 과거 무량겁을 정진해서 그것을 알게 됩니다. 축구 잘하는 이들은 과거에 축구도 많이 했기에 축구선수가 된 것이예요. 과거에 해봐서 현재 더욱 잘해요.

처음보는 사람인데도 딥상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전에 본것 같고 그래요. 다들 과거에 서로 본 것입니다. 때로는 같이 살았어요.

요새 결혼들하지요.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현대의 부부는 벌안간 좋다고 만나자마자 결혼하는 사람이 있고, 싫

얻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 생을 버려서라도 아니면 누생겁을 걸쳐서라도 반드시 도를 깨닫고 말겠다는 굳은 서원을 지니고 수행할 때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예전에 벽계스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국가에서 스님을 심하게 탄압하자 숨어살았어요. 벽계스님의 법력이 높다는 소문을 듣고 벽송스님이 찾아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두 스님은 함께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벽송스님은 매일 산에가서 나무를 해다 팔아서 근근이 먹을 것을 마련하고 벽계스님은 미투리를 삼았습니다. 이렇게 3년동안 시봉을 했는데도 법이니 도니 일체 말이 없는 거예요.

"세월은 흐르고 있고 3년을 허송세월 했나보다. 이제 떠나야 겠다"며 벽송스님이 짐을 챙겨서 나가는데 벽계스님이 "벽송아"하고 부르는 겁니다.

벽송스님은 멀리서 스승이 부르는 소리를 듣고도 절대 돌아보지 말자고 다짐하고는 그냥 걸어갔어요. 다시 "벽송아"하고 불렀지만 두 주먹을 불끈쥐고 갔어요.

그러자 벽계스님이 또 "벽송아"하니 안볼 수도 없고 해서 고개를 돌렸습니

우리가 매일보는 샛별 보고 부처님은 성불
지적 허욕위한 공부는 구름 처럼 허망한 것

다시 말하자면 나라는 존재는 수 많은 균입니다. 5백억개의 세포균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균을 화장터에서 화장하면 죄다 없어져 버립니다. 입자나 분자라고 할 수 있는 것 마져도 궁극에는 없어져요. 입자를 분리하면 전자 핵으로 나뉘고 더 나누면 물체가 되느냐 안되느냐 까지 갑니다. 이것이 물질이냐 물질이 아니냐 하는 점을 연구하면서 많은 물리학자들이 존재의 근원을 밝히려 하셨고 각국에서는 이에 대해 수 많은 가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요.

구태여 우리 몸뚱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고 존재론적으로 해부하자면 지수화풍 4대에서 나와서 자란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주 한개의 미분자예요. 마침내는 가는 곳 없이 헤어져요. 그러니 산것도 아니고 죽은것도 아닙니다. 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생불멸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볼 때 본래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몸은 무엇인가. 내 몸이

루 말할 수 없는 균이 빛을 내는 것입니다.

허공에 일본 대만 홍콩 바이러스가 있다고들 해요. 여러분들 이 허공에도 엄청난 균들이 있어요. 보입니까. 못봐요. 그렇지만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서울대학교에 전자현미경이 있다고 들었어요. 자연과학대학 교수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자주 만나는데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손등을 깨끗이 씻더라도 전자현미경 위에 엎어놓고 보면 균 투성이라는 것입니다. 내손이 이렇게 더러운가. 모두들 깜짝놀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여자들 손을 닦고 또 이쁘라고 얼굴에다 페인트 칠하고 야단들입니다. 더러운데다 자꾸 더럽게 하는 거예요.

아뢰야식이 있지요. 이것이 요새 컴퓨터의 하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여기에 입력해 놓는 겁니다. 내가 무량겁을 살아왔는데 부처님은 그것을 알고 과거 네가 어느 세상에서 누구며, 어떤 일을 했고, 지금 어떤 일

지만 할수 없이 결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인데 자꾸 도망가고 또 싫은 사람이 옆에 와서 칭얼거리며 살아보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산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요. 과거에 사람으로 부부가 되기도 했고 날짐승으로 축생으로 할것없이 여러가지 인연을 맺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금생에 사람이 되어 만나기도 하지요. 과거에 그 사람과 내가 부부였기에 지금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연입니다.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아네요. 마음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중국의 도연명이 하루는 도를 배우고자 스님을 찾아갔어요. 도연명이 스님을 찾아 산에 올라가보니 스님이 절벽의 나무 위에 앉아있는 거예요.

"스님 위험합니다."

"나는 위태롭지 않네, 자네가 더 위태롭네."

하고 반대로 말했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하는데 도연명은 집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법이란 자기가 얻는 것이지 스승이

다. 그러자 벽계스님이 주먹을 보이며 "도 받아라"하는 겁니다. 여기서 벽송스님이 환안대오를 했습니다.

이 주먹에 무슨 주고 받을 도가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새벽에 샛별을 보았는데 매일 똑같은 별 아닙니까. 그러나 부처님은 그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벽송스님도 그 도를 얻을려고 3년 동안 나무를 한 것입니다. 오직 불법만을 찾은 것이지요. 그러니 도 받아라 하는데 환안대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스님은 마당쓸다가 발에 채인 돌을 주워 대나무 밭에 던지자 대나무가 내는 뺑소리를 듣고 깨쳤어요. 그렇다면 도가 돌멩이에 있느냐, 대나무에 있느냐, 대나무와 돌이 만나서 소리가 나는데 있느냐 이겁니다.

자기가 간절하게 참구하다 보니 나온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불생불멸'의 본 뜻을 정확히 파악하고 간절하게 불법의 근본 의미를 찾으십시요.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㉕

양 형 진

불일불이

말로 할수 없는 중도의 진실을 無記로 보여
'수소·산소·물' 인과동일·차별아닌 연기관계

중론에는 불일불이와 관련되는 게송이 여러 군데에 나온다. 대표적인 것만을 우선 살펴보자. "원인과 결과가 동일하다는 것은 결코 성립하지 않는다. 원인과 결과가 다르다면 이러한 일도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 "만약 원인과 결과가 동일하다면 능생(能生:생겨나게 하는 것)과 소생(所生:생겨나는 것)은 동일한 것이 되며, 원인과 결과가 다르다고 한다면 원인은 원인이 아닌 것과 동일한 것이 될 것이다."

세존 이래의 상황을 간략하게나마 설명하여 중론의 사상적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이 게송의 의미를 이해하는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세존은 "세계는 상주하는가 아니면 무상한가?" 혹은 "영혼은 육체와 동일한가 아니면 다른가?"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를 무기(無記)라 한다. 이를 소극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질문에 대한 형이상학적 탐구가 열반에 이르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적극적으로 본다면 이런 형이상학적인 탐구는 필연적으로 경험적이고 상대적인 견해에 집착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질 것이기 때문에, 석존은 무기에 의하여 언설로는 이룰 수 없는 중도의 진실 즉 언설불가득공(言說不可得空)의 진실을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석존 멸후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등에서와 같이 세계는 상주한다는 등의 견해가 불교 내부에서까지 용성하게 된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용수는 사성제(四聖諦)와 연기설을 근간으로 하는 붓다의 중도사상을 반야공의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재구성하여, 외도의 견해를 그 근거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논파하고자 하였다. 이것이 용수보살이 중도사상을 주창하게 된 동기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용수보살은 위의 게송에서와 같이 자신의 주장을 전면에 내세우는 일은 거의 없이, 외도의 견해를 주제로 설정하고 이를 비판하여 이러한 견해가 잘못된 것임을 밝히는 데에 중론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이는 물론 외도 사상의 잘못을 지적하려는 의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상승 진리의 진실한 뜻은 어떠한 언어적 표현으로도 온전히 나타낼 수 없고 따라서 언어적 표현으로는 훼손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릇된 견해만을 지적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一'의 사상이란 원인과 결과가 같다는 인과동일의 입장이며 '異'의 사상이란 원인과 결과가 다르다는 인과차별의 입장이다. 이러한 일이(一異)의 입장은 유자성론(有自性論)의 과실 이다. 사물이 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원인과 결과 혹은 능생과 소생의 존재성이 동일하든가 아니면 다르다는 그릇된 견해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그릇된 견해는 과거 어떤 특정한 시기의 인도에서만 가능했던 것이 아니다. 우리들이 붓다의 진실한 가르침을 이어가지 못한다면 언제고 쉽게 품을 수 있는 그릇된 견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원인과 결과는 연기론의 기본적인 요소이다. 용수보살은 이를 능동적으로 생겨나게 하는 것으로서의 능생과 수동적으로 생겨나는 것으로서의 소생 즉 능소의 관계로 파악하면서 이 관계를 불일불이(不一不異) 라고 하였다. 이를 원자의 세계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수소 원자 두개와 산소원자 하나가 결합하여 물 분자를 이룬다. 수소 기체란 아주 가벼운 것으로서 이를 이용하여 과거에는 비행선을 제작하여 하늘에 띄우기도 하였었다. 산소란 생물이 호흡하는 데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며, 특히 식물은 이를 이용하여 광합성을 하면서 생물계 전체에 먹이를 제공한다.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여 물을 이룬다는 관계에서 본다면, 수소와 산소는 물을 생겨나게 하는 것이므로 능생이며 물은 수소와 산소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므로 소생이 된다. 물론 여기서의 능생이나 소생이라는 위치는 관계의 틀 속에서만 파악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관계는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어서 이를테면 공합성에서는 물이 능생의 위치를 갖게 된다.

중론에서의 중요한 테마는 이 능생과 소생의 관계가 불일불이라는 것이다.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지만 물의 성질이 수소와 산소의 성질과 동일할 수는 없으므로 불일이다. 그러나 수소와 산소를 떠나서는 물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으며, 또한 일례로 수소의 질량과 산소의 질량을 합한다면 물의 질량과 같은 것이 되므로 수소, 산소와 물 즉 능생과 소생이 전혀 관계가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불이이다. 따라서 이들의 관계는 서로 연기에 의하여 성립할 뿐이요 그러므로 각자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무자성적인 것이다.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의 세계에서도 이에 관한 실례는 얼마든지 가능하며, 사실은 모든 것이 그 예가 된다고 해야 맞는 말일 것이다. 용수보살은 이를 불과 섶이라는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만약 불이 섶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불과 섶은 동일한 것이어야 하는 데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며, 불과 섶을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섶이 없이도 불은 존재하여야 하는 데 이 또한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중론 제10장 과연가연품 제1게 참조). 불일불이 역시 연기 무자성의 원리를 설명한 것이다.

〈고려대 교수·물리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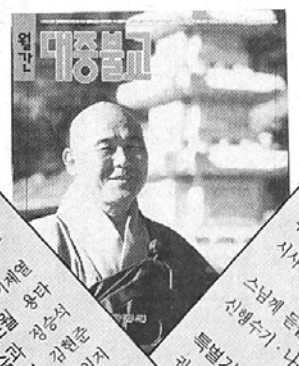
불교 정론지

월간 대중불교 5월호

(재)대원정사 월간 대중불교 / 값 3,500원

부처님 오신 달 5월에

부처님 말씀 그대로 〈대중불교〉를 만난다



지령 150호 부처님 오신 날 특집
누가 승광사 성보를 훔쳐 갔나
16국사 진영의 가치 / 김형우
현정취재, 승광사 성보는 부처님 오신 날 전에
돌아와야 한다 / 공동 취재
대책, 불자들은 마땅히 성보 지킴이로
나서야 한다 / 공동 취재
대중불교의 벗을 찾아서
충남 대학교 교수 불자회 대원회 김희균
인기연재/수행으로 가는 길 · 무당의 염불과 수행인의 염불 이재열
생활불교 · 마조좌과 조월 용타
고려산책 · 이숙원과 이숙과 정승석
법당 이야기 ·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김현준
에세이 보살불교 · 정취보살 · 일심의 해탈 촉루두 일지
수행길의 이런 도반 · 구수원 진국의 사람 토진 스님 조명

포교당 원기 · 버팀 위의 사람들 완욱
계사지를 찾아서 · 안성 봉업사지
김상영, 최태선
불교와 민속 · 통일신라 이래의 전통
연등회 김종대
4회연속특별기획3
지방자치 이후, 이렇게 달라진다 / 김병준
쇠부소리 · 열린 사람을 낳는 종교 / 김종철
귀담아 듣고 · 불자와 식사기도 / 배기성
시사 · 가야산 골프장 건설을 경고한다 / 유정길
스님께 듣습니다 양로원 불사 이루는 석주 큰스님 김희균
신행수기 · 나는 '꿈 깬' 그곳으로 간다 / 황산월
특별기고 / 중국땅 지장왕은 신라 스님이었다 유봉규
전말부록 · 불교방송 교리강좌 이명례

정기구독신청은
(02)773-5731, 754-1514

대우자동차 전 차종 특별판매



대상차종
아카디아 · 브로엄 · 프린스 · 에스페로
씨에로 · 르망 · 티코 · 다마스 · 라보

· 리스 할부
· 인도금 없이 전액 자체 할부(국민차)
· 차종에 따라서 무이자 할부도 가능(한정판매)

자세한 문의사항은

• 전 화 : 718-0973~4 • 호출기 : (015) 305-3933 • 담당자 : 이 계 천

고은 불교 대하소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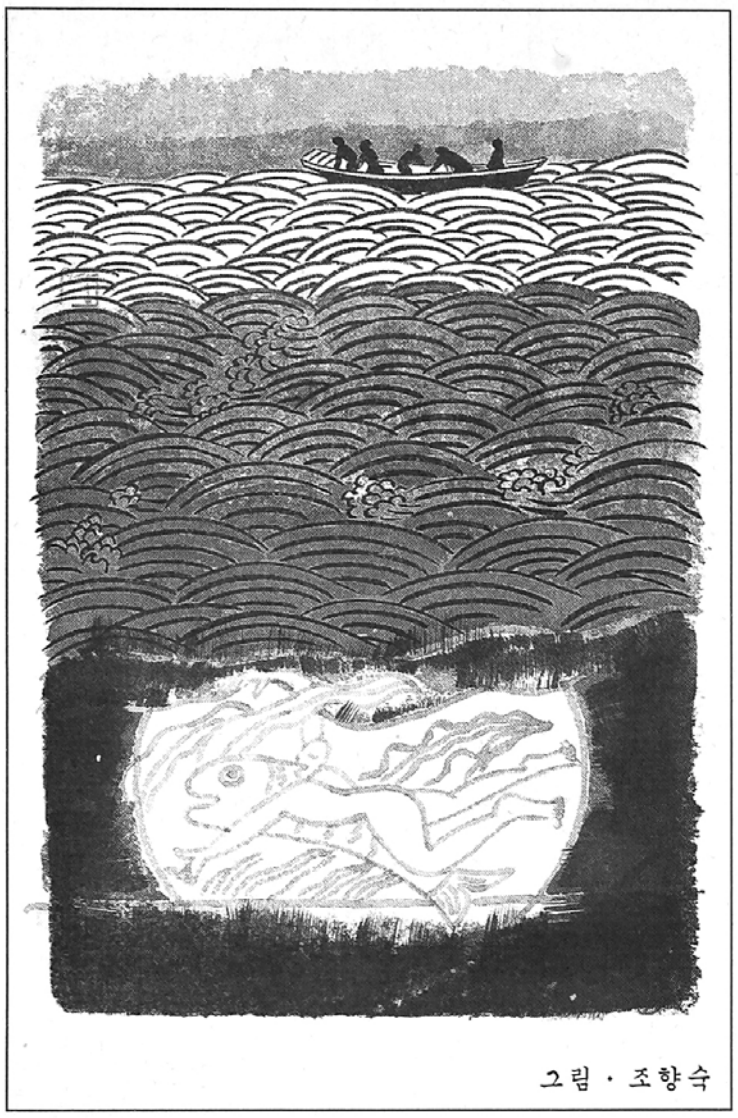


그림 · 조향숙

수장(水葬)의 날

인담이 허리를 굽혀 무전의 가슴에 귀를 기울였다. 가슴의 고동소리가 날 리 없었다. 얼굴빛이 굳어져 있었다.

만화가 그런 무전의 다리를 쭉 폈다. 뼈의 마디가 어긋나는 뿌드득 소리가 났다. 굳이 코구멍에 솜을 대어 솜털로 숨을 재볼 필요도 없었다.

"갔소."

인담이 무전의 죽음을 낮은 소리로 알렸다.

"바로 다비처(茶毘處)를 만들도록 합시다. 서쪽 기슭의 언덕을 잘 치우시오. 푸나무를 베고 다비에 쓸 화목을 만들어야겠어요. 마른 장작과 함께 쓰도록 대비하시오. 3일장으로 합시다."

무욕도의 비구 7명이 한 명의 시신 앞에서 마치 그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이끌어 내려는 것 같은 비장한 눈길을 서로 교차 시키고 있었다.

이 사실은 큰방 밖에도 그대로 연장되고 있었다. 밖에서 몇번인가 발을 동동 구르다가 진정된 합두가 가버운 한숨을 내뱉었다.

"이 섬에서 떠날 수 있는 길은 배를 타는 일 밖에 없다고 하더니 배도 없이 떠나셨습니다."

마치 누구에게라도 말하는 것처럼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을 들었는지 우녀가 막 나타나 합두의 어깨를 어루만져 주는 것이었다.

"무전스님의 입적(入寂)이십니까?"

"네에."

그때 인담이 방에서 나왔다.

그가 3일장의 화장(火葬)을 말하자 우녀가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스님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비식에는 많은 화목(火木)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지면 이곳의 나무들을 꽤나 잘라 써야겠지요… 그보다는…"

"그보다는?."

인담이 물었다.

우녀가 바다의 거칠어진 파도를 보고 있었다.

"이 바다에 띄워 무전스님으로 하여금 세상에 몸을 공양(供養)토록 합시다… 무릇 산 것은 죽는 것입니다. 거기에 조금도 어떤 정(情)을 기울일 것도 없습니다. 아마 무전스님의 뜻도 그러기를 바라는 것인지 모를 일입니다."

인담은 그 말을 듣고 난 뒤 한동안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의 옆 모습은 단단히 긴장하고 있었다.

"스님의 뜻대로 하시지요"라고 우녀가 양보하였다.

그때 인담이 그 자신의 생각을 포기할 수 있었다.

"아닙니다. 우녀스님이 무전스님의 발원(發願)을 잘 아신 것입니다. 3일장에는 변함없으되 바다 위에 무전의 영단(靈壇)을 짓도록 합시다."

그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다비처 만드는 일을 철회시켰다.

그러나 수장(水葬)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 만화였다.

"이 바다를 송장이나 떠 다니게 할 작정입니까? 고기들에게 먹이로 바치는 일이 아니라도 고기들은 얼마든지 제 먹이가 있습니다. 그놈들의 먹이사슬 가운데는 중의 송장을 뜯어먹는 것 없이도 원만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

"그럴 뿐더러… 저는 제가 다니던 물에 죽은 사람의 몸이나 내던지는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산마루의 정사(精舍)로 가서 묵언 공부나 하며 무전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때 우녀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약간 새된 소리로 말하는 것이었다.

"이 세상에 허공계만한 것이 없고 바다만한 것이 없습니다. 바다에 썩은 육신을 띄워도 그것까지를 짠물로 만드는 것이 바다입니다. 만화스님! 무전스님의 왕생(往生)을 위하여 우리 무욕도 회상이 가타부타로 시간을 보내지 맙시다."

불이가 말하였다.

"옛 천축에서도 화장 매장 조장(鳥葬) 수장이 다 있었습니다. 화장은 바라문들이 독차지하는 호화로운 장례였습니다… 수장을 우리 장례로 삼읍시다."

이윽고 만화가 그의 주장에서 물러섰다.

"정녕 그렇다면 그럴 수 밖에요…"

인담은 만화의 말 뒤에 무전을 위한 정진을 하기로 하였다.

관도방인 큰방에 불을 때지 않았다. 방의 윗목에 시신을 이불호청으로 덮어두었다.

그 시신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이곳의 사람들이 평시 그대로 들어와 있었다. 물론 우녀와 합두도 들어와 문쪽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았고 그녀들의 허리가 폭포의 부분처럼 곧았다.

그렇게 해서 시신과 함께 그들의 정진은 파도소리 밖에는 어떤 소리도 없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장례의 5방례(五方禮)도 없었다. 한 가운데 있는 노사나불도 동방의 만월세계 약사불, 서방의 아미타불, 남방의 환희세계 보승불, 북방의 무우세계 부동존불을 향해서 예경(禮敬)하여 영가(靈駕)를 천도해주기를 간청하는 예식 말이다.



27

시방세계(十方世界) 어디인들 극락이 없지 않으련만 여기서는 5방으로 집약하는 터이다.

그들에게는 이런 예식조차도 정진으로 메워서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그 정진을 멈추지 않은 표상을 낳고 있었다.

공양시간에만 두 여자와 남각이 후원으로 나가 있었고 하루에 한 끼니만으로 지내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배가 고파도 시신 앞에서 배고플 수 없는 육중한 비장감에 감싸인 것이 그들의 다문 입 속의 어둠 같은 정진이었다.

그 정진을 다만 밖에서 바라보자면 아무런 뜻도 먹여지지 않으리라. 그렇게 굴 먹은 벙어리가 되어 앉아있느니 차라리 윗목의 송장처럼 누워서 고이 잠이나 들을지니라 하고 비아냥대기에도 걸맞은 일이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다 굴비처럼 엮어다가 나라의 큰 공사에나 사역(使役)을 시킬 일인지도 모른다.

수월이 졸고 있었다. 그렇게 조느니 마당에 나가 수평선 위의 한 점 배의 출현(出現)이나 바라볼지니라 하고 멱살을 잡아 끌어낼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의 내면은 방금 터져나온 핏줄의 붉은 피와도 같은 맹렬한 추구(追究)의 힘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

건드리지 말라. 건들자마자 불길을 뿜어대는 만년(萬年)의 바위덩어리이니라.

이런 일촉즉발(一觸卽發)의 경계 가운데서의 정진이 바로 무전의 시신과 하나가 되는 순수한 무아(無我)인 것인가.

이렇게 사흘째가 되는 아침에야 무릎을 펴 바깥구경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으로 마음을 놓아버릴 처지가 아니었다.

먼저 바다 위에 띄울 배를 잘 정비해야 하였다.

> *"49재를 지낼때까지는 어디를 떠돌까요" "오늘이 49재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일은 이미 천고(千古)의 것인즉 언제 우리가 오늘의 일을 헤아릴 수 있겠소"*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천축 왕사성 밖의 시타림(尸陀林—寒林)에 시신을 놓아두면 독수리떼가 날아와 단번에 먹어치우는 조장(鳥葬)이 가장 적나라하다.

하지만 이 무욕도에서는 수장이 가장 어울린다고 우녀는 여겼다.

배는 노를 젓는 만화가 가만히 있어도 벌써 섬을 저만큼 두고 나아가고 있었다. 파도는 넓적넓적하였다. 그러므로 배도 완만하게 그런 파도를 타고 넘는 것이었다.

우녀는 문득 여기서 북쪽으로 가면 가장 험악한 물길인 황해도 장산곶의 앞바다에 공양미 3백석 때문에 치마폭을 쓰고 물속에 몸을 던진 처녀 심청의 죽음을 생각하였다. 그 처녀의 몸도 고기밥이 되었을 것이다. 그 고기들의 왕이 바로 수중(水中)의 용왕(龍王)이 아니던가.

배는 실컷 나갔다. 가능한 한 무욕도로부터 멀리까지 나아갔다. 돛은 조의(弔意)를 품고 반쯤만 올렸건만 거기에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이기보다 파도에 의해서 잘도 나아가는 것이었다.

배 위의 시신이나 사람들은 전적으로 그런 파도와 바람에 그 자신들을 의지하고 있었다. 누구 하나 입을 열지 않았다.

"여기면 되겠습니다."

라고 우녀가 돛을 내리게 하였다.

과연 물빛이 검을 정도로 짙었다. 바다에도 무덤자리가 있단 말인가.

오직 영가의 앞 수미산을 향할지어다
(但向靈前須彌山)

이라고 인담이 소리쳤다. 그 회향게(回向偈)의 소리가 끝나자 무전의 시신은 양쪽에서 들려 한번 뒤로 들어 올려졌다가 앞으로 훌쩍 던져졌다. 그 시신이 파도 속에 던져지면서 하마터면 배가 뒤집힐뻔 하였다.

그들은 시신이 물위에 떠오르든지 가라앉든지 더이상 거기에 있을 수 없었다.

> **"이 바다에 띄워 무전스님으로 하여금 세상에 몸을 공양토록 합시다. 무릇 산것은 죽는 것입니다. 거기에 조금도 어떤 정(情)을 기울일 것도 없습니다"**

인담이 배를 물 위로 밀어놓고 그 위에 사람들이 들고 온 무전의 시신부터 경건하게 올려 놓았다. 경건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지만 무엇 하나 경건하게 보이는 의식도 장식도 없었다. 그저 평소에 입고 있던 옷 그대로의 홑적삼과 바지인데 행건(行巾)만은 풀어버렸다.

합두는 섬에 남아있었다. 우녀는 그 배의 이물 쪽에 서 있었다. 그녀가 이 물의 장례를 인도하는 셈이었다.

인담이 파도 한 자락에 아랫도리를 적시면서 큰 소리로 시를 읊었다.

법신은 온 세계에 가득차서
인간과 천상을 금빛으로 비추나니
물 따라 달 그림자 못 가운데 나타나듯
바른 몸을 보연대(寶蓮台)에 앉히소서
(法身遍滿百億界
普放金色照人天
應物現形潭底月
體圓正坐寶蓮台)

만화의 노련한 솜씨로 배는 노를 저어가며 멀리 나와버린 곳에서 그들의 섬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였다.

우녀의 눈에 눈물 한 방울이 파도자락의 물 한 방울로 여겨지며 매달렸다가 없어졌다.

누군가가 말하였다.

"49재를 지낼 때까지는 어디를 떠돌까요?"

인담이 대꾸하였다.

"오늘이 49재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일은 이미 천고(千古)의 것인 즉 언제 우리가 오늘의 일을 헤아릴 수 있겠소?"

이 말에 사람들은 다시 입을 열지 않았다.

배가 무욕도의 선착장에 닿았다. 사람들은 배에서 내렸다. 그때까지 입은 닫혀 있었다.

봉 부처님 오신날, 온누리에 부처님 광명의 빛 가득하게 하소서 축

대한불교조계종
보현산 **보 현 사**
주 지도 완
신도회장 이 달 영
대 중 일 동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산544
☎ (0391)42—9437

청 룡 사
청룡유치원
주 지이진우
신 동 일 동
서울시 종로구 숭인동 17—1
☎ 744—6168

통도사 **부 산 포 교 원**
원 장 태 응
주 지 심 산
공창종합사회복지관
(부설)어린이집, 노 인 정
재 가 복 지 센 타
(포교원)부산시 진구 부전1동 390의 34
☎ 816—2241
(복지관)부산시 북구 금곡동 53의1
금곡주공1지구 1단지
☎ 361—2063

금강 아카데미
원 장 석 지 형
동 문 일 동
회 원 일 동
부산시 남구 대연동 172의 5
☎ 621—8548 621—8549

기 원 정 사
회 원 일 동
신 동 일 동
서울시 성동구 중곡4동 104—59
☎ 447—1344

사 천 왕 사
주 지현 능
노원구 상계6동 주공 3단지
일신플라자 401호
☎ 939—3900, 938—3900

학 림 사
조 실 송 월 주
회 주 최 도 원
주 지 석 덕 오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번지
☎ 936—1700,4100

무애원 포교당
원 장 셜 봉
신 도 일 동
서울 영등포구 신길 6동 3611
☎ 846—2156
강 화 무 애 원
경기도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사직골
☎ (0349)32—5087~8

불광불교미술원
대 표 박 갑 용
서울시 강동구 성내2동 136—6
☎ 485—2991

법 성 사
주 지이석천
신 도 일 동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2가 산23—14
☎ 651—4382

도 림 사
주 지정창교
신 도 일 동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76—75
☎ 815—6516

바른불교·실천불교
석 왕 사
조 실 오 고 산
주 지 임 영 담
사 부 대 중 일 동
경기도 부천시 원미2동 산29—30
☎ (032)663—7771~5

부산 삼광사 청소년 백일장 국민학교 운문부

부처님 오신 날

우수상 동상국교 5년 홍정아

오늘은 신나는 날
부처님을 만나는 날

예쁘게 차려입고
삼광사 절로…

"부처님, 부처님?"
어디에 숨으셨나
보이질 않네

가족등 표시에
메달려 계시는
부처님은 멋쟁이

언제나
황금옷을
입고 계시네

부처님, 부처님
영원토록
건강하세요

장려상 양덕국교 5년 양현미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
여기저기에서 등단다고 난리
소원성취하려고 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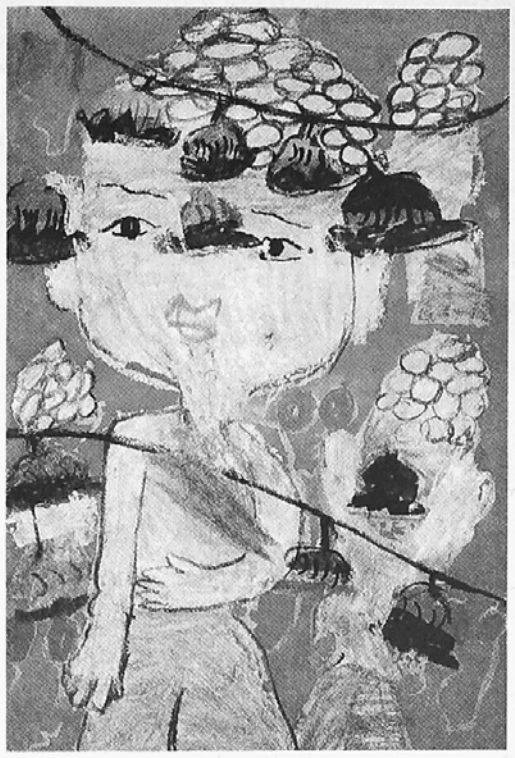
높은 곳에서보면 등들이
서로 잘났다고 잘난척을 한다
서로가 크다고 잘난척을 한다

부처님은 그런등들을
타이르시며 우리들을
보살펴 주신다

고마운 부처님
그런 부처님을 위해
신도들은 등을달아 고마움표시

부처님은 이런
우리 마음을 잘 아신다
너그러운 부처님

그래서 우리는
절을 믿고 따른다
우리마음을 훤히 아신다



어린이 부처님 그림 그리기 종합대상

'제1회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종합 대상에 뽑힌 황이슬양(탑신국교 2학년)의 그림.

동심에도 부처님 오셨네

전남 대둔사 나라사랑 글짓기대회 중학교 운문 금상

산사 (山寺)

송지중학교 3년 박수진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정성스러움으로 차곡차곡
쌓인 조그만 돌탑이 있습니다.

이 조그만 돌탑길이 끝나는 곳
여기에 마음이 열리는 평안함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고요함이 있는
산사(山寺)가 있습니다.

산사로 밀려 들어오는
따뜻한 바람에 고개드니
저 멀리 푸르고 푸른
산이 보입니다.
그 푸른 빛에 눈이 부셔
나도 모르게 눈이 감깁니다.

뜨거운 바람에 눈을 뜨니
햇빛을 받아 짙고 짙어진
산이 보입니다.
그 강한 모습에 나약해진
내가 싫어 몸을 돌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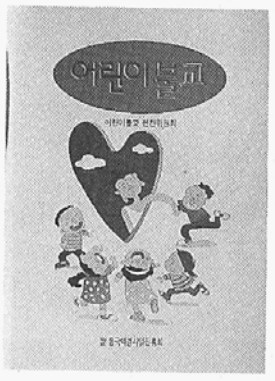
시원한 바람에 실려
몸을 돌리니 붉게 단장한
산이 보입니다.
그 아름다움에 초라해져
절로 몸이 움추려집니다.

날 비추는 빛에 놀라
몸을 찾히니 백옥같은
산이 보입니다.
하얗게 반짝이는 산의 순결함이
나로 하여금 고개 숙이게 합니다.

이 산은 그 자신으로
하여금 나 자신을
감동받게 하고
나약하게 하고
초라하게 하고
반성하게 합니다.

발걸음을 돌려 돌아가는
돌탑길의 수많은 돌위에
나의 소망과 정성을 모두 담은
돌하나를 조심스레 쌓습니다.

먼 훗날
산사(山寺)에서 느낀 향기와
산의 모습을 나 자신에게서도
찾을 수 있길바랍니다.



"부처님이란 '진리를 밝게 깨달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눈이 열려질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날과 어린이날을 맞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린이들에게 선물하는 책이 나왔다. 동국역경사업진흥회(이사장 강석주)에서 펴낸 〈어린이 불교〉.

능관스님과 김원각 시인, 역경위원인 신정균 박경훈씨 등이 함께 만든 이 책은 '부처님의 생애'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 '진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 '세상을 살아가는 길' '어리석음을 깨우쳐주는 이야기'로 구성했다.

어린이들의 언어생활에 맞는 수운 문장으로 서술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꾸몄으며, 4색컬러 화보를 넣어 지루함을 덜도록 배려했다.

석주스님은 머리말에서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 가운데서 마음의 보배가 되고 생활의 지혜를 열어주는 글들을 가려뽑았다"고 소개하고 "이 책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고 아득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삶속에 있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초파일에 새로나온 책 '어린이 불교'

부처님 생애와 가르침 동자들에게 '마음보배'

만 화

法句經 법구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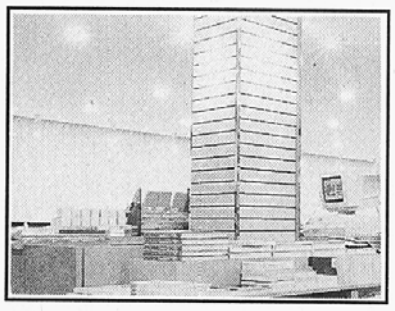
* 어진이의 장 *
착한 벗과
기끼이 사귀고
어진 이를
가까이 섬기라

이 항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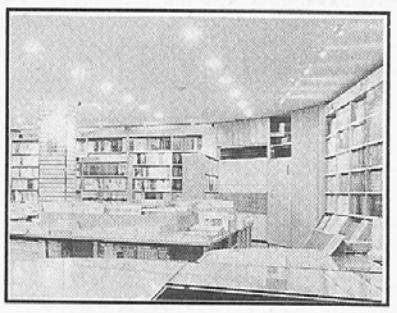


불음가득 · 법향가득

책방 여시아문으로 오십시오



· 저자와의 만남(격월)
· 계절별(분기별) 책잔치 개최
· 통신판매—전화, 팩스 주문 가능
· 컴퓨터를 이용한 편리한 도서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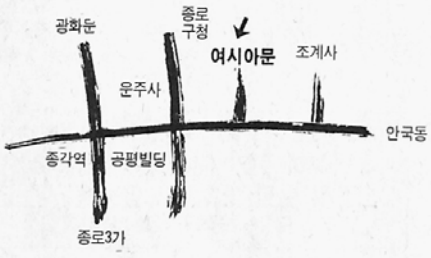


·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5천 여종, 3만 여권)
· 불교관련서적(역사, 철학, 사회과학 등 망라)
· 영인본, 희귀본, 절판본, 열람 가능
· 편리한 도서안내
· 편안한 독서 공간
· 도서상품권 취급



· 도서회원제 운영 (1995. 4. 1.부터 시행 예정)
회원특전
· 현대불교신문사, 도서출판 여시아문 발행도서에 대한 회원 우대 사은권 제공
· 소식지를 통한 도서 정보 제공
· 통신 주문
· 전화 도서 목록 검색 서비스 (737-0695)
· 책방 여시아문 · 현대불교신문사 주최 행사 우선 초대

오시는 길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전화(대표) 737-8881 (서점직통) 737-0695 / 팩스 737-0696 / 교통편 전철 : 1호선 종각역, 3호선 안국역 / 버스 : 32, 59,84,159,331,588-2번

화 제 의 책

큰 죽음의 법신 — 석지명 지음

업장 소멸·열반의 길 등 쉽게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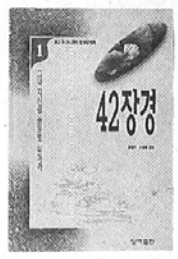
불교방송 '불교공부' 강의 내용을 묶은 열반경 강의록. 열반경의 핵심은 법신상주(法身常住) 실유불성(悉有佛性) 즉, 법신이나 불성이 부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아귀·축생·아수라·인간 등 여 똑같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길을 닦고 부처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부처라는 것이다.

〈큰 죽음의 법신〉은 열반경의 이같은 핵심사상을 경전을 토대로 밝히는 한편 자구풀이식의 강의방법을 탈피, 우리들의 삶속에서 비유를 찾아 '법신상주 실유불성'의 가르침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열반경의 종류' '열반 전후 과정의 사실적 묘사' 등 9개장과 120개의 이야기들로 구성돼 경전 강의가 갖는 지루함과 난해함 근엄함을 최소화해 불교를 모르는 일반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꾸몄다.

저자는, 업으로 된 나를 과감히 벗어버리는 것을 '큰 죽음'이라고 설파한다.〈불교시대사, 9천5백원〉

42장경 — 라즈니쉬 강의



수행자들의 장애 극복하는 지혜

42장경을 내용에 따라 '무(無)만이 존재한다' '수행을 넘어선 수행' '영적 깨달음' 등 11개 항목으로 나눠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 설명한 경전강의서.

라즈니쉬가 강의한 〈42장경〉의 텍스트로 사용된 42장은 인도승려들이 중국인들에게 부처님과 불교를 소개하기 위해 만든 시편집 형식의 경전이다.

이름 그대로 42개의 장으로 나누어 불법의 요지를 설했다.

42장경의 중심사상은 욕망과 집착을 끊어야 열반에 이른다는 것. 라지니쉬는 이 가르침을 적절한 예화와 자신의 명상적 깨달음을 얻은 지혜로써 설명하고 있다. 즉, 구도자들이 빠지기 쉬운 숱한 장애물과 그 장애물을 뛰어 넘는 '초월의 예술'을 설파한다.

각 장마다 충실한 역주(譯註)를 달아 불교에 전혀 낯선 독자라도 쉽게 접할 수 있다. 황광우·이경욱 옮김.〈성하, 7천5백원〉

삶에서 깨어나기 — 틱낙한 지음

호흡 명상통한 마음계발 지침서



여러가지 일화와 실제 경험을 토대로 일상생활에서의 호흡명상법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삶에서 깨어나기〉는 저자인 틱낙한스님이 망명지인 프랑스에서 베트남청년사회봉사단의 주요간부였던 광 형제와 그의 동료들에게 보낸 편지를 묶은 것으로, 원제는 〈기적의 관(觀)명상〉.

이책에서 틱낙한은 전쟁의 암울한 시기에 놓여있는 그들에게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용히 깨어있는 마음을 계발, 발전시키기 위해 자신의 호흡을 지켜보는 근본수행을 게을리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이 책의 뒷부분 '금강경'은 저자의 금강경 주석서로, 공동체와 가정생활, 부부관계, 사회봉사활동 등의 예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 자신의 경험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양미성 옮김. 〈장경각, 5천5백원〉

한국불교의 밀교적 특색 — 홍윤식 지음

밀교에 대한 바른이해 자료제시



밀교를 일반적으로 다신교적 민속불교로 인식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밀교가 지닌 상징체계와 심오한 심비주의(深秘主義)에 대한 진지한 이해는 그흔히 하는 경향이 크다.

〈한국불교의 밀교적 특색〉은 이같은 인식을 일소하는 한국불교에 대한 전혀 새로운 해석서이다. 저자는 이책에서 한국불교의 저변에는 밀교적 요소가 근본적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준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이 선종적 전통을 표방하고 있지만, 신앙의례에서는 밀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저자는 특히 불국사와 석굴암의 건축 양식에서 밀교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불교의례의 내용구성이 대부분 밀교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삼국유사〉〈고려사〉그리고 조선시대에 간행된 진언집과 각종 의례집을 근거로 밝혔다. 〈만다라, 3천5백원〉

새로나온 책



▲사명대사(권상로 지음)=조선왕조실록 사명집 등사열전 등에 나타난 사명대사 관계기사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명대사 일대기. 부록으로 임진왜란 당시 조선과 일본군의 개황을 실었다. 〈이화문화, 8천원〉

▲대지관좌선법4(천태지자 지음)=중국 천태지자대사의 '마하지관'을 번역한 것으로, 지관의 바른 수행을 실었다. 김무득 주석. 〈운주사, 8천원〉

▲열반의 노래(김원환 지음)=성철 효봉 마조 다꾸앙 등 한국 중국 일본의 역대 큰스님 90분이 남긴 임종게와 출가기를 원문과 함께 싣고 해설을 붙였다. 저자는 조계종 수선회 부회장. 〈한아름, 8천원〉

▲병원법당(동출 엮음)=부처님의 가르침과 불교의학, 기도로 병을 극복한 이들의 신행수기와 환자들과의 신앙상담, 환우를 위한 기도방법, 부처님의 의료정신 등을 주요내용으로 묶었다. 〈솔바람, 법보시〉

▲충각스님, 요즘 뭐하세요(혜민 지음)=도봉산 무문관에서 정진하고 있는 저자의 에세이집. 자유를 향한 20여년간의 고뇌와 방황과 문득문득 찾아드는 희열이 담겨있다. '새벽도량의 노래' 등 45편의 글을 실었다. 〈들녘, 6천원〉

▲솔바람 허허로운 깨달음의 뜨락(양효숙 지음)=사경공덕원의 법종스님 지도로 사경수행을 하며 그때그때 써둔 발원문을 모았다. 〈사경공덕원, 3천5백원〉

▲전등록1(문재현 옮김)=과거7불을 비롯 역대 조사와 성인들의 깨달음과 교화의 발자취를 기록한 경덕전등록 30전 가운데 1~8권을 번역했다. 이후 5권으로 완역, 발행된다. 1986년 발행된 대만판을 텍스트로 사용했다. 〈바로보인, 1만원〉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조선 불교 통사' 한글본 나온다

〈삼국유사〉 이래 한국불교사 서술의 불후의 고전으로 평가되는 〈조선불교통사〉 전3권이 한글로 번역, 출판된다.

불교영상회보사(대표 최석환)는 2억원의 예산을 들여 년차적으로 본문 10권, 원문·색인 2권으로 펴낼 것이라고 밝혔다. 번역은



◇운제 스님

할 문헌자료가 빈약한 현실에서 이 책의 번역·출판은 불교학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불교영상회보사 2억원 투자

조선불교통사 상권 '불화시처(佛

운제스님 번역…12권중 올 4권 출간

건국대 사학과교수와 태고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운제스님이 하며, 이미 번역작업에 들어가 올해안에 4권을 펴낼 계획이다.

〈조선불교통사〉는 근대의 불교학자 이능화(1868~1943)의 저작으로, 모두 2천3백여면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에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우리나라 불교사를 총정리하고 있다.

1918년 신문관에서 발행된 〈조선불교통사〉는 자료적 가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완역은 없었으며, 지난 80년 박영사에서 상권만이 번역된 적이 있었다. 영인본은 보련각 경희출판사 중앙대 한국학연구소에서 펴냈다. 한국불교사를 서술

化時處)'는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해진 역사를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총독부시대로 나누어 기술했다. 특히 상권에는 '조선인이 설립한 사찰·선원 및 승니수표'와 '조선사찰 선교양종 30본사 및 그 소속 말사'를 수록해 근대 한국불교의 상황을 알 수 있게 했다.

중권 '삼보원류(三寶源流)'는 붓다가 멸도한 후 행해진 결집과 경론의 번역, 장소(章疏)의 저술 및 여러 유파의 생성과 전승을 서술했다. 하편 '이백품제(二百品題)'는 한국불교에 관한 온갖 항목을 해설한 것으로, 상권에 나온 사건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정성운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역자	출판사
1	삶에서 깨어나기	틱낙한	장경각
2	금강경 강의	무비	불광
3	선 100문100답	진제	파란나라
4	마음의 향기	석성우	토방
5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서서	최순우	학고재
6	알기쉬운 불교	권성부	불교방송
7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일타	효림
8	어린이 팔만대장경	신현득	현암사
9	차크라바르틴	성낙주	살림
10	재미있는 불교강좌	신지우	불교시대사

구입문의:(02)737-0695

명사추천 불서100선

韓國近世禪家文學

근세에 해당하는 15~16세기는 불교적 이념이 성리학에 의하여 대체되는 사상사적 일대전환기였다. 이 시기의 불교문학은 그나름의 제약이 뚫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호불적인 군왕과 后妃의 출현으로 불교의 맥이 아주 끊이지는 않았다. 공식적인 배불정책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佛事가 이루어졌다.

가혹한 탄압 속에서 오히려 자생력을 키워가는 종교 고유의 역동적 속성 때문에도 조선의 불교는 배불의 시련으로 쉽사리 좌절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는 우리 문학의 '수단'인 국자를 창안해 가진, 문화적으로 중요한 시기이며, 또 탄압 속에서도 굽힘 없이 자기 세계를 확립해간 불교문학이 주요한 논의거리를 제공해 준 시기이기도 하다.

과연 그와 같이 중요한 시기의 불교문학 내지 선가문학이 진지하게 논의되었는가 하면 거기에 회의가 없지 않다. 최근에 효용론' '시의 풍격과 묘오론(妙悟論)', 보우는 '형상과 가치' '부정의 문자', 휴정은 '교(敎)와 문학적 효용성' '문학원류와 선(禪)'을 각각 논의거리로 삼았다. 소설작품을 남긴 김시습과 보우에 대하여는 그 작품구조와 작가의식 및 작품의 사상을 살폈다. 보우의 '왕랑반혼전'에 관하여는 서지적 고찰로써 원전을 해명하고, 이본의 계통을 밝혔다.



황 패 강
(단국대 명예교수)

김시습·보우·휴정스님 작품에 나타난 禪사상 고찰

일부 연구자에 의하여 이 분야의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 영성한 연구풍토 속에서 지난 70년대 중반부터 20년간 불교문학 특히 선가문학연구에 관심을 경주해온 서규태씨의 학구적 노력은 소중하다 아니할 수 없다. 지난해 10월 서씨는 그간의 연구결과를 묶어 〈韓國近世禪家文學〉이란 노작을 내놓았다. 이책은 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보완한 것이다.

본저는 김시습·보우·휴정등 3인을 대상으로 삼아 근세 선가문학을 해명하고, 각자의 선가적 의식의 본질을 따졌다. 그리하여 김시습을 '행유적불(行儒迹佛)', 보우를 '현실참여(現實參與)와 역사의식(歷史意識)', 휴정을 '선가적 실천윤리'면에서 파악하고, 그것이 각자의 문학사상으로 구현된 바를 실증적으로 해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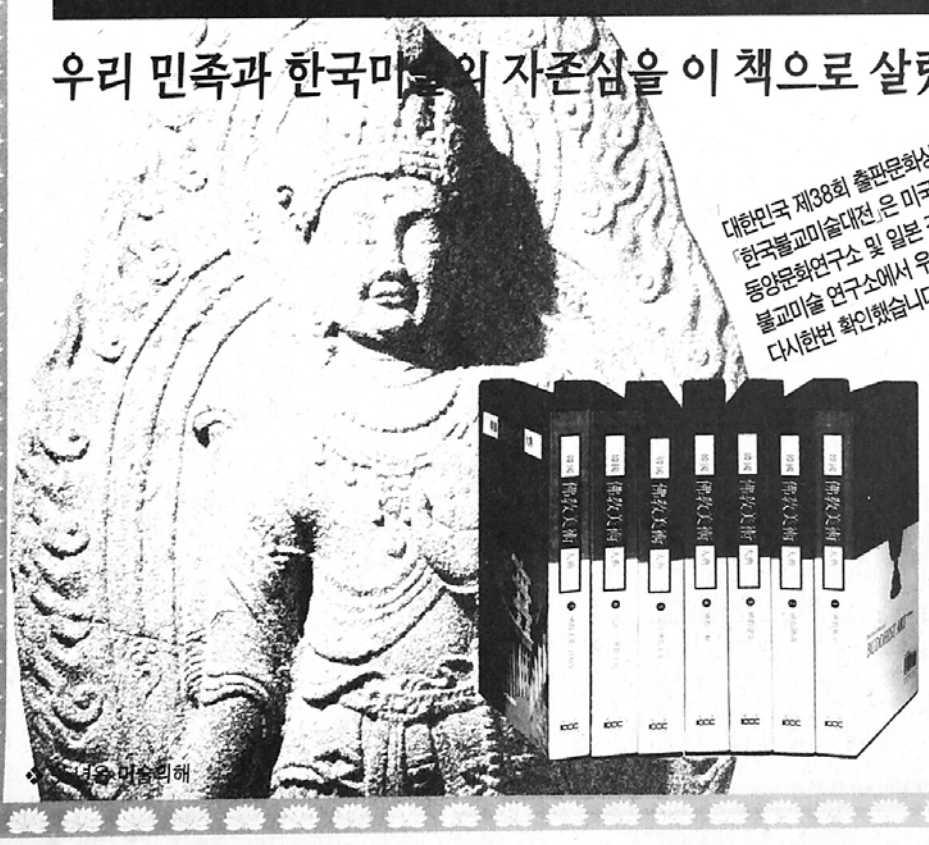
김시습은 '문학의 원류와

이들은 선시의 대가로서 김시습은 '이상과 묘오의 추구', 보우는 '시사(詩思)와 선심의 문자'로 들어가 '시사와 세정의 형상화' '산거와 선심의 문자', 휴정은 '자연과 오도송'으로부터 '운수(雲水)와 성정의 수화(酬和)' '자연의 의미와 상징성' '청허한 금강심의 오도성'등으로 파악하여 근세 선가문학의 문학사상사적 의의의 대강을 들춰냈다. 특히 휴정에 관하여는 선가문학을 심화, 발전시켜, 한국선가문학사에서 근세와 다음 시대를 잇는 교량의 구실을 했다고 평가하였다.

언필칭 '선(禪)'이요, '선문학(禪文學)'이라 할 때 '문자'의 학(學)으로는 한계가 있다. 일반 통상의 논리 이상에, 또 문자나 언설의 저편에서 자득 않아서는 안될 의미가 있다. 그 선미를 찾아 옛 구도자인양 총(叢)과 림(林)을 헤매봄직하다.

韓國佛教美術大典

우리 민족과 한국미술의 자존심을 이 책으로 살렸다!!



대한민국 제38회 출판문화상에 빛나는 「한국불교미술대전」은 미국 하버드 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및 일본 경도대학 부설 불교미술 연구소에서 우리문화의 역량을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 한국 불교미술 집대성.
■ 팔만대장경 이래 한국불교문화사 최대의 불사.
■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문화 불교미술
■ 국문판에 이어 일어판, 영문판도 곧 이어 발간.
■ 한국출판사상 보기드문 대기획에 최고급 인쇄.

○ 8절판(26.5×36㎝)의 초대형크기
○ 각권 312~376페이지의 올컬러 인쇄
○ 본문 180g의 스노우화이트지 사용
○ 호화양장제본에 낱권케이스, 금박 포클로스
○ 정가 630,000원(전7권)

韓國佛教美術大典 중요내용

① 佛教彫刻 —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불교조각사와 함께 컬러도판을 싣고 도판해설을 하였다.
② 佛教繪畵 — 한국불교회화를 학술적으로 정리하고 컬러도판과 함께 도판해설을 실어 이해를 도왔다.
③ 佛教建築 — 사찰의 건축과 함께 불탑, 부도, 불비 등 불교건축을 논하고 컬러도판과 도판해설을 실었다.
④ 佛教工藝 — 불교의 공양구, 의식구, 사리기, 기와 등의 불교공예품을 서술하고 컬러도판과 도판해설을 실었다.
⑤ 現代佛教美術 — 오늘날에 제작된 대표적 불교미술품을 게재하고 대표적인 불교미술가를 작품과 함께 소개하였다.
⑥ 世界의 佛教美術 — 우리나라와 함께 불교미술이 발달된 인도, 중국, 일본, 몽고, 동남아 제국의 불교미술의 컬러도판으로 소개하였다.
⑦ 佛教美術資料集 — 불교미술에 필수적인 불교미술용어사전과 함께 불교미술품의 실측도와 각종 문양을 실었다.

현대불교 구독자 사은행사로 선착순 100명에 한하여 전권 630,000원을 490,000원에 현금 및 할인 분할해 드립니다.
법보시용으로 최적입니다.

주문처
현대불교신문사 사업부
TEL:(02)737-0695
FAX:(02)737-0696

공급처
(주)한국색채문화사
TEL:(02) 333-0051
FAX:(02) 338-7781

만나봅시다—조각전 여는 황지우 시인

불심·시심 조형언어로 조화

9일~21일 학고재 화랑서 20여작품 전시
조각시집 '저물면서 빛나는 바다'도 펴내

83년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로 시단에 충격을 던져줬던 황지우씨(서울대 미학과 교수)가 2년간에 걸친 조각작업을 관훈동 학고재 화랑에서 선보이고 있다.

9일부터 21일까지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 전시에서는 '우상시대의 자화상'과도 같은 황씨의 조각작품 20여점을 만날 수 있다. <작품사진 16면>

"근래 몇년 동안 도무지 글이 씌어지지 않았습니다. 생(生)을 몽땅 탕진해 버린 것 같은 고갈의 느낌이 나를 결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황씨의 조각에 대한 몰입, 그러니까 그 '엉뚱한' 작업은 스스로의 공허감을 이겨내기 위한 필사의 노력이란 설명이다.

이 전시회에 내놓은 작품중 '해인(海印)'과 '저물면서 빛나는 바다(1)'은 황씨의 불교적 심미안을 잘 보여 주고 있다. 해가 지는 서해바다, 그 위에 눕혀진 불두(佛頭)는 율고 있다. 부처님의 눈물로 가득찬 바다 위로 해가 지는 모습을 통해 황씨는 저물면서 빛나는 바다를 지키고 있는 셈이다.

황씨의 시가 인간의 삶 속의 가장 가까운 것에서 출발되었듯 그의 조각작품도 보다 원형적인 것에서 시도된 것들이다. "가장 가까운 것에서 먼 것을 찾으려 했을 뿐"이란 황씨의 의지는 '가슴과 등의 거리는 지구를 한바퀴 돌아온 거리'라는 등식을 연상시킨다. 그런 황씨의 상상력이 작품 '해인'에서 미환사 대웅전을 육체적 갈등(배설, 성욕, 수치심 등)의 이미지로 대치시키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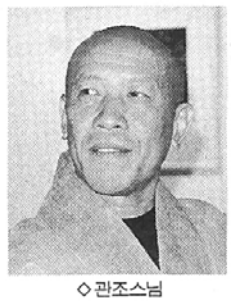
황씨는 이번 전시와 때맞춰 조각작품과 시를 묶은 조각시집 〈저물면서 빛나는 바다〉도 펴냈다(학고재, 1만2천원). 2년의 작업을 세상에 내놓은 황씨는 전시준비에 지쳤다며 장례식을 준비한 느낌이란 극단적인 피로감도 내보였다.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면 치를수록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몇번을 더 죽어야 그 닭은 것이 올라 올런지…."

〈임연태 기자〉


◇조각으로 새로운 예술영역을 다지는 황지우시인.

사찰 건축美 렌즈에 담아
관조스님, 18일까지 서남미술관


◇관조스님

"사진은 문맹자와 어린이는 물론 외국인에게 언어의 장벽을 넘어 그 나라의 문화와 자연을 얘기하는 가장 광범위한 집합언어죠"

15여년간 승가의 일상생활과 자연미학을 영상예술로 표현해도 관조스님이 오는 18일까지 서남미술관에서 사찰주위 자연의 아름다움과 한국사찰의 화려한 구조 장엄을 선보이는 7번째 불교사진전을 갖는다. <작품사진 16면>

스님은 사진이 가장 보편적인 포교방법이라는 생각으로 〈승가1〉〈승가2〉〈열반〉등 7권의 사진집 발간에 이어 우리문화보기 시리즈 첫째권 〈대웅전〉을 발간했다.

"전통사찰 건축구조는 한국 미술사를 대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역사적 흐름속에서도 방치돼 사라져가는 불교문화를 한컷 한컷 소중히 담아 묻혀 버릴 수 있는 불교문화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합니다."

18개 전국 대소사찰 대웅전 건축이 보여주는 구조장엄을 해부학적으로 포착한 사진 95점을 담고 있는 사진집(116면)은 전면 컬러판으로 국·영문 해설까지 곁들여져 있어 해외에 불교문화를 알리려는 스님의 굳은 의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

스님은 이 한권의 사진집으로 독자들에게 묻고 있다.

"한국사찰 건축구조의 처마, 추녀밑 공포, 닫집, 조각상, 천장, 벽화에 내포된 부처님의 진리가 보이세요?"

〈도필선 기자〉

가야산 4계절 유화전
최학노씨 10일부터 덕원미술관

가야산 해인사를 유화로 그린 최학노씨의 작품이 10일부터 16일까지 인사동 덕원미술관(723-7771)에서 전시된다.

「가야산 해인사 풍경」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에서는 해인사의 4계절을 환상적인 기법의 붓터치로 느낄 수 있다.

가야산 전경과 해인사 일주문, 탑돌이 등을 캔버스에 담아낸 최학노씨는 "가야산 해인사 풍경전으로 나 개인에게 부과된 책무를 가름해 본 다"고.

최씨는 24일~29일까지 대구 대백 프라자에서도 전시를 갖는다. <작품사진 16면>



1936년 초파일… 은해사의 연극공연

60년전인 1936년 영천 은해사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대중포교를 위한 공연을 했다. 사진의 2963년은 북방불기로 지금 사용하는 불기로 따지면 2479년에 해당된다. 공연의 내용은 확실치않지만 일본식 의복과 한·일승려, 예술단의 모습이 보인다.〈사진제공·장한기교수(동국대)〉

36개단체 1천2백여명 佛音합창제 "환희심"


김정자씨 불교합창단연합회장

"뜻깊은 자리에 부처님의 법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단원 모두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지난 29일 여의도광장에서 형형색색의 고운 한복차림에 불음을 전한다는 자긍심으로 뚤뚤 뭉친 36개 단체, 1천2백여명 합창단원의 목소리를 한데 엮어낸 불교합창단연합회 회장 김정자씨.

"5만 불자가 한데 모인 곳에서의 단원들의 노래는 제등행렬에 나서는 불자들에게 법열을 가득하게 채우는 동시에 삶에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의 가슴을 촉촉히 적시기에 충분했으리라 생각됩니다"고 그날의 환희심을 전한다. 〈필〉

경북문화재 圖錄 출간
1천5백여점 집대성

경북전역의 문화재 1천5백여점을 컬러사진과 자료로 집대성한 '경북문화재도록(圖錄)'(동해문화사 펴냄)이 출간됐다.

2년여에 걸친 준비작업끝에 지방 문화재도록으로서는 처음 나온 이 책자는 분포 지역별로 국가지정문화재등 설명을 곁들인 원색 도판, 영문도판 등과 함께 싣고 있다.

부처님 그리기 대회
6백여 어린이 참가

월간 '불광'과 목아박물관이 공동 주최한 제1회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림그리기 대회가 지난 5일 경기도 여주 목아박물관에서 열렸다.

'부처님이 좋아요'를 주제로 전국 어린이불자 6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는 서울 탑신국교 2학년 황이슬양이 종합대상을 받았으며 서울 동북국교 4학년 윤태흠군이 대상을 받았다. <종합대상작 작품 11면>

성우스님 인도기행 시집
'연꽃 한송이' 출간



풀잎 하나에도 인연이 있음을
실감하겠구나

그때 마야부인이
무우수 나뭇가지 붙들고
아기를
낳으셨으니 그 일로하여
뭇 중생들이 성지라 이름하누나.

성우스님은 부처님의 탄생지 룸비니동산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스님이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펴낸 시집 〈연꽃 한송이〉(불광출판부)는 인도성지를 다니며 느낀 단상들을 시어로 엮어놓은 것.

"누구나 삶은 번뇌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스님이 이 시집을 낸 동기이다.

지범스님 찬불명상곡 '울려퍼진다'
21일 제주 문예회관

지범스님의 다섯번째 음반 '님께로 가오니' 출반기념 찬불명상곡 발표회가 오는 21일 오후3시 제주도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발표회에서 지범스님은 새 음반에 담은 노래들을 부른다. 또 연꽃합창단, 우담바라어린이합창단과 불자가수 한명숙, 하윤주, 조영근씨가 우정 출연한다.

우수작 3편 발표
성철스님 사리탑 공모

성철스님사리탑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월주스님)는 지난해말 성철스님 사리탑 설계을 공모, 지난 1일 입상자를 발표했다.

총 22개 접수작품중 당선작 없이 △김춘배((주)건축이상) △우경국(예공건축) △정기호(성균관대 조경학과)가 우수작에 선정.

성철스님사리탑건립추진위원회는 "설계공모의 취지에 못미치는 작품이 다수로 당선작없이 우수작 3편과 가작 2편만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정숙·방자경씨 선정
불교아동문학 신인상

한국불교청소년문화진흥회(이사장·박용열) 산하 한국불교아동문학회의 제2회 불교아동문학신인상에 방자경씨와 박정숙씨가 각각 선정됐다.

목어의 새로운 해석
김한창스님 조각전

회화와 조각으로 불교의 정신을 전달하고 있는 김한창스님의 조각전이 3일부터 16일까지의 일정으로 관훈동 백상갤러리(720-8114)에서 열리고 있다.

「魚山-다라니」를 주제로한 이번 전시에서 스님은 목어를 변화시킨 이미지가 강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 16면>

현상공모 입상자 발표
찬불가 제정위원회

대한불교찬불가제정위원회(위원장·정용우)는 제4회 찬불가, 불음가요, 불교동요, 관소리 사설 가사 현상공모 입상자를 발표했다.

△찬불가부문: 서화진(새벽염불), 박해영(회향의 노래) 김명옥(반야의 노래) △불음가요부문: 한재수(부처님 은혜), 전화진(속리산) △불교동요부문: 남미숙(우리 유치원), 인금숙(봄이 왔어요), 김미영(불교유치원), 김옥애(연못가에서).

은석국교 김종민군 대상
서울불청연꽃노래잔치

대불청직할서울불교청년회(회장 성무경)가 지난 30일 개최한 제7회 연꽃노래잔치를 개최, '부처님이 그리워'를 부른 은석국교 김종민군이 대상 봉축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총 1백70명이 참가한 이날 노래잔치에서는 정각사 심민진양, 은석국교 김미리내양이 각각 금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통민속 '만석중 놀이' 서울놀이마당서 재현

전통민속놀이 '만석중놀이'가 지난 6일 서울놀이마당에서 재현됐다.

만석중놀이는 고려시대부터 부처님 오신 날 연등행사가 끝난 후 펼치던 일종의 그림자 인형극으로 전통극 공연단체 '우리마당'이 기획, 재현하게 된 것. 이날 공연은 민속학자 심우성씨에 의해 처음 발굴한 것을 재현한 것으로 만석중(卍釋僧)과 십장생, 용, 잉어 등이 차례로 등장하고 퇴장하면서 공수레공수거 인생의 무상함과 불교의 윤회사상을 표현하고 있다.

우리마당의 이번 공연은 83년 심우성씨의 첫 재현이후 해인사 초청공연, 일본 오오사카 국제인형극제초청 공연에 이은 네번째 공연.

으 뜸 공 양

군·경찰·병원 등에 현대불교신문을 보냅시다

법공양을 받으시는 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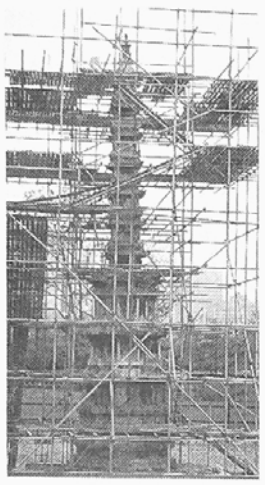
▸마산시 국립마산결핵병원 관해사 ▸창원시 경남지방경찰청 경승실 ▸파주2포대 최철규 ▸파주 황세진 상병 ▸파주 이장 상병 ▸원주시 시립복지원 ▸김천시 백준목 ▸대전시 오진수 ▸양주군 이도한 ▸광명시 양광모 ▸안성군 한상열 ▸종로구 박영배 ▸서초구 이윤숙 ▸인천시 석재원 ▸해외 리승준 ▸구로구 김유희 ▸부안군 김은철 ▸송파구 김성윤 ▸용산구 정창명 ▸성북구 원륜스님 ▸성남시 김명주 ▸안산시 박정은 ▸수원시 신종일 ▸진해시 정기룡 ▸부산시립박물관 나동복 ▸관악구 장영석 ▸서초구 송연희 ▸청주시 박영춘 ▸진주시 정정백 ▸서초구 장성옥 ▸성북구 주한수 ▸남양주시 907부대 ▸서초구 신상아 ▸서초구 박은혜 ▸서천군 구자호 ▸부산시 김종옥 ▸부산시 이경옥 ▸부산시 박행련 ▸구미시 이창헌 ▸구로구 강일규 ▸성북구 김선재 ▸성북구 이은영 ▸성북구 이정자 ▸용산구 박치현 ▸중구 박세정 ▸대전시 박홍구 ▸대구시 박성형 ▸종로구 박민식 ▸부산시 박남수 ▸부산시 박희영 ▸청주시 박래철 ▸경주시 박재우 ▸송파구 박준형 ▸강동구 박광석 ▸동대문구 박병식 ▸중구 박영수 ▸과천시 박인각 ▸송파구 박인규 ▸도봉구 박승복 ▸대전시 박종회 ▸인천시 박인훈 ▸창원대 불교학생회 ▸성동구치소 손후익

법공양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

▸신정숙 2 ▸백숙자 4 ▸유현숙 4 ▸이지숙 2 ▸이희정 2 ▸이성옥 1 ▸정낙순 1 ▸이원상 2 ▸진원 스님 4 ▸김영정 4 ▸정창영 2 ▸김민국 12 ▸김상영 15 ▸한상민 10 ▸정상열 20 ▸여화영 1 ▸김종백 1 ▸안상호 1 ▸한마음선원 울산 지원 30 ▸김정호 4 ▸유성숙 2 ▸정은엽 1 ▸윤숭열 40 ▸정성호·이경미 5 ▸김용각 60 ▸정자경 4 ▸고성일 20 ▸홍영자 16 ▸홍일표 1 ▸조정희 2 ▸송연숙 4 ▸전민선 10 ▸신영진 4 ▸윤서원 5 ▸이영희 15 ▸김성 4 ▸김은주 4 ▸정영도 1 ▸박준영 1 ▸혜솔 스님 3 ▸최영봉 4 ▸박재원 6 ▸이형호 4 ▸최창숙 1 ▸주용원 2 ▸설진웅 1 ▸박향옥 6 ▸양세모 3 ▸김희자 4 ▸양정록 5 ▸김추자 5 ▸김덕순 2 ▸김경숙 1 ▸김영수 3 ▸복덕규 2 ▸한마음선원 부산 지원 2 ▸심진회 5 ▸박덕희 1 ▸허선향 2 ▸김남경 5 ▸김치훈 5 ▸서송자 5

총: 398구좌

• 보시 중의 으뜸은 법보시, 법보시에 동참해주시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천사 10층석탑 보수

문화재관리국은 지난 1일부터 경복궁내에 있는 국보 제86호 경천사10층석탑(敬天寺十層石塔)을 국보로는 처음으로 전면 해체 보수작업에 들어갔다.

모두 39단의 돌(높이 13.5m)로 이루어진 이 탑은 오는 10월8일까지 52개 부분으로 해체돼 문화재연구소 뒤에 건축중인 보존처리실에 보관된다. 문화재관리국은 경천사10층석탑에 이어 보물 제225호 신륵사다층석탑등 8건을 올해안에 전면 해체, 보수에 나설 예정이다.

진신사리등 5백여점 '한자리'

팔상도·패엽경·성철스님 유품등 '볼기회'

세계불교문화전

용인자연농원서 내년 1월31일까지

인도 델리박물관에서 이운된 부처님의 진신사리등 7개국 5백여점의 유물이 한자리에 모였다. 불교방송과 중앙개발이 공동주최하는 세계불교문화대전이 지난 2일 오전 11시 용인자연농원 특별전시관에서 개관식을 가졌다. 〈사리 사진 16면〉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중앙개발 허태학 대표이사, 국회정각회 권익현회장, 샤산크 인도대사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관식은 경과보고와 불교방송 합창단의 축하공연, 진신사리 봉덕의식, 데이프 커팅, 전시품 관람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에앞서 식전행사로 대구 가스폭발사고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축원이 송산스님(승가대 학장)의 집전으로 봉행되기도 했다.



◇ 개막식에 참가한 교계 인사들이 전시실을 둘러보고 있다.

내년 1월31일까지 열리는 이번 문화전은 350평 규모에 8개의 전시실로 나눠 불교의 발생에서 유래, 국가별 전시실, 생활풍물관, 성철스님관, 석가모니관, 불교영상관, 불교유적 사진전시관 등이 마련되어 세계불교문화가 살아 숨쉬는 각국의 불교문화를 이해토록 하고있다.

특히 석가모니관에는 부처님의 일생을 엿볼수 있는 '팔상도'를 비롯하여 부처님이 탄생한 고대도시 '카필라 바스투'에서 발굴된 진신사리를 친견토록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또 성철스님 유물관에는 누더기,고무신등 국내에 미공개된 30여점의 유품이 전시되어 성철스님의 행장을 엿볼 수 있도록 하고있다.

이밖에도 고색창연한 3천년 불교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불교의 전파경로, 세계의 승복, 미얀마의 패엽경,대만의 달마상, 네팔의 미륵불, 태국의 불상, 서산대사 호박염주, 사명대사 목도장등이 전시되고있다.

불교방송은 전시회기간동안 '세계불교 음악회' '불교전통의식 시연' '명작 불교영화 감사회'등 다채로운 행사를 갖는 한편 불교의 역사적 사건재현, 세계불교 장인제작시연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세계불교문화대전 개관기념 팜플렛과 세계의 불교유적도록은 오는 25일 출간된다. 〈김원우기자〉



◇ 지난 4일 길음사회복지관에서 한 스님이 노인들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있다.

각 사찰·단체들 경로위안잔치 '孝 공양'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과 함께하며 부처님 오신 뜻을 밝히는 경로위안잔치가 각 사찰과 단체들을 중심으로 다채롭게 펼쳐졌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조계종 봉축위원회는 4월30일과 지난 3일 탑골공원에서 '무차대회'를 열고 무의탁 노인 5천여명에게 떡과 음료수 등을 공양했다.

길음종합사회복지관도 지난 4일 어버이날 맞이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행사를 열고 지역 무의탁 노인 2백여명의 가슴에 정성어린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등 경로잔치를 벌였다.

이밖에도 구룡사, 명락사, 삼광사 등의 사찰과 경주사암연합회 등 전국에서 노인을 위한 경로위안 잔치가 줄을 이어 부처님 오신 날과 어버이 날을 잇는 훈훈한 5월을 만들었다.

방송 하이라이트

btn ch32

올바른 불자가정 만들기

TV신행상담(11일 11:10~12:00) 〈올바른 불자가정만들기〉라는 주제로 〈자녀〉편과 〈부부〉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데에 있어서 어린이, 어른을 가릴 것 없겠지만 우선은 신도의 자녀부터 포교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데…

연극인 김갑수씨 추억담

김병조의 스타쇼(10일 11:10~12:00) 연기력으로 승부하는 연극인이며 영화배우 김갑수씨. 영화 태백산맥에 얽힌 이야기와 연기를 하게 된 배경, 그리고 남다른 중고교시절에 관해 이야기를 듣는다.

케인은 헌툰을 탈옥시키고

만행승케인(14일 오후 9:00~9:50) 케인은 이복형 다니엘 케인을 찾기위해 감옥에 있는 헌툰을 찾아간다. 헌툰은 형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조건으로 감옥에서 탈옥시켜 줄 것을 케인에게 제안한다.

경전공부위해 촉나라 떠나

삼장법사현장(13일 12:30~13:20) 평소에 스승을 찾아가 경전공부를 더하고 싶었던 현장스님은 형님인 장점스님 몰래 6년동안 머물렀던 촉나라를 떠난다.

인도·한국·중국 불교문화

불교 2600년(10일 12:30~13:20) 인도, 한국, 중국간의 불교의 흐름과 문화를 소개한다. 동림사 돈황 석굴의 웅장함과 한국의 국보인 전등사의 약사전 및 스리랑카, 인도, 말레이지아의 불교문화 등이 소개된다.

BBS FM 101.9MHz(서울) FM 89.9MHz(부산) FM 89.7MHz(광주)

고승을 주제로 퀴즈 풀어

퀴즈대장경(11일 15:05~15:45) 인도 중국 우리나라의 훌륭한 고승을 중심으로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

불교학생회·청년회 탐방

언제나 푸른불교(12일 14:10~15:00) 젊은 불교의 산실인 초·중·고·대학 불교학생회와 청년회를 탐방한다.

부동산 실명제 정보 소개

BBS정보시대(13일 18:00~18:45) 부동산 투자 상담연구소의 김영규 소장이 출연 부동산 실명제에 대하여 들려준다.

그윽한 차 향기로 맑은 佛心을

현대불교 '茶 문화' 대잔치 24~28일 녹수청산

5월25일 차의 날을 맞아 현대불교가 다채로운 차문화 대잔치를 마련합니다.
그윽한 차향기로 건강과 맑은 불심을 가꾸는 이 잔치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강좌·시음·차밭 기행

▲차의 날 기념강좌(1)
- 주제:한국불교와 차문화
- 강사:선혜스님(전통불교문화연구원장)
- 일시:24일 오후 6시30분
- 장소:현대불교신문사 지하 녹수청산

▲차의 날 기념강좌(2)
- 주제:차 예절
- 강사:감승희(차생활교육원장)
- 일시:26일 오후 6시30분
- 장소:녹수청산

▲다구 전시판매 및 시음회
- 일시:24일~26일(오전 10시~오후 5시)
- 장소:녹수청산
- 유명 다구제작인의 다구가 차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생산가로 보급됩니다.

▲차밭 기행
- 일시:27일~28일(1박2일)
- 장소:지리산 쌍계사 일대
- 회비:4만원(현대불교 구독자는 3만5천원)
- 출발 27일 오전 10시 현대불교신문사
참가자 전원에게는 현대불교 1개월 무료 구독권을 드립니다.

▲문의:현대불교신문사(737-8881, 722-4162)
종로구 견지동 110-33번지

현대불교신문사

법계고시 6월말 실시

태고종, 자질향상·종단질서 확립

태고종(총무원장 박서봉)은 제6차 법계고시를 6월말경 실시할 전망이다.

승려의 품위보전과 자질향상 및 종단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법계고시는 대선(5급) 중덕(4급) 대덕(3급) 종덕(2급)품계를 비롯 승납 30세이상, 종덕품수 10년이 경과된 승려에게 주어지는 종사법계까지 실시한다.

태고종은 법계고시를 위해 고시위원회를 구성, 고시 과목과 방법, 장소, 일정등을 확정 5월말경 발표할 예정이다.

불교계에서 유일하게 실시된 법계고시는 75년과 78년, 82년, 86년, 90년에 이어 5년만에 실시하게 된다.

원효스님 추모대재

지난29일 금수사서 봉행

원효스님 열반 1309주년 추모대재가 지난달 29일 오전11시 2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불교원효종 총본산 금수사(주지 법흥)에서 봉행됐다.

이날 총무원장 대운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원효성사께서 밝히신 법등은 1천3백여년 긴 세월의 세찬 바람에도 꺼지지 않고 암야(暗夜)의 등불을 밝혀 왔다"고 스님의 뜻을 기렸고 "가치관의 혼미로 전인류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 성사의 화쟁사상(和諍思想)을 오늘에 재조명하여 지도이념으로 받들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9대의장 혜일 정사

진각종 종의회 구성

진각종의 최고의결기구인 종의회가 룡리원장 선거등을 앞두고 새롭게 구성됐다.

진각종은 춘기스승강공일정을 모두 마친 지난달 19일 총인원 대강당에서 전국 각실인당 스승들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스승총회를 개최, 종의회 의원 37명을 재선출하고 제9대 종의회을 출범시켰다.

이날 스승총회에서는 제9대 종의회 의장에 혜일정사(행원심인당)가 선출되었으며 부의장에는 일정정사(능인심인당) 복선종종사(보원심인당)가 선출되어 3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세계평화' 기념법회

일붕선교종, 장학금 수여도

일붕선교종 장학회(총재 서경보)는 지난달 26일 롯데호텔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세계평화의 날 제정 1주년 기념법회 및 장학금 수여식을 봉행했다.

각종단스님을 비롯 주한 스리랑카 인도대사등 5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남필우(서울 금양국 6년)를 비롯 총 13명에게 각각 30만원, 주한 외교관 자녀 2명에게는 각각 4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방송가 단신

BBS 창사5주 기념법회

불교방송 창사5주년기념법회가 지난 1일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불교방송 이사장 종하스님과 진흥원 서돈각 이사장등 내외귀빈과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됐다.

이날 기념법회에서 권오현 교수등 4명이 이사장 감사패를 문순호 강북영업소장과 김정학차장등 17명이 사장 감사패를 받았다.

'어린이와 청소년' 특강

청소년의 달을 맞아 보리방송모니터회는 오는 13일 인천 부루나포교원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유해한 방송환경'에 대한 특강을 실시한다.

이날 특강에서는 '방송과 가정' '어린이와 방송환경' '텔레비전 바로 보기' 등의 강연이 열린다.

불자가수회 다보법회

불자가수회는 오는 24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법당에서 종범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을 지도법사로 다보법회를 봉행한다.

'우리들의 부처님' 출시

불교방송 사업부는 부처님의 일대기를 그린 어린이 포교용 만화영화 비디오 테잎을 출시했다.

'우리들의 부처님'은 상·하 2부작으로 각 35분씩 모두 6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탁소리

겉치레 문화행사

도필선 〈취재2부 기자〉

부처님 오신날을 전후해 교계에서는 많은 문화행사가 열렸다.

그러나 부처님 탄생을 찬탄하고 이 시대의 바른 신행을 깨우친다는 의도로 준비된 이들 행사중 일부는 외적인 화려함에 비해 속은 '부실' 투성이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즉 문화행사는 많아도 '행사문화'는 바닥수준이란 것이다. 행사를 위한 행사, 본질이 왜곡된 행사는 우리에게 정신적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 수 밖에 없다.

지난달 30일 대한불청 직할 서울불교청년회 주최, '제7회 연꽃노래잔치'에서의 일이다. 극태의연한 프로그램의 편성과 참가자 명단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등의 미비하기 짝이 없는 주최측의 행사준비, 또 다른 참가자들이 경연을 벌이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념촬영하느라 여기저기서 품을 잡으며 행사장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하는 행태와 쉴새없이 웃고 떠드는 관람객.

이기적 질서의식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보여준 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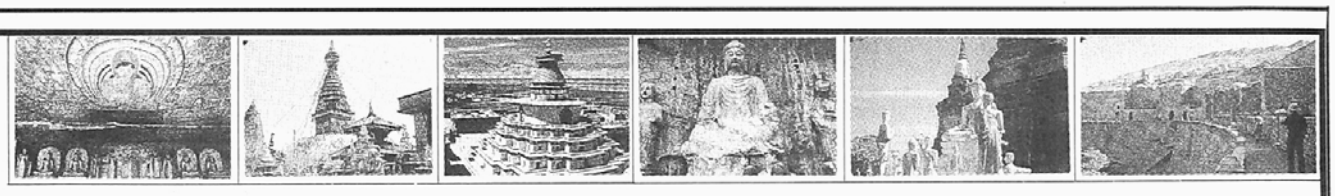
교계최초 행사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던 '만등만화행사'는 일회성에 그친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자 개인이 십만원이상의 금액을 감수해야 할 만큼 개인부담이 컸었다는 후문이다. 거액(?)을 들여 치장한 행사가 남긴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

교계의 비상한 관심속에 열렸던 '불교미술 그 전통성과 현대성' 세미나 역시 체계적 지식으로 논평한 발제자가 없어 공허하기까지 했다는게 참석자들의 중론이었다.

이같이 다수의 문화행사가 부실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무엇보다 주최측의 충분한 전문가의 견 수렴의 노력부족과 벌이기식의 행사준비에서 빚어진 일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참가자와 관람객은 용기를 북돋워주고 찬사를 보내는 마음을 키워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때 다채로운 문화행사에 걸맞는 '행사문화'가 정착되지 않을까?

불교성지순례



백중 두산·연길·북경 5일
- 출발:6월 3일
- 동참금:100만원
- 일정:서울-심양-연길-백두산-북경-서울

스리랑카 6일
-부처님 진신사리 천견-
- 출발:6월 2일
- 동참금:118만원

■여행조건 ●특급 및 1급(인도성지지역은 현지최고 수준) 2인 1실 기준 ●전일정 식사제공(인도성지지역은 한식제공) ●최소 출발인원:10인 ●전문 가이드 동행 ●여행자 보험

인도네시아 5일
-세계 최대의 불교기념비:보로부두르 사원-
- 출발:6월 4일
- 동참금:95만원

대만 5일
-불광사·화련·타이페이-
- 출발:6월 5일
- 동참금:65만원

중 국불교유적지 13일
- 출발:5월 30일
- 동참금:195만원
- 일정:서울-상해-계림-서안-낙양(용문석굴)-숭산 소림사-정주-태원-오대산(문수보살도량)-대동(운강석굴)-북경-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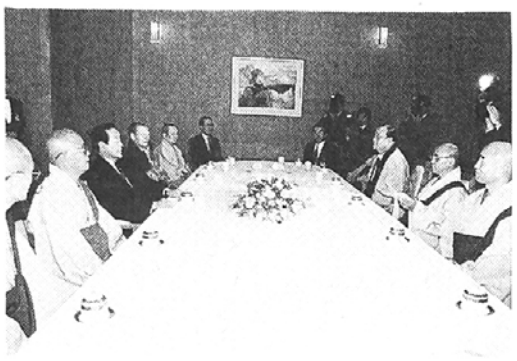
실크로드 불교 유적지 11일
- 출발:6월 3일
- 동참금:188만원
- 일정:서울-상해-소주-항주-서안-난주(병령사 석굴)-돈황(천불동)-투르판-우룸치-북경-서울

티벳·네팔 10일
- 출발:5월 27일
- 동참금:230만원
- 일정:서울-카트만두-라사-체탕-쟝체-시가체-라사-카트만두-서울

인도·네팔·태국 10일
- 출발:5월 26일
- 동참금:150만원
- 일정:서울-방콕-델리-사르나트-부다가야-파트나-나란다-영취산-죽림정사-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카트만두(보드넛·스와이앰부넛)-방콕(새벅사원 에메랄드사원)-서울

■한국음식 제공■

HYECHO ADVENTURE TOURS, LTD. 혜초여행사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544-1533(代)



◇교계 지도자들과의 모임에서 김대통령은 불교계가 국민의식 개혁에 앞장서고 복지사업에 힘써주기를 당부했다.

"불교문화 보전은 국가사업"

김영삼대통령, 불교지도자 초청 오찬

BBS 지방국허가등 10개항 건의

김영삼대통령은 부처님 오신 날을 사흘 앞둔 지난 4일 정오 조계종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 서봉 태고종 총무원장을 비롯한 불교계 지도자 9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모임에서 "불교문화의 보전 발전은 중요한 국가사업의 하나로서 앞으로도 계속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 말하고 "불교계가 국민의식 개혁운동에 적극 참여, 사회 도덕성 함양에 기여해 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는 복지사업에도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종단대표들은 "노인과 장애인들을 돕는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여 나가겠다"면서 사이비종교가 발호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적극 대처해줄 것을 건의했다.

월주 조계종 총무원장은 김대통령에게 △종토세·토초세 면세 △자연공원 축소 반대 △성보박물관 건립지원 △역경사업지원 △불교관계 법령 개정 △불교방송 지방분국 추가 허가 등 10개항의 불교계 대정부 건의서를 문서로 전달했다.

"대선공약 적극 추진"

민자당은 지난 2일 당사 회의실에서 곽정출 민자불교신도회장과 김윤환 조직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계언론간담회를 갖고 △역경사업 △불교방송국 지방국 설립 △정규승가대학 설립 인가 △군종제도 개선 등의 추진현황을 설명했다. 또한 불교관계 법령 정비에 대해 적극 검토키로 하는 한편 토초세의 경우 △고유목적토지는 면세 △신규취득토지 과세 유예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나라·도민 안녕' 법회

붓다제주중앙클럽 지난 2일

붓다제주중앙클럽(회장 박동일)은 지난 2일 제주 오리엔탈 호텔에서 '나라와 도민의 안녕을 위한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사부대중 3백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는 제3회 붓다대상효행부문과 전통문화예술부문, 불교부문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불심으로 화목… '우리는 가족 포교사'

5월 가정의 달…불자가정 치우네 집

"친구들도 저랑 같이 부처님 법이 있는 곳에 많이 참석해 자랑스런 포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종립 은석국민학교 6학년 안치우군이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한 말인.

중랑구 망우1동 134번지 치우네가 살고있는 동네는 요즘 보기드물게 조그마한 불자타운을 이루고 있다. 이 동네에서도 '가족 포교사'로 불리는 '치우네'. 아빠 안광륜거사(40, 삼성화재) 엄마 김학희보살(39), 그리고 남매인 미선(동원중 1) 치우로 이루어진 가족은 여느 가족처럼 단란하고 평범한 가족이면서 포교에 열심인 '가족 포교사'로 소문나 있다.

봉사·친목·신행단체인 '도솔회'의 일원이면서 은석국민학교 불자 어머니들 모임인 '연화어머니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학희보살은 가족중에서 누구보다도 전법에 열심이다.

"은석국민학교에 아이를 입학시킨 어머니들 중에는 봉사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 불교에 관심없던 부모들도 종립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불자가 될 수 있어요."

김보살은 불교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들려주고, 절도 소개해 주고 하며 어머니들을 불교로 이끈다. 그에게는 항상 단주와 법문테이프가 여러개 준비돼 있다. 단주나 법문테이프야말로 불교로 입문시킬 수 있는 간단한 선물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남들은 휴가때 바다나 유원지를 찾지만 이 가족은 성지순례를 떠난다. 바쁜 아빠때문에 자주는 못가지만 지난해는 적멸보궁과 상원사 월정사를 참배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소개한다.

삼성은 요즘 부서별로 테마를 잡아 사회봉사활동을 펼칠 것을 권하고 있다. 안광륜거사의 부서는 소년소녀가장돕기를 정했다. "물질보시보다도 情보시를 하자"는 것이 그가 부하직원들에게 늘 강조하고 있는 말이다. 또 돕는다는 相을 내기보다 마치 숨쉬듯 자연스럽게 도와주자는 말도 자주한다. 전교 1등을 다투는 미선이와 연화보이스카우트 회장, 연화어린이회 부회장 등 활동적인 성격의 치우는 학교에서 어려운 친구를 보면 잘 돕는 걸로 이름이 나 있다. 친구들이 장난으로 개미 한마리라도 죽이는 걸 보면 진언을 외워 다시 풀은 데서 태어나라고 축원을 해주기도 한다.

시험때면 법당에 들러 "부처님, 밝은 지혜로 제가 공부한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 주세요" 꼭 기도를 드린다는 미선이는 벌써 수계를 두번 받았다.

이들 가족은 부처님 오신 날인 7일 흥안사에 들러 며칠전 가족이 함께 모여 만든 연등을 달았다. 엄마 김학희보살의 생일이 부처님처럼 음력 초파일이라 부처님과 엄마의 생일을 축하하고 법당에 들러 다시 한번 서원을 올렸다.

이들 가족의 서원을 들어보자.

"아이들이 자라 시간이 나면 부부가 같이 불교대학에 다녀 교리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고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고 싶어요."

자광원등 어려운 복지시설을 찾아 가족이 함께 봉사활동을 펼치겠다는 것도 가족 포교사 치우네의 계획이다.

〈이경숙 기자〉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을 전하고 싶다는 치우네 가족.

"부처님 자비로 病苦 이겨내자"

국립의료원등 병원법당 포교활성화 대책 논의

환자들을 간호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병원법당들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일제히 봉축법회를 봉행했다.

지난 3일 국립의료원을 시작으로 11일까지 현대중앙병원, 서울대학병원, 국립경찰병원, 경주동국대학병원, 한국보훈병원, 삼성의료원 등 7개 병원에서 열린 봉축법회에서 스님과 자원봉사자들은 병원포교에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지난달 13일에는 국립의료원법당 혜도스님, 경찰병원법당 성범스님등 6명의 스님들이 모임을 갖고 병원법당 포교 활성화를 위한 정보교환, 상호협조를 이뤄갈 것을 논의했다.

포교사 연수교육 실시

조계종, 21일~내달 18일

조계종 포교원은 오는 21일부터 6월18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 등 5개지역에서 포교사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포교사들의 자질강화와 포교활동 진력을 위해 실시되는 이번 연수교육의 대상은 신규 포교사 및 포교사증 갱신자이다.

일정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부산·경남지역 5월 21일(부산불교대) △광주·전남지역 5월 28일(광주불교대) △전주·전북지역 6월 4일(화엄불교대) △대구·경북지역 6월 11일(대구불교대) △서울·경기지역 6월 18일(조계사 불교회관).

민불련 창립 10주년

13일 봉은사서 법회

민중불교운동연합(의장 서동석)은 오는 13일 오후 3시 봉은사에서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거행한다.

이날 행사에는 기념식에 이어 고은시인(본지 논설고문)의 장편 서사시 백두산을 극화한 기념공연이 펼쳐진다.

비구니회 총회 개최

18일 회장선출·회관건립등 논의

전국비구니회(회장 혜춘스님)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목동 청소년회관에서 제4차 비구니회 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의 안건은 △신임회장 선출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선출 △지회장 선출 △비구니회관 건립 △기초선원 및 비구니율원 설립의 건 등이다.

중앙승가대·태국불교대 자매결연 추진키로

중앙승가대와 태국불교대학이 자매결연을 맺고 학술·교수·학생교류를 하게된다.

중앙승가대 학장 송산스님은 지난1일 태국 왕립불교대학 프라아마라베 다카리아 총장의 예방을 받고 두 대학간 자매결연을 논의했다. 송산스님은 학술 및 도서 교수·학생교류를 제의했으며, 다카리아 총장이 이를 수락함에 따라 공식 추진키로 했다.

신도조직·종교정책·불방사태

범 불교재가연대회의 3개특위 구성

범불교재가연대회의는 2일 대불련사무실에서 제1차회의를 갖고 운영위원회와 3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 재가연합, 전불련, 대불청등 9개단체 실무책임자들은 △조직위상 및 목표설정 △운영구조와 활동방향 △현 불교계 상황과 현안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불평등 종교정책특위(위원:김재일 조달현 유정희), 신도회구성특위(위원:윤소년 최연 윤남진 이영철 강성식), 불교방송특위(위원:김동근 황의수 김남수)를 결의했다.

재가연대회의는 특위별로 모임을 갖고 단체대표가 참석하는 운영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대덕 야간학교 개설

법동복지관 24일 입학식

대전 법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종실스님)은 배움의 시기를 놓친 근로청소년과 검정고시준비 지역주민을 위한 대덕야간학교를 개설했다.

지난달 24일 입학식을 갖고 본격 수업에 들어간 대덕야간학교는 오는 8월까지 4개월간 매일 저녁 7시~9시 수학과 영어수업을 실시한다.

또한 생활지도, 문예활동 및 상담도 병행할 계획이다.

'불교와 평화…' 국제 학술대회

하와이 대원사 6월3일~8일, 11개국 40여명 참석

하와이 대원사(주지 대원)가 주최하는 제7회 불교와 평화 국제 학술회의가 6월3일부터 8일까지 호놀룰루에서 열린다.

'불교와 평화, 그 이론과 실천'을 주제로 한국, 북한, 미국, 일본 등 11개국 학자 40여명이 참가할 이 학술회의는 대원사 창건 2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다.

대원사는 이번 학술회의를 대규모로 열기로 하고 하와이 대학 철학과와 공동 주최키로 했다. 2년마다 한번씩 개최해 온 이 학술회의는 불교뿐 아니라 세계의 종교학자들이 참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측에서 정병조 교수(동국대), 심재룡교수(서울대)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외국인 노동자 위로

지난 3일 문화공연등 열려

부처님 오신 날 기념 외국인 노동자 법회가 네팔등 외국인 노동자 20여명과 화계사 국제선원 외국인 스님, 외국인 노동자마을 관계자, 신도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일 조계사에서 개최됐다.

대구시민돕기 헌혈

동국대 불교학생회

동국대 불교학생회(회장 이익수)와 생명공양실천본부(본부장 법장스님)는 지난 1일~3일까지 대구참사 유족 돕기위한 헌혈운동을 동국대 중앙도서관 앞에서 실시했다.

3일간 진행된 이번 헌혈운동에는 총4백50여명의 학생들이 헌혈에 동참, 헌혈기증서를 대구시에 전달했다.

무차대회 5천여노인 참여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외로운 노인들을 위한 경로잔치 '무차대회'가 5천여명의 노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달 30일과 5월 3일 탑골공원에서 봉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사 청년회와 자원봉사자 후원업체로 나선 일양약품 직원들이 노인들에게 떡, 과자, 음료수를 공양했다.

대구신도회 가족찬불가 경연

대구광역시 신도회(회장 김향탄)가 마련한 '제2회 가족찬불가 경연대회'가 지난 1일 대구 고려예식장에서 개최됐다.

찬불가를 대중에게 널리 보급하여 생활화하기 위한 이날 대회는 모두 15개 팀이 참가했다.

전불련 남북교류 촉구 서한

전불련(상임의장 지선스님)은 지난 6일 '남북간 불교인 교류와 관련해 총무원에 드리는 공개서한'을 통해 범종단적인 차원에서 통일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전불련은 통일운동이 총무원을 비롯 광불협, 전불련, 실천승가회 등 모든 단체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독자적 통일사업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화산 효행교육원 6월 착공

경기 화성 용주사 화산효행교육원(원장 정현스님)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수원 실내체육관에서 '화산 효행 교육원 자선 축하공연'을 개최한다.

오는 6월초 착공식을 갖게 될 교육원은 연건평 3천여평에 숙소와 교육동을 포함한 지하 1층 지상 2층에 체육시설 등을 갖추게 되며 내년 6월 완공될 예정이다.

'일하는 불자들의 법회' 창립

전지협 전교조 한국통신노조 철도해고노동자노조 건설일용노조 등에서 활동하는 불자들의 모임인 '일하는 불자들의 법회(모임)'가 창립될 예정이다.

전불련(상임의장 지선스님)은 지난달 21일 관계자 전체회의를 갖고 오는 6월3일 창립법회를 갖기로 결정했다.

이 모임은 노동불자들의 생활고를 함께 나누고 불교사상을 통한 노동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불출협 불서목록 무료배포

제34회 서울국제도서전이 17일부터 24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 태평양관에서 개최된다. 20개국 186개 출판사가 참여하는 이번 도서전에 불교출판협의회(회장 원택)는 542번, 대원사는 739번 부스에서 불서를 전시, 판매한다. 이 기간중 불출협은 '불교서적 종합목록'을 무료로 배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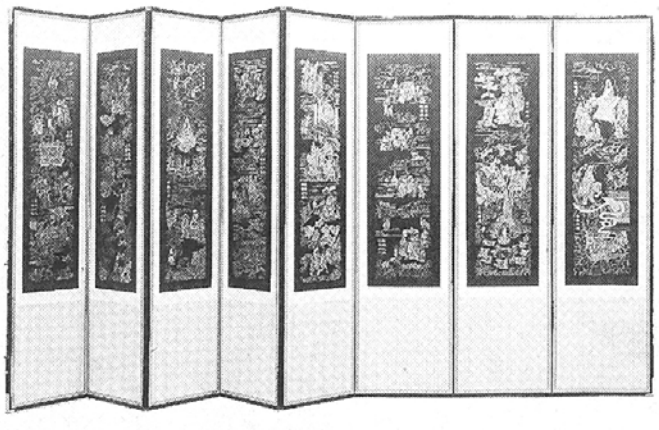
구독신청: 737-8881

불기2539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기념 특별보급

석가세존부처님 일대기 금화병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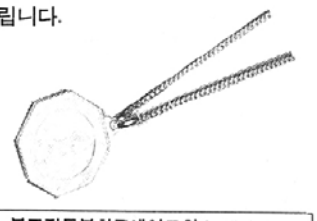
살아있는 병풍—팔상록

장엄하신 석가세존부처님의 일대기를 金畫로 전면에 조성하여 부처님의 위업과 구도를 널리 전하고자 합니다.



봉축기념 특별선물

봉축기간에 신청하시는 불자님에게 성불메달(관세음보살, 반야심경 양면)을 선물로 드립니다.



불교전통불화공예연구원 (조계사 후문)
기획 제작 三田佛事
■ 문의처 : (02)732-6095 ~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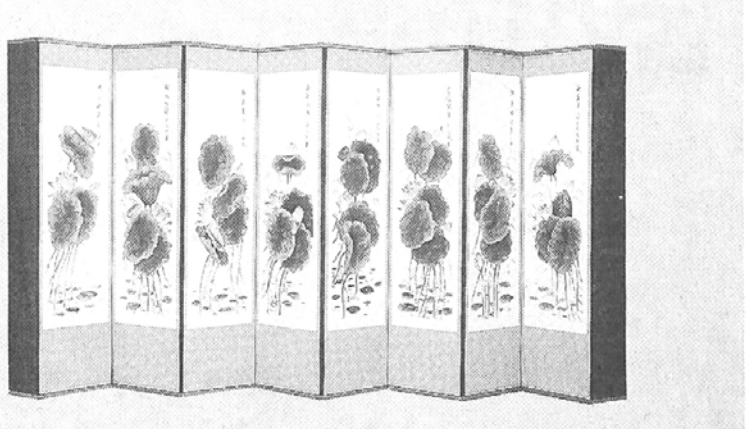
후면 : 금정산인 정관 친필 반야심경
봉축특가 ₩390,000(현금 및 은행신용카드)

규격 및 특징
- 높이 : 5자5치(167㎝)
- 폭 : 12자(364㎝)
- 재질 : 고급 스기목·스모사 고급비단

• 불교전통표구·각종 불교행사 기념품등을 기획에서 제작까지 저렴하게 하여 드립니다.
(클로버서비스)080-023-1101
(수신자 요금부담)

林泉화백 불성 연화도 병풍

부처님 오신날 봉축 불성의 연화도! 재가불자 화백 林泉거사님의 수행작품을 8폭 병풍으로 제작하여 불자님들에게 특별보급합니다.(108점 한정)



후면 : 금정산인 정관 친필 반야심경
봉축특가 : ₩420,000(현금 및 은행신용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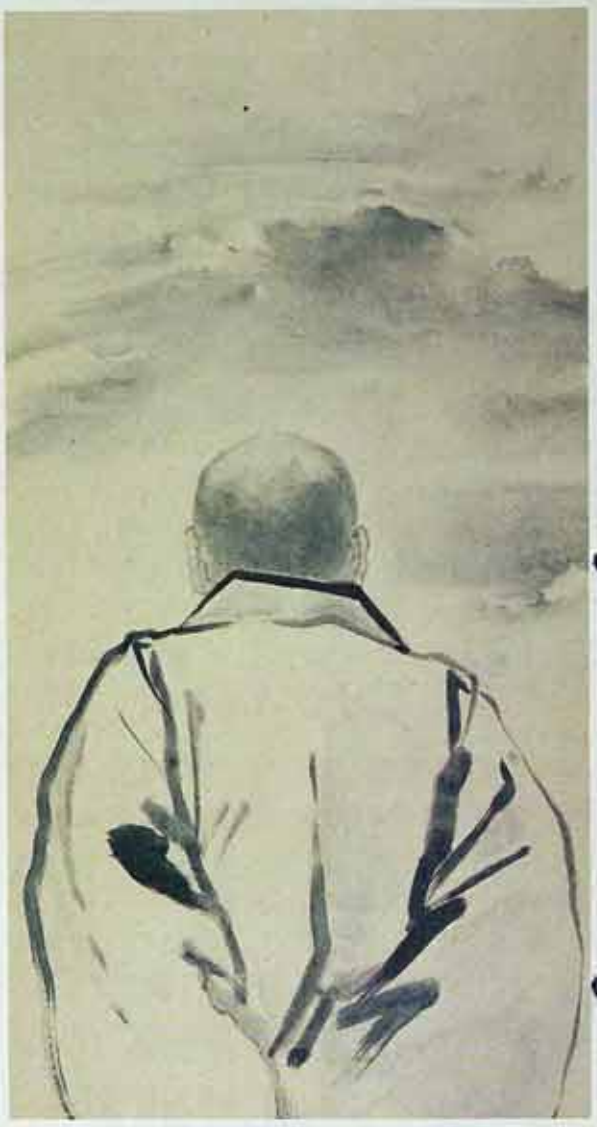
작품 규격 및 특징
- 높이 : 5자5치(약167㎝)
- 폭 : 12자(약364㎝)
- 재질 : 고급스기목·스모사 고급비단



법당 수호하는 용 물갑사 대웅전 처마밑에 조각된 용머리. 튀거진 눈과 드러낸 치아가 '수호신'의 힘을 말해 준다. 이 조각은 법당의 어간문 위에 위치해 있으며 빛바랜 단청속의 나무결이 고색창연하다.
〈관조스님 사진전, 서남미술관에서 18일까지〉



부처님 진신사리 2천5백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부처님이 오셨다. 인도 델리박물관에 소장된 이 진신사리는 고대 카필라바스투로 추정되는 피프리화와 스투파에서 1898년 고고학자 렙페에 의해 발견된 것이다. 한국에서 최초로 공개된 이 진신사리는 모두 5과이다.
〈불교문화대전, 용인자연농원 특설전시관 내년 1월 31일까지〉



먼산 보는 성철스님 가야산 호랑이 성철스님이 먼산을 바라보고 있다. 뒷모습에서도 선연하게 보일듯한 스님의 깊은 눈빛이 떠오른다. 인개 자욱한 먼산은 스님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보이고 있을까. 성철스님을 수묵화로 그린 김호석씨의 작품이다.
〈성철스님 회고전, 한가람미술관 13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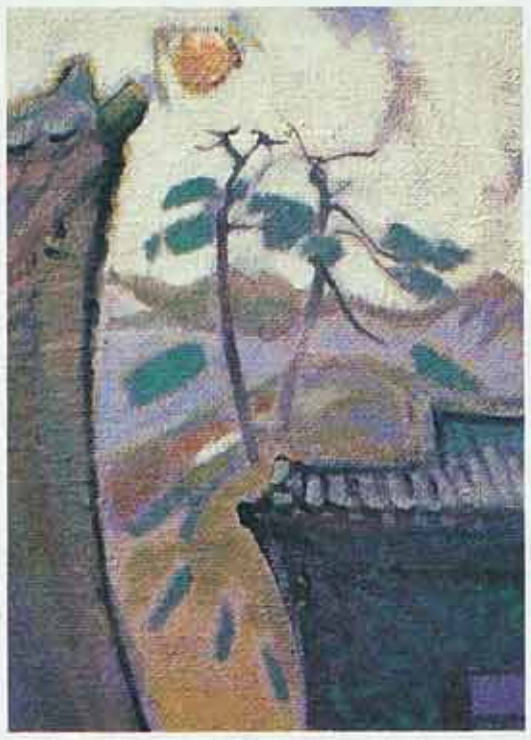
초파일 봉축

볼만한 전시

불심, 예술과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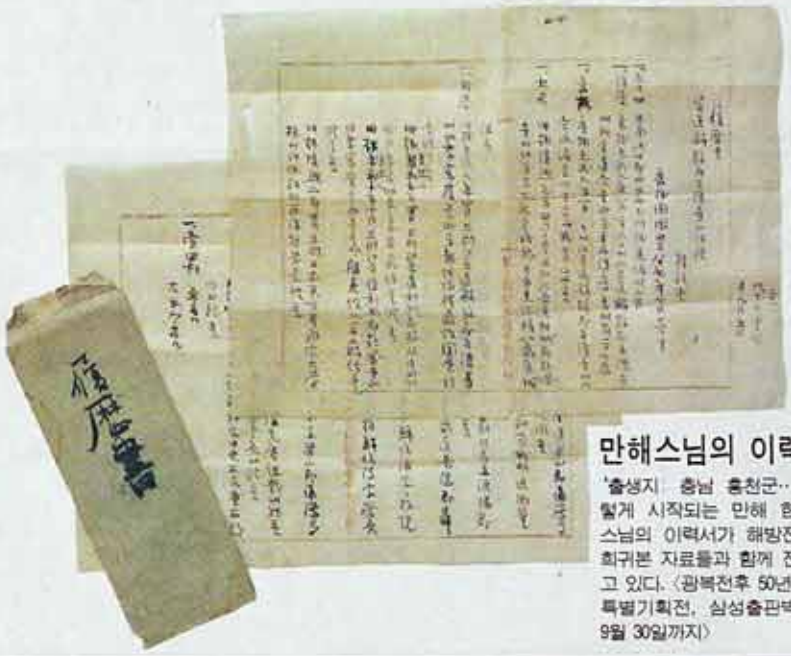
울고 계신 부처님 부처님이 울고 있다. 세속의 어둠이 안타까와 부처님이 모로 누운채 울고 있다. 그러나 작가 황지우씨는 이 작품을 '저물면서 빛나는 바다'라고 명명했다. 해 저무는 서해바다는 부처님의 눈물로 인해 밝아진다는 뜻일게다. 〈황지우조각전, 학고재 9일~21일〉



보현암 해인사를 유화로 그린 최학노씨는 해가 가운데 뜬 보현암을 매우 은근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 은근함은 산내 암자의 정적이기도 하다. 〈가야산 해인사풍경, 덕원미술관 10일~16일〉



魚山-다라니 중생계의 아픔을 대신 아파하는 물고기의 이야기가 울긋불긋하게 몸을 감싸고 있다.
〈김한창조각전, 백상갤러리 16일까지〉



만해스님의 이력서 '출생지 충남 홍천군…' 이렇게 시작되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이력서가 해방전후의 희귀본 자료들과 함께 전시되고 있다. 〈광복전후 50년 자료특별기획전, 심성출판박물관 9월 30일까지〉

KIA 기아자동차

'94, '95 2년 연속 환경관리 모범업체

엄청난 프레임이 숨어있다!



■ 2중 구조의 특수 강철 프레임
스포티지의 프레임은 굵고 단단한 2중구조의 특수강철 프레임으로, 충돌 안전성 및 충격흡수성이 탁월하여 탑승자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지켜줍니다.

프레임은 안전의 기본,
어떤 승용차에도 이런 프레임은 없습니다.

프레임은 바로 차체의 골격! 충돌시 내부에서 차체를 버텨줌으로써 찌그러짐·비틀림을 최소화하여 탑승자를 1차적으로 보호해주므로 프레임이야말로 안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포티지는 충돌 안전성·충격 흡수력이 탁월한 2중 구조의 특수 강철 프레임으로 특히 오프로드에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높은 고갯길이나 험한 산길도 올 봄에는 스포티지로 달려보십시오. 이제껏 보던 것보다 훨씬 싱그럽고 생동감 넘치는 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스포티지를 본격 RV(Recreational Vehicle)라 부르는가?

RV란? 출퇴근, 비지니스, 레저 등 자동차에 대해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다목적 자동차로, 우리나라에서는 스포티지가 최초의 RV 고유모델입니다. 세계 유명 모터쇼에서도 선진 메이커들이 앞다투어 새로운 RV모델을 선보이는 등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 충돌안전성이 뛰어난 고장력강판
- 사륜구동 최초 리어 ABS 브레이크(ABS 패키지 옵션)
- 2차 충격을 막아주는 T형 버팀식
- 고급 승용차용 더블 위시본식 독립 현가장치(전륜)
- 운전자를 보호하는 충격흡수식 핸들
- 도어 임팩트 바 및 논재밍 안전도어

70%는 바다를 건너간다.

Sportage

기분 좋은 뉴스!
1200만원대 스포티지
- 2.0가솔린(SOHC) ₩12,000,000
- 2.0가솔린(DOHC) ₩12,600,000
- 2.2디젤 ₩12,370,000



출고문 이외 드라이브를 위한 선루프를 무료로 장착해 드립니다.
• 대상 4월11일-5월10일 구입 전고객(승용기준)

정부 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SOHC M/T 9.0km/ℓ (1998cc, 1396kg, 수동 5단 4륜급 1500~2000cc)
• SOHC A/T 9.2km/ℓ (1998cc, 1429kg, 자동 4단 4륜급 1500~2000cc)
• DOHC M/T 8.3km/ℓ (1998cc, 1425kg, 수동 5단 4륜급 1500~2000cc)
• DOHC A/T 8.5km/ℓ (1998cc, 1465kg, 자동 4단 4륜급 1500~2000cc)
• 표준연비 시험방법 : 교체형 교기아주조 공기에어 에너지효율 측정방법에 의함